



9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9호

(루계 383)



◆◆◆◆◆◆◆◆◆◆ 차 례 ◆◆◆◆◆◆◆◆◆◆

| | |
|-----------------------------------|----|
| 당이어 그대 부름이라면 | 4 |
| 영원한 승리의 노래 | 6 |
| 티없이 맑은 충성심으로 | 8 |
| 영원한 글발 | 10 |
| 망양나루에서 | 12 |
| 세상에 우리들이 태어나기도전에... .. | 13 |
|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교활성에 대한 준렬한 단죄 | 14 |
|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적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 19 |
| 당은 나의 어머니 | 26 |
| 사랑의 그 품이 고마와 | 27 |
| 당원의 삶 | 28 |
| 세대주 | 29 |
| 다툼은 말 | 39 |
| 정든 고장 | 40 |
| 조국을 안겨주시다 (외 1 편) | 49 |
| 세전사 | 49 |

| | |
|------------------------------------|----|
| 기쁨 | 50 |
| 미래에 보내시는 사랑 | 51 |
| 청춘, 그 이름 빛내며 | 52 |
| 네가 것처럼 아름다운것은 | 53 |
| 고향길에서 | 54 |
| 산정의 새 세대들 | 55 |
| 진심 | 63 |
| 충성의 궤도를 따라 | 67 |
| 수도의 식료공업기지를 찾아서 | 70 |
| 매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 73 |
| 현대적미감과 속도감 | 76 |
| 충성의 열정 더욱 불타게 하는 이런 작품을! | 79 |

당이어 그대 부름이라면

윤두만

해와 별을 이고
날마다 걷는 길이건만
그 햇빛
그 별빛
그리도 정다움은
당이어 그대 부름안고
내 걸기때문이어라

언제나
봄날처럼 마음 즐겁고
비개인 하늘처럼 맑고맑음은
당이어 그대 위해
깨끗한 마음 지니고
내 살기때문이어라

바라보는 모든것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라고
그대 주는 사랑
그대 주는 믿음
가슴깊이 지냈기에
순간마다 느끼노라
나의 심장
그때문에 이리도 높뛰는것을

아 당이어
우러러따르는 우리 당이어
그대 부르는 길은
이 땅우에

주체의 위업 꽃피워가는
새 세기의 길

그 길우에
내 당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나의 소중한 삶도
깨끗한 량심도
그대 위해 바치고싶고
하나의 분공을 끝내면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 안겨주는 그대 품에
혁명가로 내 자라기에
그 무엇도 아낄것 없으라
그대 위함이라면

옳기는 걸음걸음
당의 부름안고 가고
투쟁의 순간과 순간을
당의 위업 받들어
보람찬 자욱을 새겨가거니

아 당이어 그때문에
날마다 맞는 아침이
그리도 찬란한 노을을 펼치며
머리우에 밝아오는것 아닌가

나의 심장
당의 숨결로 고동치기에

내 언제나
누리에 불붙는 열정
이 세상 두려움 모르는
담력을 지니였어라

내 바라는 모든것
당의 구상속에 꽃피고
삶도 행복도
끝없는 영예도
당을 받드는 그 길우에 있거니

당이어 그대 부름은
지상의 명령
그대의 결정은
어길수 없는 법
그대 부름이라면
담력도 밀고나가고
사나운 풍랑도
그대 안겨준 신념의 노래부르며
헤쳐넘으리라

누리에 찬란히
주체사상화의 기치 날리며
영광의 새 세기
양양한 미래에로
향도하는 우리 당

우리의 심장인 그대
우리의 눈동자인 그대
영광스러운 당이어

그대 위한 길우에서
내 설사 쓰러진다 해도
영광이여라
그대 안겨준 삶은 영원하기에

물불을 가리랴
당의 뜻을 꽃피워가는 길우에
더없는 행복
휘황한 미래가 있나니

내 바라는것은
그대 주는 가장 어려운 일
내 서고싶은곳은
오직 그대 부르는 전투장

당이어 그대 위해
내 날마다 이 땅우를 걸어갔다
걸음마다
그대 명령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조
절대성 무조건성
이 변함없는 자욱을 새기며

아 세기의 영광 지닌 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한없는 공지여
끝없는 자랑이여
내 심장 영원히
그대 위해 교동치리

영원한 승리의 노래

정렬

바라보면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푸른 골짜기
흐르는 강줄기들을 거느리고
철의 성벽으로 뻗어간 산밭

포연에 끼슬렸던
그날의 그 바위우에
세월의 이끼는 푸르려도
침략자 미제를 죽친
멸적의 그 기상 떨치며
승엄히 솟아있는 천만 메부리

전호가의 한줄 흙에도
결전으로 나아가던
전사들의 후더운 숨결이 어려있고
가슴에 안겨드는 바람결에도
승리의 함성 터지던
그날의 감격이 넘쳐흐르는
영웅의 봉우리어

말하라
전선길 천리
포연속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치렬한 싸움터를 굽어보시며
작전도를 펼치셨던
그 바위터는 어디나

수령님 손길따라

서리발 총창이 번쩍이던 고지들
저 골짜기에서
《최강》을 뿜내던 미제의 정예사단들이
서산락일의 운명을 안고
함정골에 처박히지 않았던가

아 싸우는 최전선
언제나 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혈전의 고지에서 고지로
불타는 전선에서 전선으로
철의 대오를 이끌어오신
강철의령장 **김일성**원수님

잊을수 없어라
별들이 남으로 흐르는
진격의 나루터에서
함께 강을 건진 그 밤이여
수안보의 야전천막가에서
전사들의 노래를 들으시며
승리의 신념을 안겨주시던
못잊을 그 새벽이여

한번 큰걸음 옮기시면
원쑤의 머리우에 불벼락 내려지고
한번 붉은 화살을 그으시면
작전을 계가루로 날리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몸소 사격좌지에도 서보시고
전사들의 고향과 이름을 물으시며

어깨도 다정히 두드려주신
아버이수령님

그 사랑을 안고
나서자란 소중한 조국
한치의 땅을 지켜
돌격으로 나아가며 높이 웨친
《**김일성**장군 만세!》소리
오늘도 위훈으로 부르며
산발마다 메아리치거니

아 수령님 계시여
전사는 전사마다
영웅으로 태어나고
고지는 고지마다
철웅성으로 솟아
존엄의 상상봉으로 빛나고있어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
위대한 수령님 모시였기에
력사에서 처음 미제를 쳐부신
승리한 인민의 이 존엄
승리한 인민의 이 영광을

저기 분계선너머 남녘땅
《**철군**》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미제
철쇄에 묶이여

피흘리며 신음하는 암흑의 땅을 굽어보며
오늘도 조국의 고지는 분노를 터뜨린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선을
영원히 갈라놓으려 날뛰는놈들
원썹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국의 고지는 자위의 성새로 솟아있나니

한포기 풀
한그루의 나무
이 땅에 주렁진 한알의 열매라도
원썹들이 감히 건드린다면
폭풍을 안고
우뢰를 안고
활화산이 되어 터져오르리라

수령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슬기와 용맹을 지니고
일당백 힘을 떨치며
자주의 기치 높이 나아가는 조선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땅을 따라
우리 언제나 충성의 자욱을 새겨가리니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
영원한 승리의 노래높이 울리리라

티없이 맑은 충성심으로

-회령혁명사적관을 찾아서-

김문창

9월...

유서깊은 회령의 푸른 언덕들과 산기슭마다에 파사로운 가을해빛이 넘친다.

맑은 해빛속에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과 숭고한 추억을 안고 우리는 회령혁명사적관을 찾았다.

푸른 하늘, 흰구름을 높이 띄우고 서있는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오산덕의 정성고인 돌층계를 하나하나 밟아오르는 우리 마음은 한없이 경건해졌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땅 어디서나 바라보이는 오산덕기슭에 숨엄한 모습으로 서계신다.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정히 쓰시고 항일전의 간고한 나날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그처럼 믿음직하게 보위해오신 귀중한 권총을 간직하신채 진달래를 정답게 안으시고 서계시는 어머니의 거룩하신 영상! 어머니께서는 맑은 미소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굽어보신다. 어머니의 모소에는 한평생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오신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행복과 조선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마련하신 위대한 어머니의 크나큰 기쁨이 비껴있다.

숨엄한 마음에 싸여 동상을 우러르노라니 금시 어머니의 고귀한 말씀이 들려오는듯싶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먼 래일에도 영원히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며 혁명전사의 본분과 가치에 대해 생각을 가다듬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 어머니께서는 이 진리를 항일의 눈보라, 불길속에서 자욱자욱 충성으로 꽃피워오시었다. 그래서 만사람의 심장속에 조선공산주의자의 영원한 구감으로, 가장 숭고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빛나는 충성의 모범으로 길이 살아계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회령혁명사적관에 전시된 사진들과 사적물들, 해설강의를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

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지극한것이었던가를 다시금 커다란 충격속에 가슴속깊이 새기게 되었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나라 없는 민족의 온갖 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시면서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불타는 항거의 정신을 키우시었다.

혁명의 길에 들어서시어 장군님의 품속에서 살며 싸우게 된 어머니의 환희와 걱정은 비할바없으셨다.

어머님께서서는 감격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사령관동지를 직접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들고 싸우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가자요!》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인민이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었으며 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는것을 확고히 믿으시었다.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철석같은 신조로 간직하시었다. 하였기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였으며 한생을 변함없이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싸우시었다.

혁명사적관에 전시된 사진들과 자료들은 항일전의 간고한 나날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시기 위해 얼마나 견결히 싸우시였으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정성과 심혈을 다바쳐오셨는가를 생동하게 전해주고있다.

《사령관동지의 안전을 보위하는것은 조선혁명을 목숨으로 지키는것이며 사령관동지의 건강을 보호하는것은 일관단심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들의 신성한 의무이다.》-바로 이것은 김정숙어머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였다.

항일무장투쟁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고 사선을 헤치는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겨야 했던 피어린 투쟁의 나날이었다. 그 간고한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김정숙어머님께서 남기신 자국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영원불멸한것들인가! 대사하치기의 싸움터에서 위기일발의 순간 몸으로 적탄을 막아나서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신 김정숙어머님! 소부대를 이끄시고 먼길을 떠나시

는 사령관동지의 신발속에 자신의 머리털을 깔아 드린신 이야기며 장군님의 젖은 옷을 자신의 몸에 품어 말리워드린신 이야기, 편이은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장군님의 식찬을 마련하시기 위해 키넴는 눈을 헤치시며 풀뿌리를 캐신 이야기... 항일전의 그 무수한 언덕들과 위대한 력사의 폐지우에 남기신 어머니의 충성심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이었던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어머니의 충성심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였으며 그지없이 지극한것이였다.

하기에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만수무강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는데서도 그처럼 견결하시였다.

어머니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청봉밀영에 들어박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혈투는 우연분자 엄가놈의 반혁명적죄행을 단죄하여 투쟁을 벌리신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켜준다.

1938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남파자로부터 백두산서남부에서 《고난의 행군》을 개시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살을 에이는 추위, 점점 막아서는 천고의 밀림, 게다가 일제 《토벌대》놈들이 진드기처럼 꼬리를 물고 달려드는 간고한 행군이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압살해보려는 망상미리에 무려 20만에 달하는 대부대를 밀림에 풀어놓았다.

이 시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께서는 남들과 같이 어려운 행군과 싸움을 치르시면서도 작식대일을 맡으시어 극진하고도 뜨거운 지성으로 전우들의 음식을 마련하곤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장백현 7도구치기 근방에 이르렀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행군의 간고성을 고려하시어 로악자들을 그 부근에 있는 청봉밀영에 보내기로 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부상자들을 돌볼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고 청봉밀영에 들어가게 되시였다. 청봉밀영으로 오신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들을 대원들에게 꾸준히 해설하여 주시였다.

양양된 혁명의 파도에 휩쓸려 우연히 혁명대오에 들어선 엄가놈은 김정숙어머니의 높은 정치적식견에 놀랐다. 놈은 드디어 자기의 투항주의적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날 청봉밀영에서는 김정숙어머니를 비롯한 녀대원들이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에 관한 학습토론을 하고있었다. 사상적으로 변질타락한 엄가놈은 《유식》을 뽑내며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사령관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시비하면서 자기의 투항주의적견해를 공공연히 선전했다. 정세가 어려워지면 자연히 혁명도 저조기에 들어선다는 엄가놈의 견해는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싸우는 김정숙어머니의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반박앞에 보잘것없이 부서져버렸다.

자기의 더러운 정체가 날날이 드러나게 되자 엄가놈은 김정숙어머니를 비롯한 견실한 혁명가들을 모해하기 시작했다.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서리발같은 목소리로 그놈을 준렬히 규탄하시였다. 어머니의 불같은 말씀구절구절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다.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전사다. 너는 누구냐? 너는 혁명의 원쑤다! 혁명은 네놈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너는 혁명앞에 지은 죄로 하여 처단을 면치 못할것이다!》

엄가놈의 심장을 찌르는 서리발같은 말씀, 이 말씀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해나서신 김정숙어머니의 혁명가적지조와 량심의 호소였다.

드디어 엄혹한 겨울은 지나가고 조국진군의 환희로운 새봄이 왔다.

1939년 봄, 사령관동지께서는 북대정자회의를 소집하시교 《고난의 행군》과정을 총화하시교 조국진군에 대한 방침을 선포하시였다. 뒤이어 열린 지휘관및병사대회에서는 엄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었는데 김정숙동지께서는 토론에서 엄가놈의 반혁명종파행위를 날날이 폭로하시교 주먹을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사령관동지의 뒤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사령관동지를 따라 조국진군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니께서는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옹호하여 견결하게 싸우시였고 어떤 역경에 처하여서도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여 견결히 싸우시였다.

우리는 사적관에 전시된 사진자료들과 그림들을 통하여 새 군복을 단정히 입으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어머니의 모습을 감회깊게 우러러보았다.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신 모습! 그것은 사령관동지를 몸가까이 모신 주체형의 혁명전사, 티없이 맑은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모습이였다.

동지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친누이의 정성으로 대하시교 원쑤에게는 화염같은 증오로 대하신 김정숙어머니,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가장 열렬한 사랑과 가장 랭혹한 증오가 간직되어있었다.

사적관에는 김정숙어머니께서 사령관동지의 해발이 되시여 장백현 도천리에서 지하공작을 벌리신 력사에 길이 빛날 감동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뜨겁게 하는 김정숙어머니의 혁명활동력사가 너무도 생생히 펼쳐진다.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신 김정숙어머니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민주조선건설로

선을 받들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사적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위대한 혁명가적풍모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해방의 크나큰 감격을 안으시고 조국땅에 개선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존경하여마지않던 인민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속에 어머니를 맞이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항일전의 장구한 나날 쌓이고쌓인 피로를 푸실 사이 없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분과 초를 아껴가시며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시던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고 뜨거운 눈물속에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을 금지높이 회고하게 하는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너무도 젊으신 나이에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였다.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을 합친들 어찌 이보다 클수 있으랴!

해와 더불어 우리 인민은 그날의 슬픔을 잊지 않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김정숙어머님의 위대한 업적을 대를 이어가며 노래하고 노래한다.

참관을 마치고 사적관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의 신념이 굳어진다, 김정숙어머님처럼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받들어모시리라는 억척같은 신념이...

수필

영원한 글발

세월은 흘러 산천은 변하고 한때 젊은 나를 흥분시켰던 수많은 일들도 점차 기억속에서 사라지고있다. 그렇지만 내가 청봉속영지를 답사하면서 받았던 깊은 감동은 오늘도 여전히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언제나 나의 앞을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영원한 불빛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였을뿐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습니다.**》

얼마전에 나는 혁명전적지 청봉밀영을 답사하는 영광을 지니였었다.

청봉!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푸르려 설레이는 혁명의 성지-나의 마음은 지금도 청봉으로 달려가고있다.

1939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교 조국으로 진군하시였다.

5호물동을 거쳐 아름드리나무들이 하늘을 치받고

뻘뻘이 솟은 천고의 밀림속을 행군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는 조국땅 청봉에서 첫 숙영을 하게 되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마이한 청봉밀림은 기쁨에 설레였다. 그림던 조국땅에서 첫날밤을 숙영하는 투사들의 마음도 밀림처럼 설레였다.

나의 앞에는 그날의 정경이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너무도 생동하게 펼쳐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고 일편단심 충성의 한길에서 살며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

김응하

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뜻이 깃들어있어 청봉밀영은 더욱더 빛나는곳이리라!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간고한 싸움길을 헤쳐오시며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조국, 꿈결에도 그리시던 조국땅에 들어서시였으니 김정숙동지의 기쁨이 어떠했으랴.

암록강기슭의 바위틈에 피어난 진달래속에 얼굴을 묻으시며 《조국의 진달래! ...비바람도 이겨내고 눈보라도 이겨내고 끝끝내 피어났군요!》라고 속삭이실 때 김정숙동지의 마음속에도 해방의 봄꽃이 피어나고있었으리라!

연분홍진달래를 한아름 안으시고 흰구름우로 우람차게 솟아있는 조국의 산발들을 바라보시며 끝없는 감격에 휩싸이시였을 김정숙동지의 행복 한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

조국! 그것은 그림고 그리운 어머니의 품이였기에 강바닥에 깔린 한알의 조약돌도 한줌의 흙도 투사들에게는 그토록 소중한것이였다. 강물속에서 조약돌을 주어내며 배낭에 넣는 투사들, 흙을 움켜쥐고 오래오래 취한듯이 냄새를 들이키는 투사들-그것은 정녕 애국의 뜨거운 심장들이 조국땅위에 아로새긴 불멸의 화폭이 아니라.

하기에 나에게에는 청봉의 한그루 나무, 한포기의 풀, 이끼돋은 평범한 바위마저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가만히 귀기울이면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신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칼바람 추운 겨울 물러갈 때에
꽃피여줄 붉은 바람 일어났도다
.....

감격에 겨워 부르시는 노래소리에 청봉의 초목들도 바위들도 즐거이 화답했으리라.

그리고 나의 눈앞에 또 삼삼히 밝혀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진달래꽃 피는 5월 밀림의 밤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조국이 해방된 그날 전설적인 영웅이신 장군님 모시고 찾아갈 아름다운 만경대며 물맑은 대동강을 그려보시는 김정숙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저 밀림속 수정같은 물이 솟구치는 샘터에 가면 조국의 산나물을 정가로운 물에 씻고 씻었을 터없이 맑고 깨끗한 그 마음이 보이리라!

나는 청봉의 아름답리나무들에 쓴 구호앞에서 오래동안 움직일수 없었다.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체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김정숙동지께서 나무뿌질을 벗기시고 먹글씨로 한자한자 정성을 담아 쓰신 혁명구호였다.

오랜 세월 비바람, 눈보라에 씻겼으나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또렷이 남아있어 볼수록 심장을 뚫게하고 투지와 용맹을 주는 글발이다.

그리운 조국땅에 들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래동안 가슴깊이 간직한 뜨거운 정과 나누고싶은 그 많은 말씀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이 글을 쓰시었으리라. 그것은 김정숙동지께서 또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들에게 보내신 첫 인사였으리라.

정녕 이 글발들에는 김정숙동지께서 한평생 가슴깊이 고이 간직하시었던 백옥같이 맑고 산악같이 드팀이 없고 샘물같이 다함이 없는 충성의 마음이 고스란히 비껴있었다.

구호목앞에 서있으라니 나에게는 사령관동지의 해발이 되시여 조국인민들을 깨우쳐주시며 사랑의 은정을 베푸시던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이 우렁이 안겨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청봉을 떠나 배개봉으로, 삼지연으로 자리를 옮기었고 삼지연을 떠나 일제놈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는다고 여러해를 두고 닦아놓은 《갑무정비도로》를 대낮에 행군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대홍단벌 국사당부근에 도착하시여 신사동과 신개척일대의 적을 소멸하고 인민들에게 정치선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대들을 신사동과 신개척 두 방향으로 진출시키시었다.

김정숙동지는 한 너대원과 함께 신사동 목재소

로동자의 자그마한 귀틀집을 찾으시었다. 일제놈들의 총칼밑에서 공포에 질려 살던 이집 사람들은 총을 멘 군대들을 보자 놀라서 말도 못하였다.

초라한 귀틀집, 너덜거리는 토스레웃, 앙상한 얼굴들-이것이 겨레의 모습이었고 조국의 참경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향집의 정경을 보시는것만 같아 가슴이 쓰리고 아프시었다.

《우리는 가난한 조선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아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국의 겨레에게 보내시는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인사였다.

김정숙동지의 소박하고 겸손하신 품성으로 하여 로인의 굳어졌던 마음은 한순간에 풀어졌다.

어린 딸의 터진 손등에 크림을 발라주시는 김정숙동지의 인자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로인은 눈곱을 적시며 감격에 넘쳐 말했다.

《구름속에서 태양이 솟아나면 세월이 든다는 말을 믿구 살아왔수다. 우리 조선두 그저 죽어서만 살수야 없지 않소... 내 평생에 이런 기쁜 날은 처음이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을 조국의 현실에서 또다시 직접 목격하시고 로인에게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었다.

《아님! 저희들은 아버님의 그 말씀을 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겠습니다. 아버님!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한 우리 조국은 반드시 해방됩니다. 험벗고 굶주리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같이 잘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꼭 옵니다. 그날을 믿고 굳세게 싸워주세요!》

이것이 어찌 한 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으랴.

그것은 조국인민들에게 하신 김정숙동지의 신념에 찬 말씀이었고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부르시는 절절한 호소였다.

구호목에 새겨진 글발들을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나의 눈앞에 밝은 미소를 지으신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삼삼히 안겨온다.

혁명의 한길에서 겪어온 풍파와 간난신고는 그 얼마며 당하신 슬픔 또한 그 얼마이랴-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숭고한 추억속에 더듬는 나의 마음은 한껏 뜨거워졌다.

나는 청봉밀영이 쨍쨍 울리게 저 혁명구호들을 웨치고싶다. 아니 온 세상이 다 듣도록 저 영원한 글발을 소리쳐 웨치고싶다.

망양나루에서

김송남

멀어지는 오산덕

정든 고향집

아득히 남기고 가시던

그 작은 발자국소리...

노대 삐걱이며

물결이 흔들리던 쪽배 하나

어리실적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느 먼 기슭으로 떠나갔던가

장군님 따르신 혁명의 길

살바위고개 넘어

오랑캐령도 넘어

에서 천만리로 뻗어갔어도

가시는 길 자욱마다 못잊으신

회령땅,

망양나루 물결아

두만강 푸른 흐름아

너도 내 마음을 담아

오늘도 못견디게 설레이는것이나

백두의 밀림속

밤과 낮 싸움으로 이어가시던 날

꿈결에도 사령부천막가에 피워보시던

떨기떨기 하얀 백살구꽃

고향 더기에 구름처럼 피고,

풀뿌리 끓이시며

장군님께 올릴 아침끼니를 걱정하실 때

한줌의 쌀이 그리도 간절하시던

그 마음을 그려

조국의 들은 금나락에 넘치는데

해방의 싸움에 한몸 바치시고

고향길도 뒤로 미루시며

해방의 즐거움마저 다 기울이시여

오직 장군님만을 위하신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의 그 모습

언제나 못잊는 이 마음속에서

정녕 떠나실수 있으랴

나루가에 서니

우러러 못잊는 내 마음속에

더욱 사무치는 이 그리움...

두만강아, 망양나루야

그날에 흘러간

물결이야 다시 올수 있으랴만

어머님께선 오늘도 우리에게로 오시여라

수령님의 영원한 해발이 되시여

내 마음 비쳐주시며, 어루만져주시며...

세상에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김영근

세상에 이 딸들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나라 녀성들의 설음을 다 안으시고
어머님 백두산을 우러러
혁명의 큰걸음 내디디신 그날은

세상에 이 딸들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몽당치마 눈물로 다 삭이던
녀성들의 얼굴에 웃음을 피워주시려
어머님
혈전만리 헤쳐오신 준엄한 그 나날은

자옥마다 다함없는 충성을 고이시며
해방의 봄 안아오신 이 강산에
녀성들 우리 모두 꽃으로 피였던건만
아, 오늘도
백두의 행군길에 서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이어

부모형제 다 잃으신 아픈 마음 안으시고
눈물속에 헤매시던 설음의 바다 넘어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어머님 그 어느 하루도
따뜻한 아래목에 앉아보신적 있었습니까

은혜로운 장군님의 해발이 되시여
도천리로 옮기시던 그날의 그 걸음,
한마음 태양을 받들어오신
어머님의 그 자옥자옥 새겨안으며
뜨거움에 젖는 이 마음-

아, 설한퐁에 밀림이 우는 밤
꺼질줄 모르는 사령부의 불빛을 지키시며
행군길에 젖은 장군님의 행전을
품에 안아 말리우시던 어머님
그 품에서 녹던 백두의 눈이
오늘은 이 가슴에 녹아내리고

혈전의 그 언덕

한모모 그대로 성벽이 되시여
장군님의 신변을 보위하시고
어머님 흘리시던 그 맑고 깨끗한 눈물이
우리의 두볼에 흘러내립니다

해방의 봄언덕에
우리 안겨자란
첫탁아소 요람의 창문도 열어주시고
헐벗었던 삼천리에 꽃비단 늘어주실
방직공장구내길도 봄소 걸으시며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가신 어머님

한시도 못잊으시던
고향의 오산덕
해방의 기쁨속에 어머님을 기다렸건만
한순간도 전사의 자리 비울수 없으시여
마음속 깊이 묻으시던 북행렬차의 기적소리
세월을 넘어 오늘도 이 가슴에 울려옵니다

아,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이 나라 딸들의 한마음속에
언제나 빛나는 모습으로
높이높이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

세상에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먼저 열어가셨습니다.
이 나라 딸들이 걸어갈 참된 삶의 길-
그 길에서 꽃으로 붉게 피라고
영원한 봄을 안겨주셨습니다.

아, 어머님 안겨주신 그 봄빛속에
눈비의 차디참을 모르고 사는
이 나라 녀성들
천만송이 꽃송이로 피여납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모시며...
영광스러운 당을 우러러 따르며...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교활성에 대한 준렬한 단죄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를 보고-

윤종성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사람들에게 주는 인식교양적의의는 참으로 크다. 이 영화는 관중들에게 단순히 예술작품으로서의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것이 아니라 역사적사실을 직접현실적으로 체험하는것과 같은 지울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세찬 정신적충격을 준다.

그러한 인상과 충격은 황포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의 강도적수법과 교활성을 보여준 장면에서도 강하게 받는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거기에서 이등박문이 원흉이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를 통해서 그 어떤 역사책에서보다도 더 실감있고 생동하게 일제의 조선침략사, 조선의 망국사를 표상할수 있게 된다.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이처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이처럼 커다란 인식교양적영향을 미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원작인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의 완벽한 사상예술성에 있으며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역사물취급에 철저히 구현하여 원작의 심오한 사상예술성을 남김없이 부감함으로써 이 영화를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한데 있다.

이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데서 주인공 안중근의 형상과 함께 이등박문의 형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제의 피수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썬으로서의 이등박문의 형상은 무엇보다도 역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고있는 진실한 형상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생동한 형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에서 이등

박문의 형상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썬으로서 이처럼 진실하게 느껴지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의 본성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있는 가장 야수적이고 가장 교활한 인간으로 묘사된데 있다.

사실주의예술에서 성격의 진실성은 환경의 진실성으로 안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역사적인물의 성격의 전형성, 진실성은 그가 놓였던 사회력사적환경의 진실한 묘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등박문은 결코 우연한 존재일수 없고 그것은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가던 근대일본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침략과 략탈만이 생존과 팽창을 가능하게 한 바로 그 근대일본사회의 생리적요구를 자체에 체현한 인물인것이다. 이등박문의 성격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환경속에서만 그 본질을 진실하게 밝힐수 있었다.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침습에서 충격을 받아 19세기중엽에 《명치유신》을 하고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군사봉건적일본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가장 야수적이고 침략적인 자본주의로 등장하였으며 대륙제패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일찌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던것이다.

일본의 실권을 장악한 신흥부르조아출신의 한 사람인 이등박문은 이미 19세기말에 일제의 피수로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대륙침략의 주추들은 그에 의하여 하나하나 깔려졌다.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은 략탈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대륙침략의 교두보로서 반드시 필요하였던 침략의 첫째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던 일제는 갑오농민전쟁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조선에 출병하였으며 그길로 내쳐 완전히 병탄해버리는데까지 이르렀던것이다.

조선출병,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배후조작가가 다름아닌 바로 이등박문이었으며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치는 기간에 일제의 침략정책작성과 그 수행에서 그 요긴한 모퉁이마다에 이등박문의 더러운 손이 뽐간을 부리지 않은것이 없었다.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참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필요성과 실현에서의 수단과 방법을 이등박문이처럼 력설하고 음흉하게 설계한자는 없었다.

혁명영화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이등박문이 조선궁실에 박아넣은 간첩 배정자는 이미 1890년부터 그가 직접 양딸처럼 길러낸 년이다. 이것은 이등박문의 조선침략계획이 하루이틀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뿌리깊은것이라는것을 말하여주는 동시에 그놈이 바로 조선침략의 주모자라는것을 증명하여주는것이다.

이등박문은 조선침략을 다만 구상하고 설계한데 그친것이 아니라 그 구상을 직접 집행한자이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한 다음 가장 어렵고 요긴한 대목에 직접 나타나 계획을 강행한 침략의 피수이며 장본인인것이다.

그는 장차 조선을 완전히 삼켜버릴 검은 배수를 가지고 그 침략계획을 몇단계에 나누어 실현하였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들은 바로 영화에서 본바와 같이 처음에는 외교권을 박탈하고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을 말살하는것이였으며 다음에는 채무노예로 만들어 경제적자립성을 파괴하며 마침내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내정을 장악함으로써 군사적자위권과 경찰권마저 박탈하는것이였다.

이등박문은 이러한 침략계획을 두개의 조약 즉 《을사보호조약》과 《정미 7 조약》, 그리고 하나의 비밀협약과 1,000 만원 차관이라는 형식으로 강요하였는데 그가 조선에 두차례의 더러운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것은 바로 이 침략계획집행의 요진통들과 관련되어있었다.

이등박문은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매국조약은 그가 아니고서는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며 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군대를 해산하는것도 역시 그가 아니고서는 해낼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에 《특사》와 《통감》의 감투를 쓰고 기여들었던것이며 그러한 난문제들을 처리한 다음에는 다 먹여놓은것으로 인정하고 제 소굴로 돌아갔던것이다.

영화에 묘사된 이등박문의 행적들은 다 력사적 사실에 기초한것이며 움직일수 없는 진실인것이다. 그러므로 이등박문은 문자 그대로 일제의 피수이며 조선침략의 원흉이다.

그러나 이 모든 침략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이등박문이 수행한 역할은 결코 그의 개인적인 욕망

의 결과로 설명될수는 없는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욕망을 대변하고 실현한것으로 설명될 때만이 정당할수 있다.

그러므로 력사적인물로서의 이등박문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를 일본제국주의자들가운데서 그 어떤 배외적인 특수한 인물로 그릴것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본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성격으로 그리는것이다.

생활론리의 타당성이 없는 성격발전은 진실감을 줄수 없으며 전제가 없는 결론은 독단을 면할수 없다. 이등박문의 형상의 진실성과 전형성은 충분히 깔려있는 력사적전제들과 생활론리의 타당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영화는 이등박문의 형상창조에서 그의 성격이 형성될수 있었고 또 그가 등장하지 않을수 없었던 사회력사적전제를 조선력사와 일본력사에서뿐만아니라 국제적규모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보였다.

이등박문의 형상의 진실성은 사회력사적배경의 진실한 묘사에 의해서뿐만아니라 그의 성격의 본질을 이루고있는 야수성과 교활성의 예리한 해부에 의하여 밑받침되고있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야수적이고 교활한 인간으로 되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활은 야수성과 교활성으로 일관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등박문은 본질에 있어서 탐욕적인 략탈자, 횡포무도한 침략자이며 잔인한 살인자인것이다. 그는 우리 나라를 삼키고 아시아대륙을 정복할 음흉한 야망을 품고있었으며 이 침략목적을 실현하는데서 항거하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행동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그의 횡포무도한 야수성은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는 장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외국의 사신이라는자가 남의 나라 궁문앞에서 무엄하게도 수문장을 죽이고 왕궁에 뛰어들어 황제를 릉멸하고 대신들을 협박하며 국권을 무시하고 옥새를 강탈하여 매국조약에 도장을 찍게 하는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은 침략자들의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에 치를 떨지 않을수 없으며 리조통치배들의 부패무능성과 매국배족행위에 치욕을 금할수 없다. 그것은 격분과 통탄의 도를 넘어기가 막히고 어안이 빙빙하게 한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이 천하에 죽일놈!》-이등박문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격정을 이 장면을 보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금할수가 없

다. 일제침략자의 원흉인 이등박문은 광활한 중국대륙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홀린 우리 일본남아들의 피가 그냥 스며있겠나, 다 열매를 맺을 때가 오지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침략적야망이 얼마나 크고 음흉하며 잔인한가 하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러나 이등박문은 자기의 야수적본성을 감추고 언제나 《선량한 인간》, 《애국애족》, 《평화와 친선》, 《우호와 협조》를 갈망하는 정의의 인간으로 나타나려고 애쓰고있다. 그는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는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면서도 그것을 꺼리낌없이 부모없는 고아와 같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사심없는 동정과 보호로 묘사하였으며 이미 조선을 가로타고 앉은 《통감》이 된 그가 이 나라에 채무노예의 올라미를 들썩우면서도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제구실을 하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떠벌린다.

이등박문은 조선을 먹기 위하여 간첩을 양성하고 퇴물과 매수, 리간을 일삼을뿐만아니라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회유하고 기만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야수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위협하고 공갈하며 나아가서는 서슴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음흉하고 로회한 침략의 피수이다.

남의 나라 정부회의에 주인처럼 틀고앉아 좌지우지하면서 횡포무도하게도 참정대신을 강제로 끌어내리게 하고 대국조약을 강박하는 이등박문의 거동은 그자신이 말한것처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부터든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서는 《그저 돌아갈》 인간이 아니라는것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외무대신 박제순을 내려다보면서 내각을 대표해서 외무대신이 조인을 하십시오, 영광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등박문의 말은 여우와 같이 간사한데 박제순을 노려보는 그의 눈초리는 살기를 띠고있다. 이 장면은 그의 야수적이고 교활한 성격의 본질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성공적인 세부이다.

이와 같이 영화에서는 이등박문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심오하고도 예리하게 해부함으로써 제국주의침략자, 략탈자의 전형적인 성격을 놀랄만큼 생동하게 부각하였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본 관중들이 이등박문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적본성을

다방면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도록 그를 전형화한데 이 형상이 성공한 비결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이등박문의 형상이 생동하고 진실한 성격으로 창조될수 있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그의 개성적특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특징지은데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을 잘 그리는데는 결국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혀주고있으며 작가들은 어떤 생활을 그리든지 인물들의 성격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전형성이 구체적인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나타날 때 거기에는 일반성과 함께 개성적특성도 표현되기 마련이다.

이등박문의 성격의 전형성으로서의 야수성과 교활성은 모든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공통적인 일반성을 띠고있는 동시에 이등박문에게만 고유한 야수성과 교활성의 개성적인 특성도 띠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인물성격의 개성적특성을 밝히는 바로 여기에 심오한 창작적탐구가 필요한것이며 그러한 탐구의 결과에 얻어진 개성적특성이 전형성과 결합될 때 생동한 예술적형상이 창조될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철학적의의가 있는 인간성격을 안겨줄수 있는것이다.

인간개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현될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무질서하고 우연적인 현상일수 없으며 그 모든 현상들의 바탕에 흐르고있는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규제되는 합법칙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인간개성의 특성을 탐구하는데 있어서는 개성이 표현되는 개별적현상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놓인 본질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며 그로부터 다시 개성이 표현되는 구체적인 생활현상, 가치있는 세부를 포착하여야 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영화에서 탐구된 이등박문의 개성적특성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가르쳐주는 심오한 철학적뜻이 있는것이다.

영화에서 보여준 이등박문의 개성적특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독선적이고도 자고자대적인 교만성과 자만성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이등박문은 자기의 정치적식견이 가장 높고 그만이 일제의 팽창계획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과 수완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일제의 야망도 바로 그자신의 발기음을 교

만하게 드러내놓고있다. 그는 일제의 한다하는 침략의 우두머리들에 대해서도 하치않게 보며 《내가 아니고서는 큰일은 제끼지 못한다》하는 의식이 그의 모든 사고와 활동을 지배하고있다. 그는 심지어 아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수 있고 세계를 좌지우지할수 있다고 망상하고있다.

그의 야수성과 교활성은 그의 이러한 자만성, 교만성과 결합되어 그로 하여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식으로 행동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한 그의 본심을 여유있는 유연성의 외피로 가리우게도 한다.

그가 신경질을 부리는 하세가와를 향하여 하세가와대장! 도요도미히데요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7년간이나 싸우다 실패하구 돌아간게 꼭 300 년전이요. 300 년이나 버르어오던 일을 오늘 성취하는데 파히 조급해마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끝수에 박혀있는 침략적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동시에 하세가와를 어린아이취급하는 그의 교만한 태도를 충분히 나타내고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이 말은 그의 다음 행동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하세가와보다 사실은 더 초조한 자기의 내심을 감추는 교활한 위장물이기도 하다.

가쓰라와의 대화장면은 그의 자만성과 교만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매우 인상적인 화폭의 하나이다.

그는 총리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는데 여기에는 그의 높은 직위와 일제에게 고유한 관료풍을 초월하는 그의 개성적교만성이 더 작용하고있다.

조선은 자기가 이미 다 먹어놓은건데 왜들 자꾸 이리 조급해하는가라고 하는 말이나 《동아의 맹주》가 되는 일에 초석을 놓는 로씨야와의 협상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는 이등박문의 언행은 총리따위도 우습게 보며 《내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못한다》는 그의 독선적인 자만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있다.

가쓰라와의 대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등박문은 개인자격이든 무슨 자격이든 이등박문이야 이등박문이겠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의 머리속에 일제정부나 천황보다도 다름아닌 그자신이 중요하며 이등박문 그 개인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보는 관념이 지배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등박문의 자고자대적인 망상은 하르빈으로 가는 기차속에서 절정에 이르고있다. 그가 아침

하는 부하들속에 앉아서 흐뭇한 기분으로 하긴 이번 일까지 끝내면 내가 대일본을 위해서 할일은 다했다구 해두 과언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그 이등박문이 있기때문에 일본제국주의의 오늘과 래일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화에 묘사된 이등박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그의 침략구상이 그 심도와 규모에 있어서, 그 음흉성과 교활성에 있어서 그의 동료들과는 격이 다르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심리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일본제국주의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의식이 작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등박문의 교만성과 자만성은 그의 개성적특성의 한측면이며 그것과 표리를 이루고있는 다른 한 측면은 투기적모험주의이다.

이등박문은 제국주의열강들과의 쟁탈전에서 이기려는 후진자본주의국가인 일제의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침략정책의 작성자, 집행자일뿐만아니라 돈과 권력과 처세술만을 믿는 신흥부르쵸아 출신이라는 계급적바탕으로 해서 투기적모험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가지지 않을수 없다.

영화에서는 이등박문의 이러한 성격적특성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의 교만성과 자만성이 항상 그의 투기적인 모험성과 안팎을 이루면서 나타나는것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이등박문의 투기적모험성은 때로는 호통을 치고 위협을 하는 고자세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혹은 불안과 초조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등박문의 이러한 개성적특성은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갈피마다에 떼낼수 없는 하나의 요소로 침투되어 있으며 극히 자연스럽게 표현되고있다.

모험은 불안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등박문은 겉으로는 점잖은체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포악하며, 평온한체하지만 내심으로는 항상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있다.

이등박문의 이러한 내면세계, 그의 개성적특성은 영화의 결말에 가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등박문이 하르빈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가 벌려온 침략정책의 열매를 거둘 그날을 자기당대에 보았으면 하는 갈망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언제나 욕망과 불안의 모순속에서 시달려왔다는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것이다.

안중근의 탄환을 받은 이등박문이 부지불식간에 《아, 야라테따!》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것

은 그가 항상 공포와 불안속에서 피하기를 바라던 바로 《그것이 끝내 오고야 말았구나!》하는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닐수 없다.

영화에서는 이등박문의 이 비명을 일본말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이등박문의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있어서나 또는 불의의 타격을 받은 사람의 심리적특성을 진실하게 표현한데서나 깊이 탐구된 성공적인 세부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사상에 술성을 담보하는데서 이등박문의 형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또하나의 요인은 주인공 안중근의 상대인물로서의 그의 품격을 옹계 처리한데 있다.

주체적문제이론을 생동한 상대인물이 없는 인물은 결코 자기의 정신도덕적품모를 원만하게 드러내보일수 없다고 가르친다.

주인공 안중근의 형상을 어떤 높이에서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작품의 종자, 사상주제적 과제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안중근의 형상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그의 투쟁대상 즉 상대인물인 이등박문의 형상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이등박문이가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행동에서 졸렬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묘사된다면 그자체가 역사적사실에 맞지 않게 될뿐아니라 주인공의 형상을 왜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등박문의 형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음흉한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싸우고 마침내 그자체를 처단하게 되는 주인공 안중근의 형상을 비상이 높일수 있다는것을 예술적형상창조에 작용하는 법칙적인 논리인것이다.

영화에서 이등박문은 직위상으로만 높은 자리에 있는자인것이 아니라 일제침략자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첫째가는 거물이며 그 간교한 책량과 정치적수완에 있어서 그를 따를자가 없는 일제의 제 1 인자로 등장한다.

이등박문의 조선침략구상은 원대하며 그 준비작업은 매우 치밀한것이다. 그는 조선을 삼키는 데서 무엇보다 어떤 순서로 착수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어떤 세력들을 제어해야 되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장 예리하

게 꿰뚫어보고 집행한자였으며 외형적존대와 문화성까지도 능숙하게 리용할줄 아는 가장 로회한 자이다.

이등박문은 결코 가볍지 않게 《무게있는》인간으로, 일관한 침략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정세에 따라 림기응변할줄 아는 《세련된》인간으로 묘사되어있다.

그는 간첩을 기르고 부려먹어도 그 어떤 하급 정탐군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을 가진자의 격에 어울리게 다루며 조선의 매국노들을 서로 리간시키고 퇴물을 먹이며 차관의 올라미를 씌우고 《국채보상운동》을 파탄시키는 등과 같은 술책들도 그의 외적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처리하는것이다.

영화에 묘사된 이등박문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중요한 인상의 하나는 이 인간은 결코 경시할수 없는 흉물이며 그가 추구하는 침략정책은 간단하게 파탄시킬수 없는것이며 그 인간자체를 상대해서 싸운다는것은 조런치 않은 투쟁이라는것이다.

이와 같이 격이 높여진 이등박문의 형상은 그를 사살한 주인공 안중근의 형상을 비상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주었다.

보는바와 같이 이 영화에서 이등박문의 형상은 상대인물의 형사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생동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침략자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완벽하게 전형화한 이등박문의 형상은 조국의 절반땅을 미제가 강점하고있는 재생한 일본군국주의가 이미 재침의 마수를 남조선에 뻗치고있는 오늘의 정세에서 참으로 커다란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영화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다 같은것이며 그들은 언제나 한통속인것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위대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반미 반일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철저히 타도하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적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백경을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된 우리 소설문학에서는 최근 장중편소설창작에서의 전례없는 풍작의 열매와 함께 전투적인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어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게 장식하고있다.

우리 단편소설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민감하게 반영하여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제때에 예술적해답을 주면서 그 예술적형상수준에서도 상당한 전진을 보이고있다.

이것은 우리 독자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있다.

그러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과 날을 따라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사상미학적 요구는 우리 단편소설의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이러한 건지에서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앞으로 단편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질을 더한층 높이기 위하여 더 깊은 관심과 창조적 열정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1

우리 혁명문학은 참다운 주체형의 인간,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여 그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과 새생활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라고 밝히였다.

오늘 우리 단편소설이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새시대의 인간전형, 주체형의 새로운 인간성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탐구하고 예술적으로 빛나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단편소설은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자기의 형태

적특성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현실과 함께 그 속에서 발현되는 시대적인 인간성격의 새로운 특질들을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고 다양하게 예술화할수 있는 가능성을 그 어느 문학형태보다도 많이 가지고있다.

시대의 앞장에 서나가면서 언제나 비반복적인 시대적전형들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창조함으로써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구현하는 여기에 우리 단편소설이 생활의 선도자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단편소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민감하게 예술적으로 구현한다는 문제도 결국은 그것을 받아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 우리의 영웅적현실이 낭고있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에서 본질적특징으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생활신념으로 되어있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은 투쟁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있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력사적전변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생활적으로 더욱 깊이있게, 독창적으로 탐구파악하여 새형의 인간, 주체형의 인간성격의 새로운 본모기를 다양하게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단편소설문학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최근 우리 단편소설들은 이 절실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최근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인 《영원한 흐름》(로종익), 《떠나는 사람》(백현우), 《가고싶은곳》(오창수), 《발걸음》(백호흡)등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놓고서도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말할수 있다.

이 단편들은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의 요구대로 변모되어가는 벽찬 우리 현실의 각이한 단면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새로운 종자, 새로운 인간성격에 대한 독창적인 발견과 예술적구현으로써 우리 시대의 본질적특성과 새로운 인간

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깊이 심려하고계시는 전력공업부문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한 지도일군의 자랑스럽고 미더운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지배인 립성백의 성격을 특징짓는 근본특질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아버지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철석같은 신념이며 이 확고한 신념에 어긋나는 그 어떤것에 대하여서도 추호의 타협을 모르는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이다.

작품은 정당하게도 이러한 신념과 원칙성문제를 일반적으로 제기한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탐구설정한 예리한 생활국면들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밝혀주고있다.

즉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적특질들은 일주일동안이나 전기를 꺼야 해결할수 있다는 어려운 공사를 단 한시간도 끄지 않고 불과 하루동안에 완공할수 있는 대담한 방법으로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기술신비주의와 후에 돌아오게될 책임문제를 운운하면서 소극성과 일신의 안전에만 사로잡혀있는 박준호과장과의 심각한 사상투쟁속에서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해명되고있는것이다.

지배인 립성백이 기술이 높고 실무에 유능하기로 이름난 박준호과장의 창안설계를 두고 못마땅히 생각하며 지어 분격을 느끼기까지 하는것은 그가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로동안전대책이 중요하다는것을 몰라서가 아니였다. 오히려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다.

그것은 바로 그 창안설계가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기체가 되고 옷이 되고 쌀이 되게 하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전기를 단 한순간도 끝수 없다는 자신의 확고한 생활원칙에 어긋나는것이였기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정이 넘은 깊은 밤중으로 지체없이 수백리 떨어진 공사현장을 단숨에 달려가 박준호가 모험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이미 부결해버린 근로자들의 발기에 대중의 열의와 자신의 지혜를 합쳐 드디어 고압전류가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철탑을 통채로 들어올릴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찾아내고 아직 전력공업력사가 알지 못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공사를 밀고나가 마침내 아버지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게 되는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수령

님께 기쁨을 드릴 충성의 일념으로 견결한 원칙성과 혁명가적사업기풍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는 지배인의 모습을 생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공사의 마감단계에 가서 무서운 사고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질겁하여 당장 전기를 끄려고 하는 박준호를 준렬히 꾸짖어 제지시키고 자신의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공사의 위험을 막아나서는 주인공의 숭엄한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성과 이신작칙의 모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이와 함께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나 높은 실무도 그것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할 때라야 참다운 가치를 가질수 있다는것을 박준호과장의 형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이렇듯 지배인 립성백의 형상은 이제 며칠후이면 예순ढ생일을 맞이할 나이이지만 결코 로세대로서가 아니라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계속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기상으로 나래치는 새형의 인간으로, 언제나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도 오직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만 관철해나가는 우리 시대 지도일군의 참다운 전형으로 가슴뿌듯이 안겨오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일군들이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생동한 예술적해답을 준 여기에 단편소설 《영원한 흐름》의 사상에술적성과의 하나가있으며 당의 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구현한 모범이 있는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창조에서 본질적요구로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철석같은 신념에서 흘러나오는것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주체형의 인간성격이 그만큼 진실하게 그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사상정서적충격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된다.

지배인 립성백의 형상이 것처럼 깊은 공감을 가지고 독자들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것도 작품이 성격의 단순한 외형적모습이 아니라 주체형의 인간들의 심장속깊이 뿌리내린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덕성과의 련관속에서 개성적으로 훌륭히 구현한데 있다.

(과장동무,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이 품속에서 새로 태어나 그이의 사랑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세대들이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게 하시려고 애쓰고계시겠는데 우리가 그이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전기까지 꺼서 심려를 끼쳐드린다면...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지는것 같소...어떻게 하나 전기는 끄지 말아야겠소.)

심장속깊이에 언제나 이렇듯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굽이치고있기에 충성의 한길에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다바쳐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그의 숭고한 모습과 기상이 더없이 진실하고 감명깊게 안겨오는것이다.

이것은 주체형의 새인간들의 전형창조에서 작가들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고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계기들을 보다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주인공의 성격속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확고히 심어놓고 그것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창작원칙의 하나로 견지하여야 한다.

주체형의 새인간 전형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하고 형상화하면서 최근 우리 단편소설들이 보여준 성과의 하나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높은 혁명적자각성과 주인공다운 태도로 성실하게 살며 일하는 참다운 애국자의 전형으로 새로운 시대적높이에서 훌륭히 창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공산주의적소행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러한 기특한 일들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혁명초소들을 굳건히 지켜서있기에 우리 당은 강하고 우리 조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하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이렇듯 높은 평가를 주신 숨은 영웅,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자들의 성격적특징들을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높이에서 탐구하고 전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발전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그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단편소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 《가고싶은곳》 등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자기 맡은 초소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누가 보든 말든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시

대 공산주의적 새인간, 숨은 애국자의 참신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이 시대적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 단편소설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그저 스쳐지날수도 있는 평범한 생활사실들을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깊이있게 파들어감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서만 발현될수 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떠나는 사람》의 주인공인 돌격대의 준의 진옥이의 형상은 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자기 맡은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자각성을 발휘하는 시대적전형으로 빛나게 그려졌다.

그의 주인공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자기 맡은 혁명임무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다. 그는 진료소에 앉아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거나 사람들을 찾아 공사현장에 나가는것과 같은 자기 직무에 속하는 일을 하는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나라와 인민에게 좋은 일이라면 무엇이나 가림없이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하여 남보다 더 뛰고 더 애를 쓰는 정력에 넘친 생기발란한 새형의 인간이다.

이제 공사가 끝나면 뽕뽕이 흩어져가겠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라도 할것처럼 진료소를 알뜰히 꾸리고 매 사람별로 건강관리부를 만들어놓는가하면 주위의 동산을 모두 약초동산으로 가꾸어 그것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서슴없이 새로운 일터로 떠나는 처녀.

보통이면 한두시간에도 되고 남을 사업인계를 용근 하루가 걸리고도 모자라 다음날 현지에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진행하며 다른데로 소환명령을 받고서도 떠나는 시간까지 굴안공기를 맑게 하기 위하여 술가지를 꺾어다 꽂고 스스로 편제없는 로동안전원이 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그 어떤 일이나 가림없이 뛰여드는 성실하고 책임성높은 처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밤중에 강가에서 배젓는련습을 하고 한 할머니에게 놓아주어야 할 몇대의 주사를 두고 곳은비를 맞으며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진옥의 주인공다운 태도와 정력에 넘치는 열정, 높은 책임성과 자각의 세계를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같은 세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직 이러한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지 못하였던것을 뼈아프게

늪우치는 창무의 깊은 자책속에 더욱 생동하게 부각된 진옥이의 모습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교육을 받은 새형의 인간, 오직 우리 시대에만 있을수 있는 주체형의 청년애국자의 참다운 전형이다.

단편소설 《가고싶은곳》의 주인공 장성무는 그 누구도 보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중에서도 20여년간 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조국의 귀중한 재부와 미래를 정성껏 꽃피워나가는 성실한 산림보호원이다.

그의 고향은 원래 산과는 인연이 없는 한다하는 벌방이었지만 가련한 전화의 나날 전호속에 몸소 찾아오시여 몇그루의 애솔나무때문에 조직된 작전까지 친히 고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승리후 고향으로가 아니라 이 깊은 산골로 찾아와 오늘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조국의 산을 위하여 바쳐오는것이다.

작품은 이렇듯 의의있는 계기를 형상전반에 일관하게 깔고나가면서 사상주체적과업에 맞게 설정된 단출한 인간관계(그의 이해와 어린 막내아들)와 그들사이에 벌어지는 하루동안의 평범한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숨은 애국자로서의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더러 그런 말을 하지. 젊어 한때는 무슨 일이나 무섭지를 앓았는데 나이 들면서는 무엇이나 다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진다고...그런데 참 조화요. 난 예나 지금이나 같단말이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하문 무엇이나 다 재미가 나구 성수가 나거던. 나는 여기에 내 할일이 다 없어지고 그 어디 다른데 또 그렇게 할일이 있다면 어디라고 가고싶소.》

그는 언제나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마른일, 굶은일, 일하고 쉬는 날이 따로 없이 오직 산을 더 잘 가꾸는데 바쳐가며 거기에서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의 보람은 너무도 잘 알기에 그는 자신뿐아니라 가족들까지 조국을 위한 보람찬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치도록 하는것이다.

온 산을 뒤덮은 하많은 나무들가운데서 애어린 잣나무 세그루가 비물에 씻겨내려간것을 발견하고는 미래의 조국이 가져야 할 귀중한 재부가 자신의 잘못으로 잃어졌다는 가슴아픔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가 끝내 찾아내여 제 자리에 심어놓고 야마는 그의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소행은 참으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애국적품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화폭이다.

여기에는 정말이지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은 없어도 어버이수령님과 그이를 높이 모신

주체의 우리 조국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굵어치고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마다를 그토록 후덥게 하여주는것이다.

이처럼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과 《가고싶은곳》은 그 어떤 기발한 사건이나 특이한 사실로써가 아니라 주인공들의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애국적품모를 새로운 높이에서 감동적으로 일반화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주체형의 새인간들에 의하여 우리 당 정책은 더욱 빛나게 관철되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하여간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이 단편소설들의 주인공들은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고있는데서 하나로 관통되는 형상적특징을 가지면서도 각기 문학적형상으로서의 자기의 개성적면모를 뚜렷이 가지고 생동하게 안겨오는것이다.

진옥이의 형상은 진취적이고 생기발랄하면서도 무슨 일에서나 끈지고 이악한 살림군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락천적인 정서속에서 섬세하게 그려졌다면 장성무의 형상은 높은 자각과 성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숨은 애국자의 모습으로 웅심깊게 안겨오는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연령이나 직업상특성에서 오는 외형적특징인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성격들을 각기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하고 생동하게 개성화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낳은 응당한 결과인것이다.

우리 단편소설들이 오늘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형성화하는데서 원칙적인 문제의 하나는 그들의 념원과 지향이 무엇이며 그들의 애국적소행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다. 그렇지 않고 로동에 대한 성실성이나 이러저러한 기특한 행동만을 외표으로 보여주는데 그친다면 오히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애국적품모를 왜소화할수도 있게 될것이다. 가령 어떤 청년이 자기가 하고있는 창의고안이나 연구사업에 온 정신을 팔던 나머지 집단의 규율을 번번이 어기기가 하면 데리고갔던 유치원 어린애를 폭우가 쏟아지는 인적없는 산중에 버려둔채 일터로 달려왔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애국적소행으로 안겨오겠는가.

때문에 창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소문없이 큰일을 하는 애국적인 성격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생활과 지향을 깊이있게 탐구하여야 하며 그것을 새로운 시대적높이에서 심오하면서도 진실하게 천명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단편소설들이 창조한 새형의 인간성

격에서 이체를 떠는것은 《발걸음》의 주인공 박련희의 형상이다.

10여년전에 측량에서 범한 오유를 두고 뼈아픈 가책을 느끼는 련희의 형상에는 확실히 심오한 철학적내용이 체현되어있으며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특히 오래전 처녀시절에 본의아니게 저지른 크지 않은 실수때문에 10년만에 가정부인의 몸으로 그곳을 다시 찾아와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쳐 그 후과를 가시여나가는 련희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이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은곳에 이르렀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련희의 형상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독자들에게 생활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주어 자신이 걷는 오늘의 한걸음 한걸음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문학작품은 사람들에게 교양과 교훈을 줄수 있게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원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단편소설 《발걸음》이 새로운 종자와 시대적성격탐구에서 보여준 긍정적 시사의 하나가 있다.

보는바와 같이 주체형의 새 인간들에게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성격적특질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비판복적으로 탐구해내고 그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심오하게 일반화하는것은 단편소설의 사상교양적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바로 이러한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문학과도 구별되며 비할바 없이 위력한 사상예술적감화력을 가지는것이다.

우리 단편소설문학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새시대, 새 인간의 탄생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더욱 뚜렷이 더욱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2

예술적형상수준을 높이며 작품의 흥미를 옹계 보장하는것은 단편소설문학의 교양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성만 있고 예술성이 없는 영화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수 없으며 그런것은 예술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들이 감화력이 있고 교양적가치가 큰것은 바로 거기에

높은 사상성과 함께 고상한 예술성이 있기때문입니다. 혁명적예술작품은 그것이 가지고있는 예술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물젖게 합니다.》

예술성이 없거나 형상수준이 낮은 작품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수 없으며 흥미없는 작품은 벌써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흥미문제는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면서도 소설문학인 경우에는 특별히 더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소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예술인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읽을것을 전제로 하고 창작되는 문학이기때문이다.

건전하고 고상한 흥미, 이것은 혁명적소설문학의 중요한 속성이며 예술성의 기본표징인 하나인 동시에 예술적감화력의 원천이다.

장중편소설도 물론 그렇거니와 단편소설도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되자면 그 사상적내용이 교양가치가 있고 심오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화되어 누구나 다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끌려들어가 끝까지 읽을수 있게 되여야 하며 커다란 사상정서적 충격을 받도록 되여야 한다.

작품의 흥미는 어느 특정한곳에서가 아니라 모든 형상요소들과 다 관계되는것만큼 단편소설도 흥미있게 되자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선 생활에서 가장 의의있고 절실한 새로운 문제점을 기발하게 착상하고 그것을 특색있는 형상으로 보여주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예술적 흥미는 언제나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서, 그리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이끌려들어가게 되는데서 생겨나야 한다.

단편소설이 일상생활속에서 그 어떤 의의있는 새로운 문제점을 기발하게 착상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주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독자들이 바랄것이란 아무것도 없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소설가들은 언제나 별치않은 평범한 일들에서도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수 있는 의의있는것을 기발하게 착안하고 그것을 특색있는 형상속에 구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여야 할것이다.

단편소설 《일터》(백남룡)가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과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면서 읽

히우고있는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는것이다.

작품은 크지 않은 평범한 생활의 한 단면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였으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주적인 인간애로의 성장과정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하였다.

단편소설에는 그 어떤 극적인 사건도 특이한 생활사실도 없다.

지금은 어엿한 축로공으로 자란 제철소청년(리영림)의 잊을수 없는 추억속에 펼쳐지는 꿈많은 동요시절과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던 뜻깊은 시절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면 누구에게나 다 간직되어있는 평범한 이야기이다.

우리 시대의 보통나날속에서 누구나 다 부닥칠수 있는 극히 평범한 생활의 한 단면을 훌륭히 소설화하면서 작가는 종자의 발견과 그 예술적가공에서 독창적인 얼굴을 보이고있으며 창작적사색의 각도와 폭을 넓히고 형상을 철학적으로 깊이 심화시켰다. 그리고 단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생활을 집약하고 비약시키면서 잡아친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초점이 명백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참으로 흥미있는 문학적인 이야기로 재치있게 재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은 사람들에게 결코 평범한 이야기 그대로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시대와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참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 한순간의 광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생을 말없이 아버지수령님과 주체의 우리 조국을 떠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이 안겨주면서 그들을 아름답고 승엄한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주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삶의 가치가 직업과 일터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는 심각한 문제성이 주인공과 오랜 축로공인 그의 아버지사이에 오고가는 인정선을 통하여 강조되고 예리화됨으로써 작품의 사상이 더욱 절절하게 안겨오고있는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끔 자기 일터, 자기 직업, 자기 조국에 대하여, 나아가서 자주적인 인간의 참된 삶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는것인가.

단편소설 《일터》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충격을 주고 고상한 생활세계에로 이끌어주는, 내용이 심오하고 흥미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은 일상생활속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독창적인 안목으로 기발하게 착상하고 철학적인 사색으로 형상을 심화시킨 작가의 진지한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소설의 흥미문제가 결코 요란한 사건이나 진기한 사실, 그리고 작품을 꾸리는 그 어떤 실무적인 《숨씨》와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작가가 제기한 인간문제의 심각성과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의하여 좌우된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단편소설의 형상성을 높이고 예술적흥미를 윤택게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생활묘사, 세부묘사를 잘하는것이다.

비록 종자가 좋고 의의있는 인간성격이 탐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풍부하고 생동하게 그려진 생활화폭속에 구현되지 못하면 무미건조하고 추상적인것으로 될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종자와 성격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이며 비반복적인 생활세부들로 이루어진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속에 구현될 때에야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파악되어 깊은 인상과 미학적정서적영향을 강하게 줄수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터라면 네일내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이악하게 해나가는 책임성 높고 성실한 주인공처녀의 모습이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어디 또 다른곳에서 그렇게 진료소를 꾸리고 약초밭을 가꾸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찾아하기 위하여 뛰여다닐 처녀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보게 될것이다.

처녀주인공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인상 깊고 친근하게 안겨오면서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성격적특질들이 잊혀지지 않는 회화적화폭과 인상적인 생활세부들로 부각되었기때문이다. 이처럼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잘 그려내는것은 인간성격을 생동하게 개성화하고 작품의 흥미와 감화력을 높이는 담보로 되는것이다.

생활묘사, 세부묘사를 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묘사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소설문학에서의 묘사는 예술적형상의 생명이며 기본수단이다. 묘사가 없거나 그 수준이 낮은곳에는 어차피 장식적은 서술이나 무의미한 설교만이 있게 된다.

길지 않은 단편소설이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며 무미건조하고 따분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것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사실주의적묘사수준이 낮은것과 깊이 관련되어있다.

묘사수준을 높인다고 할 때 그것은 곧 묘사의 《량》이 아니라 《질》을 높인다는것을 말하는것

이다.

예리하고도 분석적인 묘사, 하나의 세부묘사를 통하여 그 전모를 보여줄수 있는 함축적인 묘사의 밀도와 심도를 떠나서 단편소설의 형상성과 흥미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부묘사를 잘해야 한다. 생동한 예술적형상은 구체적인 생활적세부묘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며 묘사의 질적수준은 하나하나의 생활세부를 어떻게 찾아내고 묘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하나가 백을 대신할만한 특징적이며 본질적인 세부를 정확히 골라잡고 집중적으로 그리는것은 전반적인 묘사의 질적수준을 강화하고 소설적인 형상성과 흥미를 보장하는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

단편소설 《가고싶은곳》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좋은 경험을 준다. 산림보호원인 주인공이 세그루의 어린 잣나무때문에 수종배치도의 수자를 두번씩이나 고치는 세부만이라도 보기로 하자.

작품에는 이 세부가 두번 나오는데 첫번째는 주인공이 비물에 씻겨내려간 세그루의 어린 잣나무를 찾다못하여 할수없이 수종배치도의 잣나무수자 150그루를 147그루로 고쳐놓고 돌아가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것을 못내 후회하며 몹시 가슴아파한다.

두번째는 생각다못하여 가족들까지 데리고 산판으로 되돌아온 주인공이 끝내 그 잣나무를 찾아내어 제자리에 심어놓고 수종배치도의 수자 147그루를 다시 150그루로 고쳐놓는다. 그리고는 두번씩이나 고치느라 고열록진 잣나무수자에서 일시나마 자기의 량심에도 그렇게 열록이 진것을 발견하고 깊은 자책에 잠기는것이다.

이 작품에 다른 이야기가 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묘사만을 가지고도 주인공의 사람됨과 작품이 말하려는 문제성을 능히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특징적이며 본질적인 세부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인간성격을 개성적으로 특징짓고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잘 보여준 실례로 된다. 이처럼 뜻이 깊고 생동한 생활세부들로 꾸려진 소설을 대할 때 독자들은 그것을 《읽는》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사색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을 《보게》되는것이며 작품

의 생활세계에 저도모르는 사이에 끌려들어가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있는 생활세부의 탐구와 그의 진실한 묘사는 어디까지나 작가의 창조적사색의 산물이다. 따라서 작가들이 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과 탐구적사색을 기울이는 그만큼 우리 단편소설들은 형상성이 높고 흥미가 있는 작품으로 될것이다.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는 또한 작가들이 단편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는 조건에서 새로운 예술적경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시도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간관계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설정하고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풀어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 단편소설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가령 사회주의현실을 취급한 단편소설들에서 젊은 사람들은 다 혁신자로, 오랜 세대는 다 로쇠하고 침체한 보수주의자, 경험주의자로 설정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와 같은 도식적이고 류형적인 인간관계설정과 구성조직은 작품으로 하여금 생활의 진실을 옹계 보여줄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단편소설의 류형성, 단조성을 낳고 형상을 죽여버림으로써 작품을 흥미없고 따분한것으로 되게 한다. 인간관계의 설정과 구성조직에서 이러한 류형과 도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종자와 의의있는 성격을 탐구했다 해도 새맛이 없어지고 단조로움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와 함께 작품의 양상과 이야기의 전개방식, 묘사수법의 활용 등에서의 류사성도 단편소설의 예술적형상성과 흥미를 떨구는 중요한 원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종자와 성격탐구에서 뿐만아니라 인간관계의 설정과 구성조직, 작품의 양상과 이야기의 전개방식, 그리고 묘사수법의 활용과 문체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새롭고 개성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높은 창발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소설가들은 혁명적단편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과 탐구적열정을 기울임으로써 사상적내용이 심오하면서도 예술적형상성이 높고 흥미가 있는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당은 나의 어머니

오영재

그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었기에
그 어떤 생명을 나에게 주었기에
세상에 태어나자 처음으로 배운
어머니란 그 이름으로 그대를 부르는것인가

원췌앞에선 발같이 용맹한
범같은 사나이영웅도,
생활의 고초를 수없이 겪어온
백발의 로학자도
어찌하여 그대앞에선 공손히 머리숙이고
때로는 더운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것인가

열백개 목숨으로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나에게 준
당이며, 그대는 어머니
변함없는 신념의 그 젖줄기로
따사로운 사랑의 그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는 자애깊은 품

조용히 가슴우에 손을 얹으면
높이 뿜다, 그대가 준 생명의 힘찬 고동소리
뜻있는 삶과 보람찬 나날이
환희에 넘쳐 나래치는 소리

내 만약 이 생명을 잃는다면
삶의 높은 궤도우에서
천길 암흑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나의 두눈에선
희망의 빛이 꺼지리라

생활도 벗도 나의 곁에서 사라져버린
무서운 고독속에서 나는 헤매이리
영영 기쁨을 모르는 육체에서
웃음이 없으리라,
태일도 없으리라

단란한 가정의 저녁상에 비치는
그 밝은 등불도
향기로운 봄날의 새 숨결
노을비긴 전야의 아름다움도,
가슴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던
정다운 노래도 나에게겐 없으리라

지나간 날, 이 품을 모르고 살던 그 세월엔
그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사람들 한생을 살다가 갔으랴

그래서 어제날의 노래는 절망의 가락이였고
그래서 어제날의 이야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
였던가

아, 당이며 그대 없이
내 어이 순간인들 살수 있으랴
인간의 가치가 어떤것인가를
참다운 자유와 지향이 무엇인가를
그대는 나에게 깨우쳐주고
참다운 혁명가로 한생을 빛내가는
그 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주고있거니

때로 내 잘못을 저질러
그대의 꾸지람을 받는 때 있어도
그 엄한 질책뒤에 스민
사랑의 더운 손길을 보기에
네 가슴 그리도 미여질듯 피로와
어머니당의 품에 말없이 온몸을 맡기었노라

당의 빛발로 온몸을 씻으며
맑은 그 거울에 내 마음 비취가며
나는 깨끗하게 한생을 살고싶어라
빛나게 혁명에 몸바쳐가꾸어라
그러면 당이며,
그대 얼마나 기뻐할것이라
그대 얼마나 이 아들에게
속깊은 사랑을 더 부어줄것이라

나의 운명도 아이들의 미래도
오로지 그대에게 의탁했거니
그대를 받드는
그것은 나의 기쁨,
그대 위해 싸우는
그것은 나의 영광

깨끗한 혁명의 량심으로
은혜받은 사람의 뜨거운 의리로
변함없이 그대를 나는 따르리
그 길에서 한목숨 바쳐야 한다면
그 어떤 외진 길가이건 험한 진펄이건
그 어데 쓰러진들 그것을 가리랴

태어나선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았건만
빛나는 나의 삶은 당의 품에 있어라
뜨거운 그대 품은 나를 찾아 안아주고
그 품에서 나는 영생하리라

아, 하늘의 태양이 불멸하듯
영원한 **김일성** 동지의 당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
언제나 그대 사랑 다 안고사는

행복한 아들의 이 가슴에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소리없이 젖어드는 후더운 생각-
당은 나의 어머니!
당은 나의 어머니!

사랑의 그 품이 고마와

김기호

봄이 오는 운전벌을 찾으면
포전에서 땀흘리는 나 어린 처녀
문득 바라보는 눈길에도
수집어 절로 얼굴 붉히는 그가
수령님을 만나뵈온 영웅이란다

흰구름이 스치는 일터
백금산마루에 오르면
착암기를 잡은 보통광부들
수수한 그들이
수령님을 만나뵈온 영웅들이란다

이 땅 가는곳마다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영웅들
만나면 만나보는 영웅마다
감격에 목이 메여 들려주는
수령님을 만나뵈온 소박한 그 이야기

일하는 동무들의 손을 쥐면 힘이 난다고
흙물은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던
그 사랑이 고마와서 울고울던 처녀
그 땅에서 갑절 많은 소출을 내고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노란다

산이 높다고 올리는 말쑤에
산이 높으면
백두산보다 더 높겠는가
몸소 험한 일터를 찾아주신
그 믿음이 고마와서 흐느끼던 광부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노란다

꽃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찾아오시여 만나주시고
다시 부르시여 가르쳐주시고
두고두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만나뵈오면 힘이 솟고
만나뵈오면 지혜가 솟아
굽이치던 생각은
한순간에 바다같이 깊어지는듯
멀리 흘러갔던 청춘시절도
꽃피는 새봄처럼 다시 돌아오는듯

그 믿음의 나날은 하루같이 뜨거워라
그 사랑의 하루는 천년같이 빛나라
평범하던 사람들이
혁신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이 되는 땅

머나먼 두메산촌이라
깊고깊은 지하막장이라
이 땅 그 어디나
수령님 찾아주신 자랑이 있고
수령님 만나주신 영광이 있어

그 사랑 그 믿음 속에
어디서나 별처럼 솟아나는 영웅들
어딜 가나 별처럼 많고많은 혁신자들...

아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기에
날마다 새 인간들이 탄생하고
시각마다 기적이 창조되는 강산
그래서 우리 인민은 영웅적인민
조선은 빛나는 영웅의 나라여라

당원의 삶

정동찬

당이어
나는 오늘부터
그대의 한 당원
그대의 혈통을 타고난 한 아들

나의 이름보다 나의 당원증번호를
나의 생일보다 나의 입당년월일을
더 소중히 외우며
나의 온 생명이 안겨 숨쉬는
당원증을 받아안았노라

한손을 조용히 가슴에 얹으며
대지를 밟고서니
금시 온 땅이 진감하며
그 모든 기쁨을 나에게 주는듯
금시 온 강산에 빛발이 차고넘치며
그 모든 영광 내 눈동자에 담아주는듯

당이어
내 오늘
그대의 몇번째 아들로 태어난것이나
10년 20년...
나보다 앞서가는
수많은 당원들의 고귀한 삶이
내 눈앞에 비껴와라

어떤 사람
화점을 몇자욱 앞에 두고
생을 마치는 그 영광의 순간
피에 젖은 품에서 소중히 내놓은
입당청원서
당원의 삶은 그 첫걸음부터
높은 지점에서 시작되는것

어떤 사람
한생을 빛나게 마치는 순간
못다한 분공 가슴아프게 돌이키며
말없이 조직앞에 바치던
마지막 당비
당원의 삶은 그 끝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총화되는것

한사람

그 모두의 삶은
위대한 당에 바쳐
어머니당과 함께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어나는가

당이어
나의 자서전은 비록 짧아도
이 땅에 무성한 숲으로 자라난
당의 근위대 결사대들의
뜨거운 숨결속에서
당원의 심장을 받아안았거니

나는 아노라
우리 사는 거리의 화려한 건물
아름답고 광채로운 탑의 높이를
지하에서 받드는 주춧돌처럼
보이지 않는 생활의 가장 깊은곳에서
나의 심장 고스란히
당을 받들어야 함을

차레지는 영광의 자리에서보다
제 한몸 바치는 결전의 언덕들에서
당원
그 이름 불길속에 메아리치고
당원 그 영예 기발같이 나뉘어야 함을

피어난 꽃보다
그 꽃을 피운 뿌리를
더 소중히 할줄 아는
생각깊은 당원의 진실한 삶이
그 모든 행복과 영광의 어머니인
당을 위하여
참되게 사는것임을
나는 아노라

아, 주체의 당
강철의 당이어
내 진정
그대의 한 성원
그대의 한 전사
탄생의 시작이 있어도
그 끝을 모르는
당원의 영원한 삶을 빛내가리라

세대주

백남룡

질은 산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가자 다층주택의 타일벽과 유리창들은 해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고 가로수잎새들에서는 이슬이 반짝거렸다.

거리는 아침의 활기찬 음향속에 잠겨있었다.

금방 물차가 지나가서 호수가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행길로 《갱생》 승용차 한대가 미끄러져 가고있었다.

박룡규지배인은 의자등받이에 편안히 기대채 창밖에 시선을 주었다. 빠르게류소마다 사람들이 줄지어섰다. 출근시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퍼그나 있는데 벌써 출근길에 오른 로동자들이었다. 이달도 한주일밖에 없는 긴장한 때라는것을 공장사람들치고 누가 생각지 않으랴.

《가만... 좀 세우오.》

박룡규는 열창을 유심히 내다보며 말했다. 건늬길도 없는 길가여서 운전사는 차를 저만치 가서야 멈춰세웠다. 박룡규는 차문을 열고 상반신을 반쯤 내민채 뒤를 향해 소리쳤다.

《소조원동무!》

줄을 친듯 가쁘히 다듬은 길나무들옆에는 살결이 유난히 맑은 처녀가 어지간히 놀란 얼굴로 이쪽을 쳐다본다. 이어 처녀의 얼굴에 흰기가 살짝 드러나보였다. 그는 단숨에 뛰어왔다.

《언제 오셨습니까?》

《아침차에... 집에 잠깐 들렀댔소.》

《전 지배인동지가 이렇게 빨리 올줄은 미처...》

《허허, 내라고 늑장을 부릴턱이 있소.》

《참, 지배인동지두... 총국에 가셨던 일은 잘됐습니까?》

《소조원동무가 늘 걱정해주는데 잘돼야지... 허허.》

처녀는 이마우에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올리며 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소조원동무, 타오. 같이 가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타라는데... 공장까지는 한참 가야 되지 않소.》

《전 신선한 아침일을 걷는게 좋습니다.》

《자... 어서 타라는데.》

그러자 처녀는 마지못해 승용차뒤문을 열고 올라앉았다.

차는 떠났다.

박룡규지배인은 승용차앞거울에 비친 소조원처

녀의 자그마한 모습에 시선이 갔다.

시원스레 열린 이마에는 몇오리의 머리칼이 살쫂이 드리웠고 속눈썹이 긴 검은 눈은 푸른 꿈을 간직한 어린 소녀처럼 순진한 정채가 떠돌았다. 량쪽가슴을 주름잡은 담갈색의 간편한 옷은 처녀에게 꼭 맞았다.

지난달 초순에 후방과사업을 돌보고오던 지배인은 공장울타리옆을 흐르는 도랑물에서 연록색 봄외투를 입은 낮모를 처녀가 유치원조무래기들과 마주 서있는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신작들을 벗어 진채 고개를 숙이고 나란히 섰다. 꾀바른 애녀석들은 꾸중을 듣는체하다가 돌아서면 또 장난질을 하는것이였다.

《잘하오. 그 장난군들을 좀 혼내우오.》

박룡규지배인은 넉지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했다. 그는 처녀의 생김과 옷차림으로 보아서 공장에 경제선동나온 예술단의 배우라고 생각하고는 허물없이 말을 이었다.

《...유치원에서 도망쳐서는 늘쌍 그 도랑물에서 자유주의를 부린단말이요.》

두어시간후, 지배인방에는 손기척소리와 함께 바로 그 처녀가 수인사를 하며 들어왔다.

《그 장난군들한테서 단단히 다짐을 받았소? 허허...》

《저 지배인동지... 유치원마당가에 수영장을 만드는데 어떻게습니까. 분수도 나오게말입니다.》

《?!...》

《여름철엔 아이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

박룡규는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수영장과 분수는 이 큰 공장의 힘으로는 간단한 일인 것이다. 그런것을 생각조차 못한 자신이 면구스러웠다. 그는 말머리를 판데로 돌렸다.

《참, 동문 무슨 배우요? 노래요? 춤이요?》

《전 이 공장에 배치받고 오는길입니다.》

《그-렇소?!... 어느 직장에?》

《혁명소조원입니다.》

《?!...》

승용차앞거울에 비친 소조원처녀를 다시금 쳐다본 박룡규는 그때 자기가 바로 알아맞히지 못한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소조원처녀가 예술부문에 가지 않고 공업대학을 나왔다는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자 문득 만팔이 생각났다. 아버지를 닮아서 곱게 생기진 못했으나 음악에 소질이 있었다. 중학교시절에 딸은 펍 숙성하여서 음색은 맑고 독특하게 번져갔고 성량도 풍부했다. 고급양복점의 재단사인 안해는 딸을 재능있는 가수로 키우기 위해 은근히 원심을 썼다. 그러나 박룡규는 딸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편직물공장에 넣었다. 음색과 성량은 아까왔지만 타고난 생김새는 무대를 타기에 적당치 않다고 여긴것이다. 그리하여 공장에서 로동생활체험을 쌓으면서 작곡가가 되기를 바랐다. 근래에 와서 딸은 음악통신원 강습에도 다녔고 신통치는 못해도 노래를 몇곡 지었다. 딸의 발전에 만족을 느낀 박룡규는 이번 출장길에 애를 쓴 끝에 푸른 빛같이 번쩍거리는 손퐁금을 샀다. 아침에 집에 들러 손퐁금을 주었을 때 기뻐 어쩔줄 모르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마음이 들뜨지나 않겠는지...)

박룡규는 걱정스러웠다. 녀류작곡가란 매력있는 직업이지만 누구나 되기는 힘든것이다. 딸이 작곡가가 되지 못하고 손퐁금을 어깨에 멘채 한때의 꿈에 들떠 만족하는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불행스러운 일인것이다...

승용차는 가벼이 흔들거렸다.

소조원 마춘심은 지배인의 넓은 어깨와 흰서리가 드문히 엮보이는 술이 적은 머리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지배인의 뒤모습은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처럼 친근감을 자아냈다.

(물어볼까?...)

마춘심은 며칠전에 지배인이 출장떠날 때 강준철단조작업반에서 창안하는 《자동집게차》에 쓸 조종기구들을 부탁했었다.

단조장에는 지난해에 만든 유압식집게차가 있었으나 중량물단조에만 가능한 설비여서, 여전히 손집게는 단조공들의 땀을 한동이씩 빼앗아내었다. 그리하여 자그마한 소재도 원활하게 단조, 형단조할수 있는 《자동집게차》의 창안은 가파로운 탐구의 언덕을 한치한치 오르고있었던것이다.

마춘심은 지배인이 오자마자 다심스레 채근하는것 같아 종시 물어보지 못했다.

승용차는 신호나팔을 분주히 울리며 멈춰섰다. 공장정문이였다.

어린 보위대원처녀가 달려나와 철문을 열어젖혔었다.

정문철기동옆에는 금시 배스를 타고 온듯 여러명의 청년들이 무슨 유쾌한 룡담을 했는지 떠들고있었다. 마춘심과 친숙한 단조공청년들이였다. 강준철이도 있었다.

지배인은 청년들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친절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강준철은 지배인이 가까이 왔는데 머리만 한번 끄떡하고는 정문출입구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공장구내를 통통거리며 굴러가는 바테리운반차에 눈길을 주면서...

강준철의 꾀꾀한 뒤모습은 마춘심에게 의혹을 자아냈다.

(왜 그럴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얼마후 마춘심은 구내공원길어구에서 강준철의 곁에 다가섰다. 청년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걷고 있었다.

《준철동무...》

《.....》

《무슨 기본상한 일이라도 있는가요? 지배인동지를 보기바쁘게 피하는군요.》

마춘심은 룡담조로 부드럽게 말했다.

강준철은 저오기 흥분한 얼굴로 마춘심을 돌아보더니 인차 쓰거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지배인동지는 그런걸 탓하지 않습니다.》

강준철은 무언가 끓어오르는 감정의 분출을 묵새기는것 같았다.

두사람은 이성버성한 침묵속에 걸었다.

나무잎새들 사이로 신선하고 투명한 해빛이 새어들어 구내길 포석우에서 뿔날았다.

《소조원동무는 날 속으로 욕하겠지요?》

《왜요?》

《내가 지배인동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참, 준철동무두... 난 그저 무언가 리해되지 않아 생각해봤을따름이예요.》

《그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쩐지... 준철동무가 지배인동지를 무서워하는것 같아서... 호호.》

《소조원동무두 룡이 세군요... 어쨌든 내 좀 말하겠습니다.》

...지난해 12 월초, 눈이 발목까지 잠기게 내린 어느날이였다.

강준철은 사절지만한 도면 두장을 맡아쥐고 아침부터 지배인을(박룡규지배인은 부임한지 보름이 되나마나 했었다.) 만나려고 기회를 엿보았다.

단조장에서 좀 일하다가가는 웃옷을 갈아입고 지배인방의 복도에서 서성거리기를 몇번이나 반복했다. 좀처럼 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복도에서 지배인과 마주쳤다. 강준철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지배인은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지배인은 몹시 바쁜 모양이였다. 각 직장들에 전화로 생산실태를 물었고 오래 동안 지시를 주었으며 후방과장을 불러들여 닦아

세우기도 했다.

협동생산품때문에 찾아온 다른 공장 업무일군과 이야기를 끝내고나니 점심시간이 켜 지났다.

강준철은 락심하지 않았다.

그날 못한 일을 저녁늦게까지 하고나서 다시 지배인의 방에 오니 생산참모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준철은 단조장에 돌아와 벌겋게 단 가열로앞에 서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는 가끔 먼지 낀 창너머로 구내 저쪽건물의 지배인방을 안타까이 바라보았다. 환한 불빛에 조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들이 보였다. 강준철에게는 참모회의에 모여앉은 사람들이 저렇게 온밤이라도 앉아있을듯싶었다.

밤은 퍼그나 깊어갔다. 그러나 강준철의 가슴속에서는 지배인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떠나지 않았다.

부임한 이튿날에 단조장에 온 지배인은 기름때 묻은 병어리장갑을 끼고 나서더니 강준철의 손에서 집계를 잡아당겼다.

한참이나 단 쇠덩이를 재치있게 두드리면 지배인은 이마의 땀을 씻으며 호방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도 젊었을 땐 단조공이었소.》

강준철이와 단조공들은 지배인이 원하는 답배를 기름때 묻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받아서는 벌겋게 단 쇠덩어리에 붙여 물었다. 지배인은 탄산수를 쭉-소리가 나게 들이키더니 가까이 선 강준철의 어깨를 친절하게 두드리주고는 갔었다.

첫인상, 그것은 좋건 나쁘건 진실이건 거짓이건 사람의 머리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꾸밈없는 사진이었다.

강준철은 가열로앞을 떠나 단조장휴계실에 앉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가 휴계실 유리창을 찢을듯이 후려치는 눈보라소리에 깨났을 때는 밤 한시였다. 강준철은 황급히 종이마리를 찾아쥐고 밖으로 나갔다. 지배인의 방은 고맙게도 여전히 불이 켜있었다. 강준철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층계를 뛰어올라갔다. 그는 누런 무늬단판을 댄 지배인 방문앞에서 잠시 마음을 진정시켰다.

불시에 문이 벌컥 열리는바람에 강준철은 이마를 얼얼하게 짓쪼았다.

《어, 참... 누구요?》

《.....》

《단조공동무구만... 아프지 않소?》

《아무 일 없습니다.》

강준철은 열정적 웃었다.

《어떻게 왔소?》

《좀... 만나려구...》

《나를?》

《예.》

방안에 들어간 지배인은 외투와 털모자를 도로 벗어걸고는 손을 비비며 긴 앞상에 마주앉았다.

강준철은 검댕이가 묻은 두장의 도면을 지배인 앞에 퍼놓았다.

첫 종이의 옷단에는 《태일의 우리 단조장》이라고 씌여졌고 수채화로 단조장 풍경이 아름답게 그려있었다. 《자동집게차》가 절족동물의 다리같은것을 뻗쳐 빨간 쇠덩이를 모루우에 붙잡고있었고 공기함마의 둔중한 마치는 기운치게 내려진다. 가열로앞에도, 공기함마곁에도 사람은 없었다. 다만 정갈한 단조장 한켠 금붕어어항과 화분이 놓인 원탁옆의 유리집속에서 파란 조종단추를 누르는 운전공청년의 웃는 얼굴이 보일따름이었다...

단조장의 미래의 이상적인 풍경이었다. 지배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지배인은 두번째 도면은 결눈으로 얼핏 스쳐보고나서 말했다.

《동무는 과학환상소설들을 탐독하는게로구만...》

《예?!...》

강준철의 가슴한귀로 싸늘한 랭기가 스며들었으나 이내 녹아버렸다.

침묵이 흘렀다.

지배인은 손등으로 도면을 가볍게 두드리며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음... 여기엔 아직 현실적문제는 반영되지 않았구만.》

《지배인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단조장을 이 그림처럼 한번 꾸려보려구 합니다.》

강준철은 지배인이 서투른 《자동집게차》도면도 봐주었으면 하고 바랬으나 지배인은 눈보라가 울부짖는 창문쪽에 시선을 돌리며 묻는 것이었다.

《이건 누가 그렸소?》

《우리 단조공들이...》

《하여간... 두고 가오. 젊은 동무.》

지배인은 도면을 책상서랍에 밀어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만... 동문 집에 어디요?》

《합숙입니다.》

지배인은 송수화기를 들어 몇마디 지시를 주었다. 그러자 얼마 안되어 밖에서 승용차가 부르릉거리더니 운전사가 들어왔다.

《이 단조공청년을 합숙까지 태워다주오.》

강준철은 급급히 돌아섰다.

《전 일 없습니다. 밤이 깊은데 지배인동지가 퇴

근하셔야지요.》

《걱정 말고 어서 타고 가오. 날씨가 사나운데… 난 아직 일이 더 있소.》

강준철은 우겼으나 어찌는수 없었다.

그는 지배인이 내미는 손을 뜨겁게 잡았다. 강준철은 승용차에 앉아 합숙마당에 올 때까지 감동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흥분해있었다. 지배인의 집이 합숙과는 반대쪽 멀리에 있는것을 안 강준철은 운전사에게 지배인을 빨리 집에 모셔다드리라고 공언한 부탁을 몇번이고 했다.

하루, 이틀… 날은 흘렀다. 한달, 두달… 석달이 지나갔으나 잊어진 편지처럼 지배인한테서는 소식이 없었다. 간혹 현장에서나 구내길에서 마주칠 때면 지배인은 얼굴에 웃사람다운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긴 했으나 사절지만한 두장의 도면에 대해서는

《아, 그것말이지? 좀 기다리오…》

《기술일군들과 토론해보겠소》하고 위로해줄뿐이었다.

그리하여 강준철의 가슴속에 그토록 깊이 간직했던 지배인에 대한 소중한 첫인상은 그날밤의 승용차와 같이 눈보라속에 사라져버렸다…

《사업이 바빠서 그랬겠지요.》

마춘심은 신중하게 말했다.

《옳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준철은 선뜻 긍정했으나 마춘심은 청년의 선이 굵은 얼굴에서 비양조의 기색을 뚜렷이 찾아보았다.

《지배인동무는 공장전반을 돌보니까… 늘 바쁘지요.》

이 말을 던진 강준철반장은 무인의 표정으로 랑헬르 구하고는 단조장쪽으로 성큼성큼 가버렸다.

마춘심은 강준철의 결패스런 뒤모습이 단조장의 커다란 철판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의혹과 기대의 착잡한 감정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마춘심은 결코 지배인을 강준철반장처럼 생각할수 없었다. 무슨 요긴한 이유가 있을것이다. 마춘심은 지배인의 성실성을 강준철에게 굳이 믿게 하고싶었다.

마춘심은 이날 지배인을 현장에서 몇번 만났으나 부탁한 조종기구들에 대해 물어볼 틈을 내지 못했다.지배인은 몹시 바쁜지 눈인사를 보내고는 그를 지나쳐버렸던것이다.

《자동집게차》의 시운전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이번에는 공기함마의 캄축까지 휘여들어 공장참모회에 문제가 올랐다. 사람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긴장한 월말생산에서 공기함마가

숨결을 멈추는 날이면 큰 일인것이다.

반나절이나 도면과 참고서적을 펴놓고 사색에 잠겼던 마춘심은 단조장으로 갔다.

오후작업을 시작하기전이어선지 단조장은 정적이 깃들고있었다. 높다란 천정트라스를 올리받을 것처럼 키가 경중한 공기함마는 지게다리를 띄버리고섰고 가열로나에서는 서리발같은 화염이 허영게 익어가는 쇠덩어리들을 활아내었다.

웃머리를 분해한 《자동집게차》 주위에는 단조공청년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둘러앉아있었다. 가열로의 불빛에 비친 그림자들만이 벽에서 활기있게 너울거렸다.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겨있던 강준철은 뒤늦게야 소조원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안한 말을 했다.

마춘심은 단조공들곁에 병어리장갑을 깔고 앉았다.

《괜찮아요… 전 동무들이 집게차곁에 모여있는 것만도 반가와요.》

《저… 소조원동무…》

강준철은 뒤말을 잊지 못한채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다. 그의 얼굴은 검은 기름때가 코수염을 그려놓아서 저으기 웃음을 자아냈다.

《소조원동무 생각엔… <자동집게차>가 될것 같습니까?…》

《그러구보니 단조장의 래일에 대한 훌륭한 꿈을 가지고있는 준철동무도 마음은 약하군요.》

마춘심은 웃었다.

단조공들의 얼굴에는 그늘진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때문에 공장생산계획이…》

강준철반장은 고개를 숙인채 피로와하고있었다.

마춘심은 이 성실한 청년을 미덥게 바라보았다.

《준철동무… 우리한테 맡겨진 단조품은 기어이 보장하자요. <자동집게차>의 가능성여부에 대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나 래일이나 단조장의 주인은 동무들이예요. 주인들이 될수 있다고 마음을 문게 먹고 해내면 되는것이고 주인들이 실망하면 안될것이예요.》

단조장에는 침묵이 깃들었다.

가열로안에서 빨간 쇠찌가 탁탁 튀여올랐다.

마춘심은 옆에 있는 가마니를 펴놓고 집게차밑에 들어갔다.

그제야 단조공들은 저마다 일어나 할일들을 찾았다.

《참, 이놈의 집게팔과 동체의 류동이 조화가 맞지 않는단말입니다.》

마춘심의 옆에 들어온 강준철반장은 속상한듯

투덜거렸다.

《한쪽으로 오후 작업준비를 하는게 어때요?》

마춘심은 권고했다.

《걱정 마십시오. 다 해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밤을 밝히면서 단조품을 때려내겠습니다.》

강준철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어리고있었다.

마춘심은 집게차의 내장을 들여다보았다. 부분품들의 렬쇄장치들을 하나하나 뜯으며 살펴나가는 그의 이마엔 어느덧 진땀이 내뿜기 시작했다.

분주히 떠들며 룡질하던 청년들의 말소리는 갑자기 잦아들었다.

저만치에서 지배인이 공기함마의 지게다리처럼 버티고 서서 이쪽을 보고있었던것이다. 한참이나 입술을 꼭 다물고 지켜보기만하던 박룡규는 끊어 번지는 증기가마처럼 확 분김을 터뜨렸다.

《이 바쁜 월말에 공기함마를 세우다니... 반장은 어데 갔소?!》

박룡규지배인은 금방 집게차밀에서 나온 강준철을 보자 몇걸음 다가갔으나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다. 소조원처녀가 집게차밀에 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박룡규지배인은 입맛을 쩍쩍다시고는 돌아섰다.

지배인은 쇠장대를 거머쥐고 가열로의 익은 쇠덩이를 한참 들춰놓았다. 두손에 침을 탁탁 뱉고 난 그는 손집계를 꼬나들며 운전공청년에게 소리쳤다.

《공기를 살리오!》

순박하게 생긴 어린 운전공청년은 지배인의 위협에 놀랜듯 열풍기 스위치를 넣었다. 부-웅!-가열로안에서는 회백색의 창살같은 불줄기가 솟구쳐올랐다. 박룡규는 손집계로 하얀 불광이 파들파들 살아나는 쇠덩이를 집어 모루에 털썩 올려놓았다. 쇠썩...썩썩!썩썩!...

둔중한 공기함마는 박룡규의 팔을 저릿저릿 울리며 쇠덩이를 내리쥘었다. 검붉은 쇠껍질이 부슬부슬 물러난다. 얼굴이 금시 데는듯 뜨거워났다. 그는 함마가 내리칠 때마다 목을 이쪽저쪽으로 돌려대며 분주히 어깨춤을 추었다. 얼굴에 땀이 물처럼 흘렀다. 비지땀은 잔등을 끈끈하게 했다. 박룡규는 눈덕에 매달리는 땀방울때문에 두눈을 꺾꺾 감았다 떴다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춘심은 지배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오십이 된 지배인이 청년단조공들앞에서 생산을 위해 저렇게 땀을 흘리는것이 우연한 일로 생각되지 않았다. 지배인에게는 강준철이 리해하여야 할 가장 성실한 점이 있는것이다. 그래서 마춘심은 강준철이가 지배인한테서 손집계를 뺏어드는것을 무뎌 고맙게 여겼다.

단조공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웃고 떠들고 룡

말이 오갔다. 뽕뽕한 기운이 어렸던 단조장에는 화목한 가정처럼 아늑한 분위기가 떠올랐다.

마춘심은 주전자에서 탄산수를 떠들고 땀을 씻고있는 지배인에게 가져갔다.

《어-시원하다. 늘 봐야 로동은 머리를 거뜨하게 해준단말이요.》

지배인은 기분이 상쾌하여 단조공들의 조화로운 손동작을 지켜보고있었다.

마춘심은 출장 떠날 때 부탁했던것을 조심스레 물었다.

박룡규지배인은 놀랜듯 소조원을 건너다보더니 미안쩍은 표정을 지었다.

《아, 참,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난 그때 총국에 들러서 조종기구들 명세와 함께 <자동집게차>를 명년도 기술발전계획에 넣어달라고 단단히 말해놨소.》

《?!...》

마춘심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된 지배인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줄지에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어쩌면 그럴수 있을가. 걱정 말라구 수첩에 쓰기까지 하구선...)

지배인이 가져올 조종기구들로 단조공들을 기쁘게 하고 《자동집게차》의 창안에 신심을 가지도록 해주고싶었던 자신의 생각이 어치구니가 없었다. 마춘심은 단조공들결에서 세련된 몸짓으로 호탕하게 이야기하는 지배인을 보자 더 마음이 괴롭기만 하였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머리속에서는 지배인을 아버지처럼 친근하게만 생각했던 단순한 감정과 함께 새로운 감정들이 착잡하게 뒤엉켜돌았다.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서는 사람이 있었다. 지배인이었다.

《소조원동무.》

지배인의 음성은 너그러웠다.

《...지난해에 우리 기사장동무랑 달라붙어 유압식집게차를 만들어놓았는데 단조공들이 손집계와 배합해서 착실히 일하도록 합시다... 전문기관에는 집게차를 연구하는 공학사두 있소.》

박룡규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는 사회물정에 밝지 못한 이 순진한 처녀에게 무언가 따듯이 권고해주고싶은 심정이였다.

《이건 내 자량이 아니지만... 우린 젊은 단조공 시절에 본때있게 일했소. 런닝그는 며칠 못입어서 땀에 삭아 줄줄 미여지군했지요. 사실 기계공장치고 단조장만한 <용광로>가 없지요. 우린 쇠를 버려내면서 자기자신을 버려냈소... 그때 같이 단쇠를 주무르던 사람들은 지금 총국에도 있구 당일군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

《소조원동무, 오늘저녁에 열리는 생산협의회 중심은 단조요. 단조가 걸렸지요...》

《지배인동지, 단조공들도 공장생산을 책임졌습니다. 단조품에 대해선 너무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단조공들과 같이 꼭 보장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맘을 놓겠소.》

박룡규지배인은 나무줄기에 담배꽂초를 비벼 껐다.

지배인은 갔으나 마춘심은 생각에 잠긴채 조용히 걸었다. 지배인의 말이 다 옳은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배인은 어쩌서 강준철이나 단조공들한테서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있는가. 단순히 《자동집게차》제작을 뒤로 미루는것때문일가?...

단조공청년들은 단조장을 디딤돌로 해서 어떤 일군으로 되거나 다른곳에 갈수도 있겠지만 일생을 단조장에서 보낼 사람들도 많을것이 아닌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받침하는 우리의 로동은 그대로 기쁨이 되고 흥겨운것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지배인의 청춘시절,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고 빈주먹으로 공업화의 기초를 닦던 시대처럼 혁명적열의 그 하나만으로 성실히 일하여 당에 충실하던 때는 멀리 지나갔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실현되어가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단련할 《용광로》는 그런것만이 아니다. 청년들은 과학기술이라는 무기를 틀어쥐고 나가려고 한다.

마춘심은 바로 일군들은 청년들의 이런 지향에 나래를 달아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6월의 마감주일은 언뜻 흘러갔다.

그것은 월생산을 총화짓는 긴장하고 드바쁜 날들이었다.

즐겁게 조잘대는 참새들의 우짖음소리에 마춘심은 책상에서 피곤한 얼굴을 들었다. 창턱에까지 드리운 가느다란 버드나무의 탄력있는 줄기에 두마리의 참새가 매달려 방안을 가웃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쉬는날인데도 집안에만 불박여있는 처녀를 나무람하는듯이...

해는 퍼그나 떠올랐다.

창가에 다가선 마춘심은 흰 문장을 가벼이 들쳐였다. 정원너머 가로수길에는 그물에 넣은 공을 둘러멘 합숙청년들이 떠들며 분주히 걸어갔고 어린애를 안은 젊은 부부가 한가롭게 거닐고있었다.

마춘심은 다시 의자를 당겨놓고 앉았다. 책상우에는 동그라미와 직선과 단면선들로 그려진 도면들이 수북하게 널려 그의 사색과 손길을 기다

리고있었다.

과학의 세계란 아무리 작고 단순한것이라도 초기에는 신비한 비밀처럼 깊숙이 숨어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값높은 정력과 탐구와 피나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과학자 발명가는 자기의 청춘도 일생의 귀중한 모든것도 아끼지 않으며 오직 탐구와 노력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것은 자기가 발명한 하나의 기계나 공학적원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채부로 되는가를 잘 알기때문이다.

마춘심은 자기 사업의 목표와 소중한 의의를 가슴 뿌듯이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고심하는 《자동집게차》의 동체와 팔의 조향장치를 수년이 아니라 다문 몇달이라도 늦게 연구해낸다면 어찌랴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싸늘해나군했다. 가열로앞에서 손집게를 든 땀에 젖은 구리빛 얼굴들이 눈앞에 얼른거렸던것이다.

마춘심은 최근호의 《기계공학》잡지를 펼치였다. 폐지마다 발명, 창안, 기술개조안들로 꽉 들어찼다. 연구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거대한 창조적사업들이 들끓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잡지의 한 귀퉁이에 멎었다.

쫄모있는 《소형집게차》

×도시의 기계공장에서 만든것이였다. 유압식도 자동식도 아닌 기계식이였다. 손집게보다 우월하지만 일반성이 적다는 간단한 기술적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소형이라는데 몹시 마음이 끌렸다. 직접 보고싶었다. 어느 부분이라도 류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는것이다.

마춘심은 강준철이와 토론했려고 일어섰다.

...갈색 뺨끼칠을 한 합숙출입문앞에 이른 마춘심은 호수가로 갈가 어쩔가 하고 잠시 망설이였다. 전번주엔가 단조공청년들이 이번 쉬는날에는 뽀트놀이경기를 하자고 버르던 일이 얼핏 생각났던것이다.

마춘심이 발길을 돌리려는데 출입문이 훌쩍 열리며 몸집이 뚱뚱한 합숙관리원이 빨래함지를 안고 나왔다.

《...내 원, 참... 꼭 철부자들이라니까...》

관리원의 음성은 거칠었다.

《소조원, 글썄 좀 보우.》

너인은 한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엇그제 하얗게 빨아썩은 이불깃이 이게 뭐우?... 단조일이 힘들구 검댕이가 묻는줄은 내 알지, 그렇다구... 참 그래두 무슨 쇠집겐가 만들기만하면 넥타이를 매구 일할수 있다, 이불깃두 안넙는다 하며 통질만 한다우. 전달 공장계획만 못했다면 내 단조공총각들을 단단히 혼빵 내주려구 했수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십시오.》

마춘심은 빨래 함지를 받으려 들었다.

《원 참, 그만두게, 내 그저 하는 소리지...》

관리원어머니는 얼굴에 푸수한 웃음을 띠우며 화급히 지나가버렸다.

마춘심은 깨끗하게 닦아낸 대리석층계를 올라갔다. 복도에서 공기함마운전공청년이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그는 내의바람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있었다. 어제밤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래달 단조소재를 때리느라 피곤하여 인제야 일어난 모양이었다. 운전공청년은 어색해서 연신 머리를 쓸어올리며 마춘심에게 강준철의 호실을 대주는 것이었다.

마춘심은 잠시 서있다가 대리석층계를 도로 내려왔다. 합숙위의 소로길로 걸음을 옮기는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질석 흐트러진 단조공들의 생활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춘심은 나무줄기들 사이로 파아란 호수가 보이는 소공원의 의자에 앉았다. 호수에서는 뽕트들이 청년들의 역센 손길에 따라 유유히 떠다녔고 물가턱에선 고운 원피스를 입은 처녀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웃어대며 서로 부르는 처녀들의 목소리는 무슨 노래처럼 끊치지 않고 흘러왔다.

거리에 나선 마춘심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역전으로 걸었다. XX도시의 기계공장에 가볼 결심이었다. 렬차는 이미 떠난지 오래다. 그러나 짐차를 탈수 있는 것이었다. 짐차를 타고 수백리가 아니라 수천리라도 갔다와야 했다.

날은 활짝 들리고 가로수잎들은 미풍에 살랑거렸고 휴식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어린 얼굴, 활기찬 소음은 거리를 밝게 꽃피우고 있었으나 마춘심의 얼굴엔 그늘이 가셔지지 않았다. 지나오는 사람들이 수심에 잠겨 걷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끔 쳐다보곤 했다.

《아, 이거 소조원동무 아니요?》

호탕한 인사말에 마춘심은 얼굴을 들었다.

지배인이었다. 다림발이 선 회색양복을 입은 지배인의 얼굴은 면도를 말끔히 하여 몹시 젊어 보였다. 가족과 함께 소풍을 나왔는지 지배인의 기분은 좋았다.

《공장유치원마당가에 멋있는 분수를 만들어놓은 그 소조원이다.》

박룡규지배인은 자기 뒤에 선 안해와 다섯아이들에게 마춘심을 소개하고는 아이들을 차례로 마춘심에게 인사시켰다. 지배인은 다정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매 아이마다 아버지에게 자랑거리로 되는 특징과 장점과 앞날이 있었다. 재능있는 설계가도, 기사도 있고

과학자도 의사도 있었다.

《내 맏딸이요. 음악공부를 하지요. 곡을 좀 만드나요.》

마춘심은 푸른 빛갈의 손풍금을 멘 미래의 작곡가처녀와 악수를 나누었다.

《소조원동무, 오늘은 쉬는날인데 우리 집에 놀러가는데 어떻소?》

박룡규의 소탈하게 권하는 말이었다.

마춘심은 가볍게 사양했다.

지배인가족과 헤어졌지만 마춘심의 눈앞에는 방금까지 지배인의 기분좋은 얼굴과 어제밤 공장계획을 완수했다고 기뻐하던 지배인의 얼굴이 한데 어울려 돌아갔다. 생산계획수자를 총국에 전화로 보고하고나서 만족하여 방안을 거닐던 지배인의 모습... 마치 내내 지고오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어놓은듯이 가벼운 걸음이었다.

그러나 지배인은 자기의 가슴속에 그보다 몇 곱절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한것을 모른단말인가!...

얼마후 역전에는 광석과 통나무들을 실은 길다란 화물차가 들어왔다.

마춘심은 기차방통들의 맨 꿈무늬에 달린 자그마한 차장칸에 몸을 실었다.

차장으로 검푸른 산발속에 아늑히 들어앉은 도시가 차츰 멀어져갔다. 멀리 공장의 재빛 지붕은 연기같은 운무속에 싸인채 룬팍이 희미해진다. 기차가 산굽이를 돌아 도시는 아주 자취를 감추었고 봉우리가 묘하게 생긴 낮익은 산들만이 마춘심을 오래도록 바라워주었다. 한달전에 그는 기차를 타고 이곳에 올 때 하늘의 반쪽을 가로막고선 저 산발들아래에 과연 자기가 가는 도시가 있을가 하고 은근히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병풍처럼 둘러선 산기슭에 물살이 센 강을 끼고 키돋움하여 솟아오른 흰 고층집들의 독특한 풍경을 보았을 때 마춘심은 얼마나 황홀해하였던가.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 감정을 지닌채 봄외투자락을 날리며 거리의 탄탄한 포석우로 걸어갔던가...

랑만에 찻던 대학시절이 그리워졌다.

무리등이 휘황한 강의실, 지식욕에 불타는 꿈을 만족시켜주던 실습공장에서의 생활, 하늘엔 흰 구름이 흐르고 이름 모를 들꽃들과 해당화며 백두산 풀까지 무성히 자라 그윽한 향기 넘치던 대학정원이 그리웠다. 화강석란간에 기대어 서서 달빛을 품은 은빛 강물을 바라보며 미래의 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꿈꾸었던가!...

차창으로는 록음이 무르녹는 풍요한 강냉이밭들과 검실한 산들이 흘러갔다.

추억은 거슬러오르기만 한다.

마춘심이 아버지의 권고로 공업대학에 입학원

서를 냈을무렵이었다. 학교에 배우를 모집하러 사람들이 왔었다.

인물심사에 나서고싶어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춘심아… 넌 이미 예술의 길을 택하지 않았니?》

《네?!…》

《배우를 화려한 무대와 명성의 대명사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들떠서는 안된다. 공업대학을 꾸준히 다녀 사람들을 위해 자동화에 예술을 창조할 큰맘을 먹어라.》

《…………》

마춘심은 그저 놀랍게 아버지를 쳐다보았을뿐 아버지가 한 말의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였다.

동무들이 그를 인물심사에 내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마춘심은 끝내 몸을 숨기고말았다. 그리고 그날밤에는 혼자서 울었다…

학창시절의 애뜻한 추억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냈다. 당비서로 일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공장사람들속에서 살다싶이해서 마춘심은 아버지와 살뜰한 정을 나눌 기회가 적었다.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 그의 눈앞에는 어느덧 환송의 뜨거운 마음들이 굵이치던 고향의 역두가 떠올랐다.

(그날은 바다바람이 몹시도 불었지…)

렐차의 승강대아래서 아버지는 바람에 흠날리는 흰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었다.

《춘심아… 너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념으로 혁명소조원이 되었다… 노동자들과 일군들한테서 허심하게 배우면서 잘 도와주거라. 지금은 사회의 이구멍저구멍으로 빠져다니며 묘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이 행복한 제도에서 일을 잘하자고, 앞으로 나가자고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성격과 생활경로가 다른것처럼 의식수준도 다르다.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 당이 요구하는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도 결함이 있지… 책상물림인 나에게도 과학기술문제가 제일 어려운것 같겠지만 그보다 몇곱절 더 어려운것이 사람들문제이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혁명소조원이란걸 한시도 잊지 말어라…》

아버지의 절절한 음성은 마춘심의 심장을 울렸다.

(혁명소조원… 그래, 난 한순간도 평범한 처녀로 살아서는 안돼…)

차창밖으로는 여전히 북방의 높고낮은 산발들이 흘러가고 또 흘러오고있었다.

나흘후, 마춘심이 어깨를 누르는 묵직한 배낭을 지고 이 산간도시의 역전에 다시 내렸을 때는 밤이 켜 깊었다. 돌아오던길에 한 기계공장에 들려 《자동집게차》에 쓸 조종기구들을 구입해가 지고 오느라 지체된것이였다.

역전러관에서 쉬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공장에 갈수도 있었지만 조향감에 대한 새로운 착상이 떠오른것으로 하여 마음은 이미 단조장에 가있었다. 그의 가방에는 수백리길을 렬차로 오면서 그려본 도면들이 가득했다.

비가 줄금줄금 내리고있었다.

이따금 바람이 획-불며 비꽃을 얼굴에 뿌렸다. 편뜻 정신이 든 마춘심은 배낭을 벗어 만져보았다. 벌써 축축해졌다. 자동조종기구들을 기름종이로 싸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놓였다. 마춘심은 옷옷을 벗어 배낭을 덮었다. 그는 소매 짧은 흰 적삼만 입은채 호젓한 밤길을 묵묵히 걸었다. 배가 고팠다. 도중역에 내리느라고 점심을 설치고 저녁은 아주 잊어버렸던것이다.

그가 얼마쯤 걸었을 때였다. 두줄기의 눈부신 불빛이 어둠을 누비며 다가오더니 고르로운 발동소리와 함께 빼익-하고 차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더니 뜻밖에 그를 부르는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춘심은 무등 반가왔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강재가 화물역에 도착했는가 하구 보러 나왔지요. 소조책임자동무 말두 있구 해서 검사 들렸소… 좌우간 어서 타오. 감기 들겠소.》

지배인은 마춘심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내렸다.

《이건 뭐요?》

《오면서 좀 구한겁니다.》

《뭔데?》

《…………》

마춘심은 대답을 피했다. 지배인의 립장을 곤란하게 만들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비에 젖은 옷때문에 될수록 지배인결에서 떨어져앉았다. 박롱구지배인은 어느때처럼 다심하게 자리를 권하지는 않았다. 그는 듚적이 자리잡고 앉아서 줄곧 비물을 흠쳐내는 세정기만 지켜보았다. 우울한 기색이였다.

승용차는 비줄기와 뽕얀 물안개 서린 어둠속을 헤엄치듯 미끄러져갔다. 화물역쪽으로는 가지 않고 로타리를 돌더니 그냥 공장으로 향했다. 지배인은 화물역쪽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강재의 도착은 전화로 알아볼수 있는것이다.

마춘심은 자기때문에 지배인이 우정 나왔다는

생각이 들자 저으기 미안했다.

《소조원동무,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지배인은 얼굴을 돌리지 않은채 무거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 공장의 소형집게차는 지레식이었습니다. 아직 육체적힘이 많이 들긴 하지만...》

《지레식은 그전날 우리도 해봤소. 거치장스럽구... 손집게만 못하오.》

《.....》

지배인은 긴숨을 굶더니 마춘심을 동정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소조원동무는 공연히 그 먼델 고생스레 갔다왔구만...》

《?...》

마춘심의 온몸으로 피곤이 콕 몰려들었다.

(공연히라니... 지배인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자고 차를 가지고 나왔단말인가.)

마춘심은 가슴이 쓰렸다. 그는 지배인에게서 그런 말을 듣자고 수백리길을 갔다왔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배인이 자기를 아무리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 대해선 타협할수 없었다.

마춘심은 지배인을 외면하던 강준철이며 유쾌하게 통질을 하다가도 지배인이 오면 똑 그쳐버리던 단조공들의 순박한 얼굴들을 그려보았다. 강준철은 눈보라치는 그날밤의 지배인을 아직도 잊지 않는다. 승용차에 태워보내는것과 같은 한순간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영원한 진심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 마춘심은 오늘까지 느껴온 모든 것을 지배인에게 톡 터놓고 이야기해야만 한다. 자기가 딸이 아버지를 어려워하듯이 목새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지배인은 비록 오늘에는 강준철이나 단조공들에게서 믿음을 받지 못하지만 래일어가는 공장의 또 어느 직장로동자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될것이 아닌가...

마춘심은 저으기 흥분한 가슴을 진정하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지배인동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랍니까?》

《하오.》

지배인은 대수롭지 않은 표정이였다.

《지배인동지는 우리 공장의 수천명 로동자들중에서 몇사람이라도 지배인동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심중한 문제구만.》

《그렇습니다.》

《무슨 일때문에 그런다오?》

《지배인동지는 악수할 때 로동자들에게 그저 손만 모아서 내민다고 합니다.》

박룡규는 저으기 놀란 얼굴로 마춘심을 쳐다보

더니 인차 여유있는 미소를 지었다.

《허허... 나두 모르고 지냈구만.》

지배인은 태연하게 긍정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가책의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었다.

마춘심은 결연히 말했다.

《지배인동지, 저는 습관이란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관점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 려가?》

《지배인동지는 자신의 가정에 들어가서 악수를 하지 않지요.》

《.....》

비는 억수로 쏟아졌다.

세정기는 분주히 호를 그리며 비물을 씻어냈으나 물보라의 연막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배인동지는 아들딸들의 장래를 땀흘리는 로동이 아닌 부문으로만 희망하고있지요. 그런데 단조공청년들의 미래는 책상서랍속에 그냥 넣어두고있습니다...》

저나 지배인동지는 사무실에 가서 덧입은 작업복을 벗으면 그만이지만 단조공들은 일생을 가열로와 공기함마를 벗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

《지배인동지... 로동자들의 앞날을 진정으로 책임진 일꾼으로 되여주십시오...》

소조원처녀의 갈린 음성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룡규지배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두 눈을 감았다. 그는 딸의 손뽕금을 잊지 않고 있던 자신을 생각하고있었다. 언제나 여유있고 표정이 너그러운 그의 얼굴에는 보기도문 침통한 기색이 어리였다. 차가 들출 때마다 지배인의 침직한 몸집은 균형을 잃고 흔들거렸다...

박룡규지배인은 이날밤, 늦도록 사무실에 앉아있었다.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이튿날에도 그는 여느때처럼 출근했으나 머리속에는 하루의 공장사업에 대한 료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배인으로서 무언가 지적하고 포치하고 또 구상해야만 하였지만 그는 마치 이 공장에 처음 온 사람처럼 생산직장들을 목적없이 천천히 돌아다녔다. 어느 직장장이 생산에 대한 요긴한 문제를 말했으나 그는 선자라에서 의미없이 머리만 끄덕이고는 자재창고로 갔고, 거기서 다시 공장정문을 나와 후방과건물에 둘러보았다. 그러고나니 지배인의 사업로정은 끝난셈이다.

그의 발걸음은 저도모르게 아이들이 한창 모여들고있는 유치원으로 향했다. 자그마한 수영장에는 파란 물이 찰랑거렸고 물가운데 천연미를 갖춘 《섬》에서는 대리석금붕어들이 까딱 앉고서 가는 물줄기를 맑은 하늘로 뿜어올린다. 유치원

마당에는 무지개가 피었다.

어느덧 박룡규의 눈앞에는 연록색 봄외투를 입은 순진한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은 다시 지배인의 결합을 두고 눈물이 글썽하여 안타까와 하던 소조원처녀의 얼굴로 바뀌었다. 가슴이 미어지는듯했다.

스물다섯해전, 평범한 단조공시절에 젊은 박룡규는 가열로의 불길과 공기함마의 육중한 모루앞에서 성실히 일했다. 정문앞의 대문짝같은 속보판에도 영예게시판에도 그의 이름과 사진이 나붙었다. 혁신자로서 꽃다발을 안고 처음으로 공장구락부의 주석단에 앉았을 때, 박룡규는 자기의 자그마한 성과를 그토록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찬 장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내 얼굴을 수그리었다. 그것은 진정 자기가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넘치는 소중한 감정이었다. 공장은 그의 청춘과 행복과 미래가 결합된 보금자리였다.

세월의 흐름속에서 그는 성장했다. 작업반장으로 부터 부직장장, 직장장으로 되었다... 그는 기술을 알았으며 사업에서 전개력이 있고 작품이 좋았다. 그리하여 기사장으로 되었고 이 공장의 지배인으로 자랐다.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심부름군이 되어야 했고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했다. 그러나 박룡규의 머리속에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명예욕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났다. 어느 직장 어느곳에서 창안이 제기되면 보수주의로 물릴가봐 원심을 쓰며 뒤를 밀어주느라고는 했다. 그러나 자동화문제를 청년들의 장래운명과 결부시켜 깊이 생각해보았던가... 그는 아래사람들을 보기전에 상급의 눈에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공장의 룰파적풍치나 생산수자 같은것을 먼저 걱정했고 사람들의 피로움과 기쁨과 희망을 생각하기전에 지배인인 자기의 체면과 앞길을 은근히 생각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적당히 인사치레로 건강을 물으며 손을 내밀었을뿐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까지 내밀지는 못했다.

스무해 넘는 그 세월, 박룡규의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은것은 가정에 대한 애착이었다... 어찌하여 그런 진실하고 본능적인 따뜻한 감정을 로동자들에게는 베풀수 없었던말인가...

이날, 밤이 이윽하여 지배인의 방에서는 전화종이 길게 울었다.

참모회의에서 방금 돌아온 박룡규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단조직장에서 온 전화였다. 그의 손에서는 사업수첩이 저절로 미끄러져내렸다.

《뭘요?...마춘심소조원이?... 소조원이 어떻게 됐는가말이요!... 크게 다친데는 없다?...손을 좀 다쳤다구?... 이것 보오. 그게 얼마나 엄중한 사

곤지 모르겠소?... 가만... 내... 내가 곧 내려가겠소.》

박룡규지배인은 방문을 미쳐 닫지도 못한채 단숨에 계단을 두세개씩 뛰어내렸고 구내길을 곧장 달려 단조장에 갔다. 마춘심소조원은 없었다. 뒤에서 어느 단조공인가 반장이 소조원을 데리고 공장병원에 간지 퍼그나 됐다고 했다. 단조장을 나선 박룡규는 포장한 구내길이 아니라 공장잔디밭을 질러서 공장병원의 낮은 계단을 올라갔다. 하얀테안경을 낀 중년의 직일의사가 지배인을 보고 급히 일어났다.

《우리 소조원동무가 어떻게 됐소?》

박룡규는 성급히 물었다.

《손등을 좀 다쳤습니다.》

《지금 어데 있소?》

《제가 치료를 끝내자 소조원동무는 일없다면서 그냥 갑니다.》

박룡규지배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공장정문을 향해 걸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은 자석처럼 단조장에 끌리었다. 소조원이 그리로 다시 갔을수는 없겠지만 《자동집게차》에 대한 의무감이 그를 떠민것이였다.

공기함마결에 서있던 강준철반장은 다가온 지배인을 부드러운 눈길로 맞았다.

《소조원동무를 모르오?》

《기술부에서 도면을 그리고있습니다.》

《도면을?!...》

《소조원동무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동하는 <자동집게차>의 가슴을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조향감을 발견해냈습니다.》

《.....》

박룡규는 강준철에게 다가서자 그의 두어깨를 그러쥐었다. 지배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이것 보오. 동무가 단조를 하루이틀 했소?... 그러다 소조원동무가 크게 다치기라도 했다면 어쩔번했는가말이요. 응?...》

박룡규지배인은 맥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단조장을 나갔다. 그는 더 걸음을 옮기지 못한채 불 밝은 기술부의 창가를 흐린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 그렇게 살수는 없다... 공장은 나의 가정이 아닌가.)

아득히 흘러간 시절, 꽃다발을 안고 공장구락부의 주석단에 앉아서 느끼던 그 소중한 감정,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고마움과 존경심이 넘치던 소박하고 귀중한 감정을 되찾고싶었다. 가열로의 화염으로 언제나 심장을 불태우며 열정에 넘쳐 살고싶었다...

여러날이 지나갔다.
 여름날 저녁의 고요하고 무더운 대기속으로 황
 혼이 깃들었다.
 박룡규지배인은 점도록 창밖을 내다보고만있었
 다.

멀리 재빛 하늘아래로 첩첩히 둘러선 산봉우리
 들우에서는 노을의 마지막빛이 너울거렸다. 그
 노을빛은 단조장의 유리창에도 금빛으로 반사되
 었다. 가열로 입구에서 사뭇치는 불길은 단조장
 안을 환히 들여다보이게 하였다. 《자동집게차》
 가 팔을 뻗쳐 시뻘건 쇠덩이를 잡고 서서히 모루
 에 접근한다. 조종실의 새 유리집안에서 그것을
 흥겹게 지켜보는 강준철이와 운전공청년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장쾌한 메아리를 일으키며 《자동
 집게차》는 쇠덩이를 채치있게 뒤엎는다. 그앞에
 방열작업복을 입고 손집게를 든 단조공은 없었
 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단조장풍경에는 자
 기의 후더운 숨결이 배여있었으나 박룡규지배인
 은 쓸쓸한 회오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밖
 으로 나왔다.

날은 벌써 아주 어두웠다. 재빛하늘에는 푸른

보석같은 별들이 금시라도 쏟아질듯싶었다. 뒤산
 어데선가 부엉이의 구성진 저음이 들려왔고 구내
 공원의 나무숲에서는 이름모를 《가수》들이 저마
 끄 목청을 돋군다. 멀리 여울물의 은은한 속삭임
 은 산간도시의 밤에 아늑한 정서를 풍기였다.

씩 스프롱... 쉼! 쉼! 쉼!...

여름밤 자연의 신비로운 음향과 단조장의 장쾌
 한 동음이 조화롭게 울려온다. 불빛 휘황한 공장
 이며 그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에 넘친 모
 습들... 그 모든것은 너무도 친근하고 정답고 사
 랑스럽게만 안겨왔다...

문득 뒤에서 발걸음소리가 나더니 소조원처녀
 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여기 계시는군요요... 회관에서 사람들이 기다립
 니다.》

《나를》

《참, 지배인동지두... 노동자들의 예술공연이
 막을 열어야 할게 아닙니까...》

《...고맙소...》

박룡규는 눈곱이 축축해서 소조원을 이윽히 바
 라보았다. 그는 이 처녀에게 아버지가 있다는것
 이 어째선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다듬은 말

본래말

다수의
 다색
 다색판
 다작
 다즙사료
 다층
 다층주택
 다혈증
 단거리
 단권변압기
 단독으로
 단면도
 단상
 단서
 단선
 단시
 단시간
 단시일내에

다듬은 말

많은, 수많은...
 여러색
 여러색판
 많이 짓기
 즈먹이
 여러 층
 여러 층 살림집
 피많은증
 짧은 거리
 한줄변압기
 혼자서
 자름면그림
 토막생각, 토막글
 실마리
 짧은 선, 외줄
 짧은 시
 짧은 시간
 짧은 날자안에, 짧은
 시일안에...

본래말

단신
 단정하다
 단축하다
 단축주택
 단위
 닳은반
 담
 담가
 담배케스
 담소하다
 담수양어
 담임하다
 당년
 당첨번호
 당쟁
 당초
 홀몸
 바르다, 똑바르다
 줄이다, 앞당기다...
 한층살림집
 토막
 닳국밥
 가래
 들것
 담배갑
 이야기하다, 즐겁게
 이야기하다
 민물고기기르기
 말다...
 그해, 그해나 이...
 맞은번호
 당파싸움
 처음부터, 애초부터,
 도무지

정든 고장

김명익

1

비는 줄곧 내리고있었다.

어둠에 잠긴 산속길은 온통 비내리는 소리로 가득찼다. 그속으로 방수포자락을 펴리며 화물자동차 한대가 힘겨웁게 달리고있었다.

비줄기는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칸지붕을 끊임 없이 두드려대며 앞유리창에 부딪쳐 줄줄 흘러내리었다.

봉서식당책임자 최정옥은 부지중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귀밑머리를 쓸어올렸다.

이 비내리는 산속길은 마치도 봉서골안에서 살아온 정옥이의 지나간 생활로정을 그대로 펼쳐보이는데뜻싶었다.

갓 신살을 넘긴 정옥은 몸이 보기 좋게 나고 얼굴이 부드럽게 생겨 사람들은 흔히 그의 나이를 줄잡아본다. 약간 도드라진 턱밑의 군살과 도톰한 입술은 어글어글한 두눈과 조화롭게 어울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듯했다.

그러나 정옥은 군려관을 떠나 봉서골안식당에서 한해를 보내며 자기가 퍼그나 늙어진듯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한해전 정옥은 이곳으로 왔다. 군급양관리소 지배인은 정옥을 이곳으로 파견하면서 말했다.

《읍에서 60 리나 떨어진 산골이요. 거기에 철길이 새로 지나며 정거장이 서고 따라서 식당도 생겼소... 책임성도 있고 요리솜씨도 있는 급양일군을 파견하는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소... 식당성원은 동무와 원래 그 식당에서 일하던 처녀 동무와 둘뿐이요. 물론 우리가 방조는 하겠지만 모든 일은 동무네가 자체로 결심하고 해결해나가야 할거요...

근로자들이 있는곳에 우리 봉사일군들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소. 그곳 사람들이 우리 당의 따뜻한 배려를 더 잘 느낄수 있도록 유감없이 식당일을 잘해나가길 바라오!》

정옥은 하필이면 그런 일에 경험도 없는 한갓 요리사인 자기를 외진 골안식당으로 보내는가고 생각하며 말 못할 서운한 감정에 잠겼었다. 이고장은 정옥에게 있어서 즐겁고 보람찬 추억들을 간직한곳이었다. 전후 폐허우에 가설식당을 짓고 첫 영업을 시작하던 그때로부터 현대적이고 문화적으로 꾸려진 오늘까지 정옥은 이 러관주방에서 일해왔다. 자기 직업과 초소에 대한 정옥의 남다른 열성과 긍지는 그로 하여금 전선에서 부

상을 입고 돌아온 남편이 여생을 남기고 떠난후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고 함께 살던 딸마저 소환되는 제 남편을 따라 먼곳으로 갔어도 정든 사람들과 일터와 함께 외로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하기에 이고장을 버리고 어디로 훌쩍 떠날수 있으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정옥이었다.

지배인은 그의 이런 심중을 헤아려보기라도 한듯 잠시 방안을 거닐었다.

《정옥동무, 달리 생각지 마오. 우리는 동무를 믿고 보내오. 한 일년이면 자리가 잡힐거요. 우리 그때면 다시 동무를 소환하겠소. 자, 약속하거오.》

지배인은 정옥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정옥은 봉서식당으로 오게 되었던것이다.

봉서식당은 산간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산밑에 땡그라니 자리잡고있었다.

정옥이 처음으로 그곳에 도착한 날이었다. 얼굴이 가무스름하고 몸매가 동실동실한 탐스럽게 생긴 처녀가 부엌에서 포동포동한 팔을 내놓고 설거지를 하고있었다. 이 처녀가 급양관리소 지배인이 말하던 봉서식당의 유일한 직원인 오윤희였던것이다.

처녀는 그간 혼자서 손님을 치르느라 드바쁜 나날을 보내오던터여서 파견되어오는 새 식당책임자를 손꼽아기다리고있었다. 정옥이 자기 소개를 하자 처녀는 어린애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반가와 했다. 정옥은 주방부터 휘둘러보았다.

식당이라고 해야 한 가정의 부엌세간정도의 주방살림과 기껏해서 스무나문명의 손님을 받아들일수 있는 식당방이 전부였다. 주방설비들이 즐비하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식당에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일해온 정옥은 좁고 한적한 이런곳에서 단 하루도 마음 붙이고 살것 같지 못했다.

짐을 풀어놓고 잠자리에 누운 정옥은 밤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군려관에서 즐거웁고 보람찼던 생활이 머나먼 옛일처럼 아득히 추억되며 어찌되어 자기는 이런 한적한 고장으로 밀려오게 되었는데, 흘러간 청춘과 함께 그런 날이 언제 다시 돌아오거나 하려는지 자못 믿어지지 않았다. 한낮에도 흐젓한 골안은 밤이 되어 더욱 판세상처럼 괴괴하고 적막했다. 골짜기로 급급히 흘러내리는 여울물소리, 이름모를 밤새의 울음소리, 트락을

휩쓸며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유별나게 어수선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정옥은 생각을 가다듬고 이 낯설은 고장과 초소에 익숙하여지려고 노력하였다. 식당과 주방살림을 꾸려나갔으며 익숙한 솜씨로 요리를 하고 음식을 지어냈다.

손님들은 새 책임자가 오더니 음식맛이 달라졌다고 소문을 냈으며 윤희는 그런 책임자와 일하게 되니 힘든줄을 몰랐다.

했으나 정옥은 기쁘지 않았다. 오랜 세월 그러한 찬사에 습관되어온 그였다. 더우기 그를 기쁘지 못하게 한것은 이 골안식당에서 당하게 되는 《새 질서》였다. 때로는 한두손님을 위하여 밥을 새로 짓고 요리를 해야 했으며 어떤 날은 스무명도 넘게 손님이 들이닥치곤했다. 깊은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음식을 해놓고 종일토록 기다려도 손님 하나 오지 않을적도 있다. 물론 교대시간도 없을뿐더러 휴일조차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다. 식당이 하나뿐인 이곳에 모처럼 들리게 되는 손님들을 그저 보낼수 없는것이다. 게다가 필요한 부식물감을 주변농장과 계약하고 해결해야 했으므로 그 일도 정옥이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이 고달프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참자, 한해만 극복하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 모든 일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회상되리라... 하고 생각했다.

정옥이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며 달들과 계절을 넘겨온것이 어언 1년이 되었다. 그러는사이 저르기 《새 질서》에도 습관되고 이고장 손님들과도 정이 오고갔다. 그중에서도 범난골에 온 지질조사원들은 각별했다. 이 깊은 산중식당에서 그들은 유일한 단골손님이었으며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벗이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고장에 차차 정이 들고 생활에서 활기도 생겼다. 말하자면 뿌리가 내린셈이었다.

그러나 생활은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서있는것이 아니다. 봉서골안은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더 《새 질서》를 요구하면서 번창해지고 소란해졌다.

자그마한 산간역에 화물역이 건설되고있었으며 범난골지질조사대를 찾아 드나드는 자동차의 출장손님이 부쩍 늘었다.

바로 어제저녁 시추기를 실은 자동차와 함께 50여명의 지질탐사대원들이 밀려들었다. 쾌활한 탐사대청년들이 떠들썩 고아대며 방안을 비좁게 만들었으며 디젤유냄새가 주방으로 풍겨들었다.

정옥은 윤희와 더불어 땀을 뻘뻘 흘려가며 밥을 짓고 식찬을 마련했으며 귀에 익지 않은 지방사투리로 물어오는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했다. 탐사대청년들은 교대제로 밥을 먹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범난골로 올라가버렸다.

그 다음 또 화물역건설자들이 들이닥쳤다. 식당에는 갑자기 부족한것이 많아졌으며 밀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그들대로 식사가 늦어진다고 징징대며 돌아갔다.

정옥은 불안했다. 그간 안착되고 자리잡혔던 모든 생활과 질서들은 바야흐로 뒤흔들리었으며 소란이 일어나고 일감이 물려 돌아갔다.

그리하여 정옥은 오늘아침 자동차로 군급양관리소로 떠나게 되었던것이다. 무엇보다먼저 식료품을 보충받고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날라다주는 식료품을 앉아서 기다리수 없었던것이다. 그리고 정옥은 이번 길에 지배인을 만나 1년전게 자기와 한 약속에 대한 기미도 알아볼 심산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배인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도에 회의를 갔던것이다.

정옥은 창고에서 식료품들을 타내어 자동차에 싣으면서도 지배인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종시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자동차를 타고 정문을 막 나서려는데 급양관리소 식당담당지도원이 그를 멈춰세우는것이였다. 지도원은 그러지 않아도 연락을 띄우려던 참이라고 하면서 1년간 사업결산을 빨리 지으며 임의의 시간에도 자리를 뜰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미리미리 갖추어놓으라는 지배인의 지시를 전달하는것이였다. 지배인은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날은 마침내 정옥을 찾아온것이다!

정작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고보니 정옥은 가슴이 후두두 뛰놀았다.

이처럼 힘든것도 군말없이 참아가며 자강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온 보람이였다.

아침부터 꾸물꾸물 흐려오던 날씨는 그들이 읍거리를 벗어나던 저녁무렵에 이르러 비를 내리퍼부었다.봄비에 갑작스레 불어난 산골물은 폭을 넘어 신작로로 쓸어들었다. 그래서 어느것이 개울이고 길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그러나 정옥은 이제 멀지 않아 이루어질 희망에 잠겨 마음은 하냥 가볍기만 했다.

자동차는 작은 고개길을 나는듯이 넘어섰다. 젊은 운전사는 코노래라도 부를듯이 운전대에 몸을 실으며 경쾌하게 차를 몰아갔다.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옥의 옆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나서

《그간 외진곳에서 일이 조련치 않았겠습니까.》하고 말하는것이였다.

《누구에게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되는 법이러오.》

정옥은 마치 운전사가 봉서식당으로 새로 파견

되어오는 사람이기라도 한듯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랬으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그렇다. 결코 조련치 않았다. 이 조련치 않은 사업을 이제 누구인가 옮겨맡아가지고 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일이 복잡해지고있는 이때에...)

이것은 그의 량심의 속삭임이었다.

2

비발이 차츰 가늘어져갔다.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자동차는 쾌속으로 달렸다.

이제 5리만 가면 된다.

그런데 전조등불빛속에 우산을 든 한 녀자가 비껴들었다. 윤희였다!

《가만 차를 좀 세워줘요!》

정옥은 이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윤희-!》

《책임자어머니!》

처녀는 어둠속에서 진창물을 텅기는것도 마다 않고 달려오며 반가운 소리를 친다. 윤희는 정옥이가 잠시라도 다른곳을 다녀오는 때면 언제나와 같이 저렇게 기다리며 마중나오군한다. 그때마다 정옥은 그에게서 육친의 정에 가까운 은정을 느끼는것이였다.

《얼마나 고생했나요. 어머니, 난 속이 어찌나 탔는지 몰라요.》

윤희는 막 반가와 발을 동동 구른다.

《혼자서 그 많은 손님을 치르느라 혼이 났지?... 힘들텐데 쉬지 않구...》

정옥이 살뜰한 어조로 말하며 그의 머리수건이며 옷매무시를 매만진다.

《아니 전 일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때문에 무척 근심하셨지요? 혼자서 일을 제대로 치르나 하고...》

정옥은 대답을 못했다. 미구하여 읊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의 환희에 잠겨 이곳 일을 가뭇 잊고있었던것이다. 이 순간 정옥은 어찌면 자기가 이럴수 있었는가 하는 자책감이 가슴한가운데를 찌르며 지나갔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비는 멎고 하늘 한 곳으로 별빛이 보였다.

무슨 생각에 잠겼던 윤희가 갑자기 깨득거리며 웃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정옥은 윤희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글쎄 그 사람들 참 우스워요.》

《누구?...》

《새로 온 지질탐사대원들말예요. 글쎄 절더러 <식당어머니, 식당어머니>하잖아요. 저희들은 뭐

병사이구 우린 병사들의 어머니라나요. 그래 동무들이 무슨 병사냐구 했더니 병사들중에서도 제일 앞장에 선 <척후병>이라는거예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탐사대원들을 <공업의 척후병>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궁지가 이만저만 안예요... 그런데...》

윤희는 웃음을 거두며 신중해졌다.

《...저 탐사대중대장동무 있잖아요?!...》

정옥은 눈이 부리부리한 청년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분이 그러는데 이제는 산에다 자체로 식당을 꾸리고 내려오지 않는대요. 글쎄 남정들이 제대로 밥이나 짓겠는지...》

윤희는 시름에 잠겨 말했다.

《그들이 어련히 잘하지 않으리...》

《그래두 어쩐지...》

그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하고 궁리하고 읊적이지 않으면 못견디는 그런 나이의 열정적인 처녀였다.

자동차가 봉서식당에 도착하여 짐을 부리우고 저녁식사를 마친후 잠자리에 들었을 때 윤희는 아까 근심하던 말을 다시 꺼내는것이였다.

《어머니, 우리 그 동무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자요.》

《글쎄... 어떻게말인가?》

《우리가 범난골에 올라가 부엌세간 꾸리는거랑 밥을 짓고 식찬을 만드느거랑 배워주지요 뭐. <병사의 어머니>답게말예요.》

윤희는 조용히 소리내어 웃었다.

《종두룩 하자꾸나...》

정옥은 어떤 일인지 이날따라 윤희의 기분을 흐리게 하고싶지 않았다.

《야참, 책임자어머니가 제일이야. 호호... 정말 그 동무들이 어머니 요리솜씨를 얼마나 칭찬한줄 아세요... 래일 올라갈 때 특식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이동봉사도 하자요. 그럼 무척 좋아할거예요. 척후병이라고 으시대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요?...》

《애, 간지럽구나, 좀 떨어지렴.》

《호호호...》

《무슨 체네가 원...》

정옥이도 참지 못하고 웃었다. 그러나 그는 그 웃음이 채 사라지기도전에 가슴 한구석에 이상한 촉감이 선뜻 느껴졌으며 그래서 시원히 웃을 수 없었다.

(아, 만일 윤희가 그걸 안다면...?)

정옥은 티없이 깨끗한 이 처녀에게 머지 않아 자기는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사연을 수월히 말할수 없으리라는것으로 하여 마음은 느닷없이 서늘해졌다.

하나 그것은 한순간일따름이였다. 그의 눈앞에

는 오래 헤어졌던 (정옥에게는 홀리간 1년이 퍼
그나 오랜 일로 느껴졌다.) 정든 교장의 현대적인
려관주방에서 손에 익고 몸에 밴 안정되고 원만
한 생활이 현실처럼 선히 떠오르며 끝없는 유혹
으로 한정없이 이끌리는것을 자신도 어쩔수 없었
다.

정옥은 자기도모르는새 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책임자어머니, 이제 우리 식당도 달라져야지
요 뭐, 미리부터 우리 체기도 하고 자체로 하나
하나 넓혀나가자요. 터밭도 더 늘구고 음식가지
수도 다양하게 하구...》

황홀한 미래에 잠긴 처녀의 꿈은 끝이 없을상
싶었다.

창밖에서는 봄비에 불어난 여울물소리가 조용
히 들려오는데 밤렬차의 기적소리가 긴 여운을
끄올며 찾아지고있었다.

정옥은 이날따라 어쩐지 심장이 후들거렸다.
(내야 뭐, 약속대로 일했으니 간다한들 누가 뭇
하랴... 외진 교장에 와서 일도 할만큼 했는
데...)

정옥은 량심을 어루만지며 달래었다.

《어머니, 제 말을 들어요?! 주무세요?》

윤희가 정옥을 건드린다.

《응... 듣는다...》

정옥은 엉겁결에 말을 더듬었다.

《피곤하면 자자요.》

《어째선지 잠이 오지 않누만.》

정옥은 손을 꺼내어 윤희의 차분한 머리술을
만지작거렸다.

《그래요?! 저도 잠이 안와요.》

《그렇지만 자자. 래일은 할 일도 많지...》

《참 그래요!》

그러나 두 녀인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오래
도록 잠들지 못해다.

3

아침안개가 봉서골안에 은빛지붕인양 낮게 드
러워있었다. 봉서식당 주방환기창으로 스며나오
는 흰 김이 안개와 어우러졌다.

봉서식당은 이른아침부터 매우 분주했다. 정옥
이 조리대앞에서 틀지고 세련된 솜씨로 양념을
다지며 익어나는 음식을 살피고 윤희는 두릅이며
원추리 등 햇산나물을 다듬는다. 지질탐사대에
가지고 올라갈 특식을 장만하고있는것이였다.

정옥이와 윤희는 누가 범난골로 이동봉사를 떠
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오래동안 결정을 못
지었다. 정옥은 윤희를 올려보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것은 이 일의 발기자가 윤희였으며 더우
기 봉사대상자들이 청년들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그가 책임자였다.

윤희는 잠시 곱곰히 생각을 굴리고나서 자신이
올라가는것을 단호히 거절해나섰다. 그의 견해
에 의하면 첫 이동봉사이며, 그들의 서툰 자체식
당일을 도와주어야 하는만큼 책임자어머니가 올
라가는것이 웅당한 일이라는것이다. 그들은 한동
안 옥신각신하던 끝에 이다음 이동봉사는 윤희자
신이 도맡아하겠다는 조건부로 하여 끝내 정옥이
자기로 락착을 보았다. 정옥은 봉서골에서의 마
지막 특별봉사로 될지도 모를 이번 기회가 자
기 인상에 대한 좋은 여운으로 될수 있으리라는
속심도 없지 않았던터여서 더 우겨대지 않았다.

그런데 윤희가

《책임자어머니...》하고 불러놓고는 얼굴을 붉히
며 머뭇거리는것이였다.

《왜? 말하렴.》

《저, 어제말예요. 그 동무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누구?... 명호말인가?!》

윤희는 숙인 머리를 그저 까닥했다.

지질조사원 명호는 그들의 단골손님들중에서도
자별한 청년이였다. 항상 목소리 높여 말하기
즐거하는 쾌활한 이 처연은 자기네 《광업지구》
에서 (명호는 범난골을 자칭 이렇게 불렀다.) 내
려오는 때면 시료가 든 돌배낭을 한짐 지고와서
지질학 《강의》를 곧잘 하군했다.

그는 이 지방에서 누구든지 쉽게 주울수 있는
차돌맹이를 그 무슨 2천만년전(명호는 그 시대를
련상시키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동화의 세계를
펼치군하였다.) 중생대 유라기중세시대에 형성된
단층암군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차돌에 커다란 국
가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이였다. 그는 봉서골안에
머지 않아 세계적규모의 광산이 개발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때면 여기에 현대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큰 려관도 식당도 들어앉게 될것이라고 입장 연
설을 늘어놓는것이였다. 그러면 두 녀인은 환상
의 세계에 잠기여 연방 고개방아를 찻는다. 그러
다 정옥이 피륙 현실로 돌아오며는 《랑만가》의
《강의》에 밥이 다 타버린다고 분주탕을 치며 주
방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윤희는 빛나는 눈길로
명호를 넋없이 바라보며 점도록 앉아있다. 하다
가도 윤희는 아주 엉뚱한 질문을 들이대어 이 열
정적인 《강사》를 곤경에 빠뜨리군한다. 정옥은
명호를 바라보는 윤희의 그 눈빛에서 녀성들만이
감축할수 있는 그윽한 그 무엇을 느끼며 속으로
슬며시 웃군했었다.

어쨌든 그들은 명호가 싫지 않았으며 친동기간
처럼 그리워지기까지 하였다.

정옥은 지금도 들썩거리며 웃어대는 그 청년이
금시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만 같았다.

《아마 입맛을 또 젖힌게로구만...》

정옥은 근심스레 허를 찼다.

《글쎄, 그런가봐요.》

《그럼, 명호동무가 좋아하는 메밀국수를 따로 해가지고 가야 하겠구만.》

윤희는 입가에 고요한 미소를 그렸다.

(참 기록한 처녀지, 이런 처녀를 데려가는 청년은 행복할거야... 명호 그녀석이 엄중하거든.)

정옥이 이런 생각을 하며 윤희를 바라보는데 눈길에 마주친 윤희는 어쩔바를 몰라 멈칫거리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정옥은 소중히 간수해두었던 배와 김을 꺼내어 꾸미와 국물을 정성스레 만들었다.

사실 봉서식당 댕면은 정옥의 특이한 요리기술로 하여 린근 주민들까지 일부러 들리곤 한다. 얼마전 탐사대원들과 건설자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던 때의 일이다. 이곳에 들리었던 수염발이 성성한 한 로인은 국수가 어떻게나 별미였던지 그 복세통속에서도 한그릇을 더 먹고 간 일까지 있었다. 물론 이 혼잡속에 정옥이도 윤희도 알리 없었지만 그만큼 댕면소문은 자자했던 것이다. 아무리 입이 발은 명호였지만 이 댕면만은 그릇을 비웠던 것이다.

정옥이 댕면과 식찬들을 담아들고 문을 나섰을 때는 아침안개가 걷히고 봄별이 호듯호듯 내려조이는 한낮이 가까와오고 있었다.

행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가던 정옥은 우뚝 멈춰섰다. 뒤에서 윤희가 소리를 치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비닐통이 들려있었다.

《조금 걸려본건데 맛이 들었겠는지 모르겠어요.》

윤희의 땀배인 얼굴에 맑은 웃음이 함뿍 어리여 있었다.

정옥은 그것이 무엇인지 인차 알았다.

며칠전에 윤희가 제손으로 한번 해본다며 담그었던 탁주였다.

윤희가 고개길까지 바래주었다.

범난골은 그에게 있어서 초행길이었다.

명호네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길안내도 하고 별음식이 생겨 그곳을 몇번 다녀온 윤희가 일일이 가리켜준대로 정옥은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비온 뒤 청신한 숲속과 비탈길을 따라 한동안 걸느라니 땀이 흐르고 다리뭉이 풀렸다.

그러나 정옥은 점심전에 가당으려고 다시 등성이길을 탔다. 그것은 나지막한 동생이었다. 그녀머켄에서는 기계소음이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길가에는 털옷 입고 고개숙인 할미꽃이며 조팝꽃, 제비꽃들이 그의 치마바람에 흔들거리며 향기를 풍기었다. 저멀리 하늘가에서는 목화송이처럼 흰구름이 뭉게지어

피어오른다.

정옥이 등마루에 올라섰다. 범난골이었다! 명호네들의 《광업지구》였다. 잡관목숲이 무성한 넓은 골안이 기계소리로 가득찼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분주히 오고갔다. 한쪽기슭에서는 톱과 도끼로 나무를 베어넘기고 터를 닦고 조립식주택을 세우고 높다란 철탑에 고깔모양의 철판지붕을 씌우고있었다. 골안 아래켄에서는 측량기를 뻗치고 빨대를 움직이고있으며 불도젤들이 아릅드리 나무뿌리를 맹렬히 밀어내고있다.

정옥의 눈길은 한채의 조립식주택에 이르러 멎어섰다. 하늘색 뽕끼칠을 한 그 집은 남향을 하고 아담하게 자리를 잡았다. 판자로 만든 굴뚝에서는 흰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곧두서서 키돋움하고 작은 창문으로 김이 무잇무잇 빠져나오고있다.

(저기가 식당인게로구나!)

정옥은 가벼운 탄성을 울리며 가파로운 내리막길로 쟁걸음을 놓았다.

마당가에서 철봉대를 세우고 구호판을 달던 청년들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부엌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청년이 뛰쳐나왔다. 량팔을 건어붙인 그 청년은 눈이 부리부리한 중대장이었다. 그는 잠시 어리둥절해 섰다가 마침내 정옥을 알아보고 경충 마주 달려오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봉서식당 책임자어머니!》했다.

정옥은 중대장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다. 뜰 김이 뽕얇게 서린 부엌에서 한 청년이 가마뚜껑을 열고 술안을 기웃거리다가 정옥을 보고 《어머니!》하며 엉겨주춤 섰다.

정옥은 명호와 함께 단골손님으로 다니던 낮익은 청년을 보다 그만 반가운 나머지 두손을 불쑥 내밀었다. 하나 가마뚜껑과 밥주걱을 량손에 갈라 진 청년에게는 정옥이 내민 손을 맞잡아줄 빈손이 없었다. 하여 정옥은 그 청년의 손에 들린 밥주걱을 닮음 받아들고 부뚜막앞으로 갔다.

정옥은 식당당번인 그 청년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식찬을 만들었다.

그들은 뜻밖에 나타난 정옥에게 제나름으로 인사를 건니며 식탁앞에 둘러앉았다. 식탁우에는 정옥이 해가지고온 요리들과 여기 와서 만든 음식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어떤 청년들은 늪그릇에 담긴 우유빛 액체속에서 풍겨나는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무어라고 수군거렸다.

눈이 부리부리한 중대장이 익살 담긴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자, 모두들 들기요.》

중대장은 그대로 자리에 앉으려다가 무엇인가 잊은듯이 《가만-》 하며 제지하듯 손을 들었다.

《...그런데 동무들 여기 별미로 차려진 음식상

에 어떤 사연이 깃들었는지 알아야 하겠소... 우리 봉사광산개발자들에게 보내온 봉사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다는것을말이요!》

중대장은 일부러스러운 정중성과 과장되고 무게있는 말을 골라쓰려고 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방안의 공기를 유쾌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누구도 웃지 않았으며 엄숙해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자 중대장은 오히려 어색해서 제먼저 늑그릇의것을 쭈-욱 들이키며 숨막히는 시늉을 해서야 청년들은 술렁대며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청년들이란 밥을 먹으면서도 가만있지 못했다. 그들은 옆사람과 음식맛에 대하여 소곤소곤 이야기기도 했으며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열을 올려말했다. 그런데 유독 한 청년만은 고개를 갸웃하고 밥을 퍼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옥은 철색이 도는 관골이 두드러진 얼굴의 그 청년에게로 시선이 갔다. 검실검실한 눈, 두툼한 입술, 별스레 버록해보이는 귀... 그에게서는 웃음도 부드러운 말도 있을것 같지 않았다. 한데 밥그릇에는 술을 댄듯만한데 국그릇은 어느새 밀창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정옥은 얼른 부엌으로 내려가 국 한그릇을 듬뿍 퍼들고 올라와 그의 빈그릇과 술머시 바꾸어 놓았다.

그러자 청년은 머리를 끄덕하고 히죽이 웃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국을 잘 먹는다고 장차 궁냥이 넓어질게라고 늘쌍 말씀하시군했답니다.》

하며 청년은 고맙다는듯 고개를 다시 한번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방안에는 와-하고 웃음이 터졌다.정옥이도 시름없이 웃었다. 그런데 누구인가 또 《국대장》의 론리가 그럴듯하다고 한수 더 뜨는바람 다시 폭소가 터졌다.

그러거나말거나 청년은 국물을 훌훌 들여마시며 맛있게 먹어댔다.

남보다 먼저 밥을 다 먹은 《국대장》이라고 불리는 청년이 정옥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우리 동무들에게 국 끓이는 방법을 중대쥬요. 먹던중 봉사식당 국맛이 제일입니다.》

정옥은 폭쟁이청년이 어찌도 다감한 어조로 말을 하였던지 군대에 복무하는 아들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이 다 스르르했다.

그는 중대장에게 다가갔다.

《명호는 어찌 안오누만.》

그의 어조는 가뭇 서운했다.

《그 동문 일에 정신이 팔리면 가끔 때식도 잊곤 합니다.》

중대장은 스치는 말로 대답했다.

《그 사람 일하는곳이 먼가?》

정옥은 안심쥬은 눈길로 중대장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명호가 요사이 입맛을 잃었다기에 뽕면을 해왔네. 그 사람은 이것이면 입맛을 돌릴수 있거던...》라고 말했다.

그 말에 중대장은 가슴이 쩡하여 말을 인차 못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우리 동무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시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지질탐사대원들을 조국땅의 금은보화를 찾아내는 나라의 귀중한 척후병들이라고 하시며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여주시는데 우리 지휘관들이 잘 돌봐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중대장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원 별말을 다하누만. 임자들이야 일이 바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일은 우리 봉사일군들이 응당 해야지...》

방안의 청년들이 정옥을 감동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밖에서 누구인가 명호가 온다고 알려주었다. 그 소리에 정옥이 발을 옮기려는데 시료가방을 멘 명호가 《어머니!》하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 예가 어디라구 다 왔어요. 길이랑 험한데...》

《왜 나라구 명호네 <광업지구>에 못온다던가?!》

정옥은 몸매 날씬하고 영민한 눈을 가진 청년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졌다.

명호는 시료가방을 열었다.

《어머니, 이게 바로 <자>광물이라는거예요. 여기서 기계두 나오구 팜크두, 대포두 다 나와요.》

명호는 가방속에서 시료덩이들을 연방 꺼내며 주어쥬었다.

《에그, 이게 뭐 <현지강의>인가?》

정옥이 한걸음 물러서며 두손을 뻗혀 내젓자 중대장과 청년들이 와- 웃었다.

《이담 우리 윤희에게나 그런 강의를 하라구.》

정옥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명호는 그만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뒤더수기를 슬슬 문땀다.

정옥은 부엌으로 나가 국수를 쟁겨가지고 들어왔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제때 해야지. 모두들 걱정하는데...》

정옥이 다소 엄하게 말하며 그의 앞에 국수그릇을 당겨놓아주었다.

《자, 어서 들라구, 풀어쥬겠네...》

저가락을 든 명호는 먹을 생각은 앓고 눈시를

만 슬쩍거렸다.

《어머니, 이젠 올라오지 마세요. 이 먼텔... 이제부터 국수생각이 나면 제가 내려가요...》

언제나 쾌활하고 명랑한 이 청년의 음성은 어느때없이 축축히 젖어있었다.

정옥은 그 말은 듣지 못하듯 슬며시 돌아섰다.

목갈린 명호의 음성이 가슴에 뜨거이 안겨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우리 동무들이 이 범난골에 국영식당을 멋지게 짓자고 한답니다. 모두들 어머니 음식에 반한 모양입니다.》

중대장이 이렇게 말하자 청년들이 그렇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했으나 정옥은 그 말이 그저 웃음의 말로만 들리지 않았다.

한생을 봉사부문에서 일해오며 손님들에게서 수많은 인사말을 들어온 정옥이었지만 무슨 까닭인지 오늘 범난골에서 그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은 류달리 그의 가슴을 후텁게 하여주며 깊은 인정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이날 정옥은 그들의 식당살림 꾸리는 일을 도와주며 하루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후에 그곳을 떠났다.

중대장도 탐사대청년들도 무도 떠나나서며 배웅했다.

명호는 먼길까지 그를 바랬다.

고개를 두고나 넘어 걸었건만 정옥은 지금도 명호가 높은 고개마루에 이윽도록 서서 모자를 흔들고있을것만 같아 자주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곤 했다. 그가 가지고왔던 음식그릇에는 쫓고사리가 무득히 담겨있었다. 명호네들이 산중에서 꺾어보낸 것이었다.

정옥은 그들이 일하는 《광업지구》가 멀어질수록 그곳에서 보낸 이들동안의 생활이 자꾸만 눈앞에 삼삼히 안겨왔다.

눈이 부리부리한 중대장은 마치 정옥을 자기의 탐사대에 찾아온 귀중한 첫 손님이기라도 한 것처럼 작업장마다 빠짐없이 구경시켜주고 앞으로의 탐사전망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정옥은 그들의 광만이 결코 먼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그날저녁 그들의 예술소조공연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넓은 무대도 눈부신 조명도 아니었으나 희망과 열정에 넘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며 결의를 다지는 그들의 어조와 눈빛 속에서 정옥은 앞당겨지는 조국의 미래를 보았다. 그는 한 청년이 그를 축하하여 노래를 부르고 싱싱한 생화꽃뭉음을 안겨주었을 때 향기 그윽한 그 꽃다발처럼 청춘이 되돌아오고 그들과 더불어 더운 땀을 흘리고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웃고 떠들며 살고싶은 충동마저 느꼈었다.

이런 흥분속에 고개길과 비탈길을 내려오는 정

옥은 이제 이 길도 넓어지고 포장도로도 닦아지리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냥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넓고 곧은 포장도로로 열바퀴 자동차들이 질쭉한 검은 연기를 피워올리며 엇바뀌어 지나갈 것이며 배낭을 멘 청년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이 길을 메우리라, 여기저기에 천막이 설치되고 푸른 하늘로 폭연이 솟구쳐오를 것이며 예술인들을 태운 버스와 방송차들이 태고연한 산촌의 여울물소리를 삼겨버리며 달려오리라! 아이들의 예술공연대, 지원물자를 실은 자동차들, 북소리나팔소리...

아무리 그들이 바쁜 길이로서니 우리 봉사식당을 그저 지나칠수야 없지... 아무렴, 봉사샘물의 랭면국수로 더운 가슴을 식히며 우리와 정답게 인사도 나누어야지... 정옥은 명호와 나란히 출근길에 오른 윤희의 삶에, 행복에 넘친 모습도 그려본다... 아, 그들의 미래는 얼마나 찬란하고 우리의 생활은 또 얼마나 휘황할 것인가!

정옥은 환희의 감정에 휩싸여 젊은 사람들처럼 활기있게 명랑한 걸음으로 걷고 또 걸었다.

4

이들동안 떨어져있었다가 다시 찾아오는 봉사식당은 정옥에게 정든 집인양 다정하고 친근했다.

정결한 마당가 처마낮은 산기슭의 오붓한 작은 집... 이제 윤희가 소리치며 뛰어나오며 반겨맞으리. 정옥은 소녀마냥 가슴이 도근거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마당가에 들어서면서부터

《윤희-!》 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랬으나 집안에는 아무 응답도 없었다. 윤희는 주방안에도 있지 않았다. 그런데 식당방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정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안에는 웬 낮모를 수염발이 성성한 로인과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윤희가 마주앉아있었다.

그전같으면 손뼉을 치며 안길듯 달려올 윤희런만 어인 영문인지 자리에서 일어났을뿐 눈길을 피하려 했다. 그리고 그의 귀바퀴는 발깃해지고 입술조차 가늘게 떨고있는 듯싶었다.

《식당어머니가 오누만.》

로인은 젊은이들처럼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반색을 한다.

《...지난 여름에 이 봉사식당에서 랭면을 잘먹고 간 늙은이외다.》

《예- 그렇습니까.》

정옥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내 그때 럽치불구하고 랭면 두그릇을 먹었었지요. 어떻게나 감칠맛이 있었는지... 헌데, 한가

지 청이 있어 왔지요.》

이러며 로인은 윤희를 힐끔 바라본다.

《할아버지, 딱하시게 그러지 마세요. 글썄 사정
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윤희편에서 애원한다.

《허, 이런, 좌우간 말이라도 해봐야지... 글썄
올여름에 우리 막내손자녀석이 장가를 간다오.
에... 제대되었지요.》

로인은 성성한 수염발을 대견스레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다.

《내 무릎우에서 자란 녀석인데 잔치를 허슬히
할수 있어야지. 그래 그날 우리 고장사람들에게
이 봉서식당 땡면을 한그릇씩 대접하고싶은 생각
이 있어 이렇게 찾아온건데 글썄...》

로인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며 윤희를 다시 바
라보는데 처녀는 고개를 꺾며 주방으로 쏘르르
나가버리는것이였다.

로인은 매우 난처하고 어쭙은 기색으로 입언저
리를 슬슬 문대고섰다.

《그때문인가요? 할아버지, 넘려 마시고 돌아가
세요. 그때 가서 미리 알려주세요.》

정옥은 오래 생각지 않고 로인의 청을 선선히
들어주었다.

의외로 순조롭게 뜻을 이룬 로인은 고마움을
거듭 표시하면서 돌아갔다.

정옥은 로인을 보내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윤희는 부뚜막에 몸을 기대고 오도카니
서있었다. 그는 명호가 보내더라는 꾀고사리를
내보일 때도 범난골이 평장하더라는 정옥이의 놀
라움에도 그 자세를 허트리지 않고 가늘게 어깨
숨을 내쉴뿐이였다.

《무슨 일이야, 윤희...》

정옥은 이때까지 함께 살아오며 아무리 어렵고
기분상할 때도 이래본적이 없는 윤희를 더욱 이
상스레 생각했다. 필경 그럴 때는 무슨 말못할
곡절이라도 있는것이 아닌가? 그 곡절이란 도대
체 무엇일까?

정옥은 무엇인지 모를 그러나 착하고 어진 처
녀를 저처럼 속태우는 사연을 함께 고민하고 위
로하여주고싶었다.

그는 윤희에게 다가갔다.

윤희는 초들초들 말라드는 입술을 감뻘며 눈을
들지 못한채 고르롭지 못한 숨결소리를 내고있
었다. 한동안 그러고 섰던 그는 토막진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어머니... 일없어요. 아무런 일도 없어요. 여
기... 우리 일은... 걱정 말아요...》

(무슨 말인가? 여기, 윤희네 일이라니...)

정옥은 한순간 가슴이 철렁해지며 갑자기 눈길
을 어느곳에 두어야 할는지 몰라 방황했다. 정옥
은 깨달은것이였다. 윤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자신의 약해지려는 마음을 지택하려고
얼마나 애쓰고있는가를.

그런데 어떻게 되어 정옥이자신은 범난골에서
도, 로인을 만났어도 그것을 가뭇 잊고있었던말
인가?... 모름지기 지금쯤은 회의에서 돌아온 지
배인이 자기를 기쁜 마음으로 소환할 실무적대책
을 비준하고있을는지 누가 알겠는가?... 한데 윤
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옥은 한꺼번에 몰려드는 천만가지 생각에 쫓
기며 허둥거렸다.

《운전사청년이 뭐라고 말하던?》

정옥은 저으기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간 윤희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더니 바깥
에 발을 걸채이며 밖으로 뛰쳐나가버렸다.

정옥은 홀로 정적이 깃든 주방에 맥없이 서있
었다.

그렇다, 나는 오래지 않아 떠날 사람이며 윤희
는 그것을 알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처
럼 열정에 넘치며 봉서골의 미래에 살며 황홀한
꿈을 자기와 련결시켜 펼쳐나가던 저 순진하고
정열적인 처녀의 가슴에 무엇을, 어떤 그늘을 던
져주었는가... 처녀는 자기가 속았다는것으로 하
여 몹시도 서운하고 분해하리라. 옳다. 나는 어제
밤, 아니 봉서에서의 1 년간이나 그를 기만하고
살아왔다. 고적하고 답답할 때마다 나는 몰래 지
루한 날들을 세여보며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을
야속하게 원망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정옥은 무거워진 머리를 천천히 들었다. 주방
의 살림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어디를 보나 알뜰
한 솜씨가 깃들고 정성이 숨배여있다. 윤희와 손
을 맞잡고 없는 살림을 장만하느라고 때로는 밤
도 지새웠으며 때로는 손에 선 목공도구를 잡고
하나하나 꾸려나갔다. 어렵고 고심에 찬 나날들
이였다. 허지만 그 생활에는 윤희가 있었다. 그래
서 즐거움도 기쁨도 희망도 있었것이 아니었던
가!

정옥은 스프르 눈을 내려감았다. 며칠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엇갈려 눈앞을 스친다.

...역수로 내리는 비발, 어둡속을 달리는 자동
차, 축축히 젖은 몸, 하냥 웃으며 말하며 꿈을 키
우는 윤희의 밝은 얼굴, 수염발이 성성한 로인의
고마와하는 표정...

범난골의 전경들이 언뜻언뜻 눈앞을 스친다...
불도젤의 동음, 시추기의 와르릉소리, 국수그릇
앞에서 목메여 울먹이는 명호, 중대장, 청년들,
그들의 노래소리...

정옥은 한정없이 번거로와지는 마음을 진정하
려고 애쓰며 모대긴다.

조용히 문 여는 소리, 윤희가 들어왔다. 그는
정옥에게 가만히 다가와 그의 손을 살그니 잡았
다. 그리고 부드러운 그러나 떨리는 음성으로 말

했다.

《어머니… 떠나요. 제가 그만 단순히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더 크고 훌륭한곳에서 일하셔야 해요. 여기는 제가 있잖아요. 저를 믿어요…》

윤희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며칠이 지났다.

정옥은 군급양관리소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읍에 도착했다. 외진 골안에 가있는 1년동안 읍거리는 모든것이 변모되었다. 정옥은 새로 선 거리중심에 자리잡은 영업을 갖 시작한 국수집이며 잊을수 없는 옛추억을 간직한 군려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속에 걸었다. 거리를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혹은 악수로 그를 반긴다. 낯익은 옛 손님들도 있다.

급양관리소 지배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옥은 그의 앞에 정색해 앉았다. 그리고 사업정형을 보고해나갔다.

해별에 타고 거칠어진 정옥의 얼굴을 눈여겨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던 지배인은

《참, 그간 고생도 많았고 일도 많이 했소.》

하며 연신 고개를 주억거렸다.

《정옥동무, 이제 그만 돌아와야겠소!》

정옥은 머리를 들었다.

《지배인동지…》

정옥은 지배인의 말을 조심히 멈추며 다소곳이 일어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옥은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푸른 하늘이 비낀 창문으로 햇빛에 은백색으로 반사된 한송이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있었다. 정옥의 마음은 흘러가는 저 구름따라 어데론가로 느닷없이 이끌려갔다. 산너머 구름너머 외진 골안의 자그마한 식당에서는 지금도 한 처녀가 주방안을 드바빠 돌아가며 일하고있을것이였다. 윤희의 그 모습, 어서 떠나라고, 이곳은 녀려 말라고 이슬맺힌 눈으로 속삭이던 처녀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 마음이 정옥의 가슴속으로 시원한 샘물처럼 흘러들었다. 정옥은 문득 범상한 국수 한그릇의 봉사를 오래도록 잊지 않고 자기 집 경사에까지 청하여주던 진정에 넘친 로인의 소박한 얼굴이며 수없이 오고간 손님들의 감사에 넘친 모습들이 눈앞에 삼삼히 밟혀온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 곳에 두고 깊은 외진 골안에 와서 일하는 탐사대 청년들의 기대에 찬 눈길들이 창문으로 쏠려드는 듯싶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의 결을 떠날수 있단 말인가.

이 짧은 순간 정옥은 1년전 자기가 이 자리에서 새 임무를 받고 봉서로 떠날 때 서운했던 그

때 일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놀랍게 생각했다. 한것은 단순히 봉서골안의 정든 사람들과 고장을 떠나기 아쉬운감정만이 아니었던 까닭이였다. 이제 머지 않아 명호네들은 골안에 차고넘친 모든 거창한 소음을 걷어가지고 새로운 탐사지로 떠날 것이며 그곳은 다시 여울물소리와 밤기차의 기적소리가 정적을 흔드는 한적한 고장으로 될것이다.

그때엔 윤희마저 그의 결에 없을수도 있으리… 다시금 낯선 손님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밀려들어 자기네의 《새 질서》를 완강히 요구할것이다. 그러면 봉서식당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밥을 지어내고 료리를 하며 성실하게 시중을 들것이다. 정옥은 그 자리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생각한다는것은 배신이며 수치로 여기기까지 했다.

《지배인동지, 윤희동무는 훌륭한 일군입니다.》

《그래서 정옥동무를 마음놓고 부를수 있는게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도 정옥동무의 수고가 많았소.》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윤희동무에게서 많이 배웠을뿐입니다.》

정옥은 조금 성급히 말을 더듬으며 계속했다.

《지배인동지, 저를 봉서식당으로 아니 범난골에 남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요?》

지배인은 눈이 커졌다.

《1년간의 사업과 생활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봉사일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두를 뎌 정옥은 봉서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나갔다. 그것은 수자와 사실 속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체험과정을 거쳐 비로소 깨닫게 된 한 봉사일군의 량심의 총화였다.

《지배인동지, 허락해주세요. 제가 뒤늦게나마 찾은 자기의 위치에 부끄럼없이 서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윽고 지배인은 정옥이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열정에 넘친 그의 눈길을 바라보며 손을 잡아 오래도록 흔들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있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몰라보게 변화된 한 인간, 상업전사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보며 지배인은 몹시 흥분하였다.

이튿날.

최정옥은 새로운 포부와 젊어진 마음을 안고 범난골로 떠났다. 봉서식당 마당가에서는 윤희가 정옥을 태운 탐사대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조국을 안겨주시다 외 1편

조성관

정원에서는 전나무잎새
가을바람에 설레이고
방안에서는 한 투사의 딸이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있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울라고 타이르시는
아버이수령님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히고있었다

하나 둘 창가에 내려앉은 별빛
곡절 만던 마흔해 긴 세월의 이야기로
시간은 얼마나 흘렀던가
상봉의 기쁨 걱정의 눈물도 한고비 잦아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나는가고
아버지의 생일이나 알고있는가고-

젖품에 안긴 어린 딸에게
이름 석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투사
수령님의 추억을 따라 기억을 따라
아버지의 모습 처음으로 그려보는 딸이거니
그 무슨 대답을 올릴수 있으랴
방안에는 황송한 침묵만이 흐르고있었다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며
수령님께서 생각에 잠기고계셨다
노상 말이 없어 말이 적어
입이 무겁던 전사
그러나 우등불 타오르는 속영의 밤이면
고향에 두고온 단 하나의 혈육
머리한번 쓸어주지 못한 딸을 두고
그리도 무겁던 말문이 열려 웃음이 벅글던
그의 모습 오늘에 다시 그려보시며...

창너머 먼 별하늘을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 생각에 잠기고계셨다
눈바람 사납던 혈전의 길에
얼굴에 젖어드는 눈발을 씻어주시며
손수 눈을 감기셨던 전사,
조국이 바라보이는곳에 얼굴을 돌려달라던
그의 소원을 오늘에 다시 회상하시며...

부모처자 다 버리고 오로지
조국의 해방 위해 한목숨 바친 전사
피흘려 싸우며 바라던
사회주의 오늘에로 함께 오지 못한 전사를 두고
수령님의 가슴은 저미는듯 아프시였다
물기에 젖어 갈리신 아버지수령님의 목소리
소리없이 흐르던 침묵을 흔들었다
-아버지의 생일을
9월 9일로 하자!...

명절의 축포여
창창한 하늘높이 터져오르라
풍요한 대지여
황금의 갈기 날리며 파도쳐오라
환호여 노래여
락원의 이 강산에 울려퍼지라
조국의 생일
오늘의 전사의 생일을 축하하여...

아, 전사에게 조국을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목이 메여
정원의 전나무잎새 설레이 설레이고
조국도 함께 흐느껴울었다
세상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 이름
-아버지!
소리쳐부르며 수령님의 품에 안긴
딸의 흐느낌소리 더욱 높아만갔다

세전사

세월은 흘렀구나
첫 당원증 가슴에 지니던
갓스몰나이 어제같은데
말이에 이어 오늘은 또 둘째
전연초소에서 입당의 소식 전해왔으니

지나온 나날 길었던가 짧았던가

푸름히 밝아오는 토지개혁의 동쪽길을 이어
곳은 비에 진탕물 무릎을 치던 전선길이어
눈이 아리던 복구건설의 재더미를 넘어
오늘에로 굵이쳐온 투쟁의 나날이어

되돌아보면 우리 가고 온 길
삼천리를 돌고도 남았으련만

준엄한 투쟁의 길은 상기 앞에 있거니
누를수 없는 혁명의 자각이
대를 이어 당대렬에 나란히 섰다

불타오르자
세 심장 하나로 불타오르자
하나의 맹세 하나의 결정속에 살아숨쉴
투쟁의 한생을
당에 바쳐 혁명에 바쳐

불바람 몰아치는
그 어느 초소 그 어느 전구에서
우리 서로 만나도
그 언제나 땀땀이 머리 들수 있도록

그 언제나 땀땀이 마주볼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삼부자
혈육의 정으로만 이어진게 아니다
피줄보다 짙은 혁명동지로 맺어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의 당원
조선혁명의 전초선에 나란히 선 세전사

머리에는 흰서리 비끼였어도
피 식을줄 모르는 젊음이 뚫어넘치나니
타오르는 불길에 덧놓이는 불씨와도 같이
집안에 늘어난 두 당원으로 하여
당원으로 자라난 두 아들로 하여

기쁨

권강일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또 한달
쇠물을 뚫으며 즐기치게 달려온
우리 공장에
우리 도시에

수령님께서 불러주시였다
앞서가는 자랑찬 대오속에
영광의 첫자리에
우리 공장 이름을
이 철의 도시를

아, 목메어 터져오르는 감격이어
출근빠스는 그 감격에
열풍을 안고 달리고
평로의 굴뚝들은
아침해빛에 머리를 쳐들며
환희의 불꽃보라를 뿜어날린다

하루에 그 몇번 쇠돌이 폭포쳐도
보안경을 울리지 않던 우리 로장
웃으며 떠들며 걸어간다
하늘길을 달리며 눈빛 엄하던
천정기증기공이 내 손을 잡아흔든다

아, 쇠물을 더 많이 뽑자고
이달 계획을 어서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를 드리자고
불보라속에 함께 달리던 마음들이여

로심을 살피며 시간을 당기며
우리 마음 언제 한번 로걸을 떠났던가

출장의 노을이 지기도전에
서둘러 또 로안으로 장입기를 불러들이는
우리의 가슴에서도 쇠물이 뚫였다

흘러가는 날자를 쇠물로 새겨보며
말없이 허리춤에서 숨장갑을 뿜아들던
그 푸릿한 아침들이 오늘로 왔구나
구내차의 기적소리도 그 감격을 웨친다
월계획을 말하던
지배인의 목소리로,
산소직장친구들의 웃음소리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나의 공장
나의 거리여
한마음으로 뚫으며 한길을 왔기에
이렇듯 한 기쁨속에 웃는것인가

그이께 우리 기쁨을 드릴 때
그이께선 그 기쁨을
더 큰 영광으로 표창으로 안겨주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나날
이렇게 로동이 보람으로 되는 내 조국

한달 또 한달
기쁨으로 이어지는 또 한달
이렇게 가는 우리 앞길에
7개년의 봉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마주오는가

아, 걸음도 재우쳐지는
새달의 첫걸음이다

미래에 보내시는 사랑

김희종

류월의 한낮
정방산 유원지를 거니시는 어버이수령님
한그루 꽃나무에 걸음 멈추시여라
정갈한 나무모양
목메이는 향기
연분홍 꽃송이들에는 무지개 어린듯...

바라보시고 다시 바라보시더니
기쁘시여 원예사에게 이야기하시여라
-이 꽃나무가 야합수구만...
참 좋은 정원수요
많이 키워 온 나라에 보냅시다

온 땅에 넘쳐흐르는 축복을
혼자서 다 받아안는듯
그날부터 원예사 꽃나무들을 가꾸었어라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어버이수령님의 이쁨을 새겨보며

일손이 홍이 나 코노래도 흥얼흥얼...
해마다 깊이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
다섯해를 맞던
어느 좋은 봄날
급하게 달려온 자동차 한대
낮설은 군관동무 차에서 내리더니
-정방산의 원예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군관동무 나를 어떻게?
놀라움에 당황한듯
전정 가위질을 멈춘다
-내가 여기 원예사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으십니다
로인님이 야합수를 잘 가꾸더라고요
꽃나무 떠나지고 오라십니다

소원을 풀 때로다!
로인은 가슴 울렁이며 꽃나무들을 뜯다
다섯해전에 다녀가신 우리 수령님
다섯해를 흘려온 이날에도 찾아주시니
이 나무들 어김없이
수령님의 정원에 심을 나무...

자동차 떠난다, 수도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며 수령님의 정원에 들어서자

해빛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이께서 마주 걸어나오신다.
-오시기 수고했소!
이 아침에도 정원을 걸으며
나는 이 꽃나무를 생각했소...

소용도는 감격의 열풍
설레이며 부풀어오르는 가슴
원예사는 나무 심을 자리를 골라본다
어디가 제일 좋을가?
수령님 나드시는 정문에
수령님 쉬시는 못가에

-수령님! 이 꽃나무를
저택의 창문가에 세웠으면 합니다

로인의 청을 들으시며
한동안 말쑥이 없으시는 수령님
그이께서는 정원의 어디바루에
자리를 고르실가
이제나저제나 심을 때를 기다리며
초조히 가슴 태우는데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정원너머 멀리 바라보시여라
-아니요... 이 꽃나무들을
어제 다녀온 방직공장 유치원에 보냅시다
침엽수가 많은 그 마당에
일새 좋은 이 나무를 심어주면
얼마나 어울리고 빛이 나겠소!

원예사의 두볼이 눈물에 젖는다
고운 비단천을 보시여도
먼저 아이들의 생각
과원의 사과나무를 보시여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알수를 헤아려보시는
다함없는 어버이 그 사랑...

유치원의 창문가에
꽃나무들은 뿌리를 내리웠어라
아이들은 나라의 《왕》
아이들을 혁명의 미래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해와 함께 길이길이 꽃을 피우며...

청춘, 그 이름 빛내며

김병두

청춘이여! 청춘이여!
바다같은 랑만의 노래는
너의것
산악같이 치솟는 빼기는
너의것

새들이 푸른 하늘에 날고
꽃들이 만발한 이 나날에
해빛처럼 공기처럼 차례지는 행복의 열매를
생각없이 받아안으며
어깨 가벼이 산다면
어찌 청춘이라 말하라

강물을 막아
구름길에 솟는 언제공사장에서
진동기를 잡고
폭우속에 한밤을 새우며
청춘이여! 너는 생각하지 않았던가
백두의 설한풍 헤치던 투사들처럼
한몸 바쳐 충성의 길 걸을것을...

서리발 총창 든 초소에서
새벽이슬에 함초롬히 젖으며,
지심 깊은 막장에서
착암대차로 압축을 밀어가며
청춘이여! 너는 생각하지 않았던가
조국의 한치땅과 청춘을 바꾼
영웅전사들의 고귀한 념원대로 살것을...

걸음마다
선렬들의 피줄기를 이어

그 모든것을 심장으로 깨우쳤기에
청춘!
네 힘은 강하고
너는 미래로 빛나거니

꿈 많은 너의 눈동자에 비껴
세쪽의 붉은 기발은 저 하늘에 펄럭이고
젊은 너의 어깨에 떠받들려
무수한 창조물은 이 땅에 솟아나라
하늘이 들리고
땅이 꺼지도록!

청춘이여! 청춘이여!
조국앞에 서야 할 자리
가슴깊이 자각하며
네 만일 값있게 살지 못한다면
나이가 젊었다고
어찌 사람들앞에서 너를 청춘이라 말하라

당이 바라는 그 지점에
무진장한 힘과 지혜를 바쳐
충성의 발자국 찍어갈 때
참다운 행복도 영광도
청춘아! 너의 이름으로 되여라

당이 부르는곳에
청춘, 그 이름 돌격의 함성같이 울린다
당이 부르는곳에
청춘, 그 이름 빛내며
조국과 더불어
너는 영원히 젊어산다!

네가 것처럼 아름다운것은

허성훈

달리는 차창가에 마주앉은 처녀는
속도전청년돌격대원동무
첫눈에도 정이 들어
그 무슨 이야기건 더 나누고싶구나
내 집 작은누이와도 같아

낮은 언덕을 안고도는 렬차
소나무 푸른산굽이를 지나자
그 누가 차창가에서 기다리는듯
맑은 창유리를 다시 닦으며
한떨기 꽃처럼 웃어반기는 처녀야

함께 보자, 나도 함께 보자
여기가 너의 고향이라지
나라의 동맥에 새 구간을 늘어놓고
이제 다시 새 건설장으로 달리며
차창밖으로 스쳐지나는
살구꽃 하얀 저 버들마을이
정든 너의 고향이라지?

부르면 금시 어머니 달려나오실 트락이
즐겁게 뛰놀던 미루나무 줄져선 학교길이
너를 맞아 더 아름다와진 모든것이
자랑 많은 너의 품으로 달려오누나

혜불을 추켜들고 침목을 피여간
그날의 걱정이 가슴에 끓어
더욱 큰 이 순간의 기쁨,
위훈을 안고가는 그 차창너머로
어릴적 네 꿈이 어린 고향산천이
마주오며 따라오며 흘러드누나

정다운 그 모든것이 멀어져가도
새 건설장에 승리의 테프를 끓을
조국의 래일이 더 가까와와서나
네 웃음소리 더 맑아지누나

들끓는 강철지구와 사택마을을 지나
풍요한 함주벌을 굽이돌며
달리는 차창가에서
한나절을 함께 가는 수수한 처녀
네가 그리도 아름다운것은

또다시 한구간 전기화된 철길우에
꽃보라 날리며 첫 렬차를 떠나보낼
그 기쁨이 어리어
어머니도 고향도 뒤에 두고
수령님 부르시는곳
위훈이 기다리는 어렵고 힘든곳을 찾아 달리는
처녀야, 가룩한 네 마음이 아름답구나

고향길에서

리선을

여기가 내 고향이란말이나
왜놈에게 끌려가는 나를 잡고
가지 말라 눈물로만 불러세우던
그 험벗고 가난하던곳이...

고향아!

내가 왔다
멀리로 끌려갈수록 더욱
가까이만 따라서던 정든 산천아!

내가 왔다!

현해탄 건너 그 험한 세월
갇은 천대와 굴욕의 한끝에서
오늘은 조국방문단
이 나라의 의젓한 아들이 되어서...

오, 저그 느티나무아래에
차를 세워 나를 견게 해다오
왜놈의 발굽아래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며 끌려가던 고향땅을
오늘은 내 발로 들어서게 해다오

여기 내가 살던 작은 집
병든 어머니 날 찾아 불러들이던
그 오막살이 초가집은 어디
애어린 내 어깨에 가대기를 메고
욕되게 일구어가던 그 땀기발들은 어디

없다!

그 험벗고 가난하던 모든것은...

저기 호합진 벼단을 산같이 싣고
운전수처녀 꽃같은 얼굴 차창에 비끼며 가는
저 넓은 길이 어찌
내 어릴적 풀단 메고 맨발로 오가던
그 길이라고 말할수 있단말이나

아, 그 옛날 나를 잡고 울며 보내던 언덕이여
나는 어찌하여 오래도록 서있어야 하느냐
이 험한 산촌에까지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를
눈물 없이야 어찌 받아안을수 있단말이나

고향아!

나를 낳아준 어머니품아
왜놈에게 끌려가던 그날엔
주고싶어도 줄것이 없어
눈물로만 나를 보내던 땅아

돌아온 이날엔 수령님 해빛아래
락원의 창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들관마다 살진 이삭들을 흔들며
기쁨에 겨워 나를 안아주누나

우노라

내 집떠나던 그날엔
끌려가는 나를 잡고 울던 고향땅
오늘은 그 땅을 안고 내가 우노라
아, 이 세상 다시없는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수령님의 그 은덕에 목이 메여서
내가 우노라!

산정의 새 세대들

김정남

이른아침 로천채굴장으로 떠나는 자동차들이 짙은 안개가 깔려있는 정류소로 마치 대렬차처럼 꼬리를 물고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첫번째로 들어선 자동차운전칸에는 주태수경장이 앉아있었다. 운전사령이 《출발!》명령을 주려고 푸른 기발을 쳐든 그때에 한 처녀가 달려오고있었다. 주태수의 딸 주선화다. 머리를 앞으로 기울일사하고 달려오는 처녀의 부드럽고 균형잡힌 몸에서는 우아하고 활동적인 탄력이 넘쳐났다. 그의 걸음새며 부채살같은 속눈썹아래 정기있는 눈과 피어나는 꽃잎인양 도름한 웃임술이 들릴사한 처녀의 예쁜 얼굴은 생기가 넘쳐났다. 주선화는 수수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서도 어딘가 매력에 느껴지는 처녀였다. 가정에서는 그 딸로 하여 웃음이 있었고 그 딸로 하여 생활의 보람이 있는듯싶었다. 그 딸은 일도 잘했지만 탄광예술소조의 독창가수였다.

《선화언니 이쪽으로 오르세요.》

자동차로 오르는 선화의 손을 운전공처녀들이 잡아주었다.

《이쪽 가운데자리로 오시오.》

제대군인들이 별로 친절스럽게 길을 드리여주며 선화에게 자리를 권했다.

주태수는 동그란 후사경안에 얼른거리는, 제대군인들이 선화에게 보내는 눈길을 무심히 스쳐버릴수 없었다.

(올해는 시집을 보내야겠어. 처녀나이 25살이면 시집을 갈 때도 됐지...)

하긴 선화의 장래문제는 이미전부터 함흥처남이 제가 말아하겠노라고 장담해나섰다.

선화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처남은 선화를 함흥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던것이다.

주태수는 차가 움직이자 차창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산허리를 휘감은 안개의 장막은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망망한 바다처럼 늪실거리며 흘러가고 있다. 산봉우리들은 마치 수평선우에 솟아있는 섬같이 보인다.

어느덧 산정길을 숨가쁘게 뚫아오른 자동차는 굴착기, 불도젤, 대형자동차, 착정기들이 출전의 시각을 앞둔 기계화부대처럼 대형을 지어있는 산릉선 운동장옆을 지나 박토계단쪽으로 쏜살같이 내달리었다.

운전칸 지붕을 팡팡 두드리는 소리에 화뜰 놀란 주태수는 누구인가 적재함우에서 떨어지는것을 후사경으로 알아보았다. 주태수는 웬일인가 해서 뺑-급정거를 하는 자동차문을 열고 바라보

았다. 명호였다. 명호는 땅우에서 솟아나듯 벌떡 일어서더니 앙금질로 몇걸음 뛰어가다가 재빨리 두다리를 옮겨딘다. 버럭부림터로 달려간 명호는 단발머리 신호공처녀의 앞을 막아선다.

《신호공동무, 동무 눈엔 저 나무들이 보이지 않소?》

명호가 내려다보는 골짜기아래 소나무들과 잣나무들이 서있는 산비탈로 구울러내린 버럭덩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아이참, 그럼 어떻게 해요. 버럭차들이 자꾸만 밀려드는데...》

신호공처녀는 새공지같은 머리를 매만지며 울가망이 되어 애원하듯 말한다.

《불도젤을 불러서 저쪽을 쪽 밀어내고 버럭을 부리면 되지않소.》

그제서야 신호공은 자기의 실책을 느낀 모양 파리처럼 빨강게 익은 얼굴을 숙이고 불도젤을 부르러 쿵쿵 뛰여간다.

명호를 지켜보는 주태수는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아무튼 씨가 먹었거던!)

그런데 이때 선화가 명호쪽으로 다가갔다.

《나무가 많이 상했어요?》

처녀의 걱정실린 목소리에 명호는 머리를 돌리었다.

문득 주태수의 눈앞으로는 지난해 초겨울 산정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중부내륙고산지대의 한여름철은 더 말할것도 없었지만 초겨울 날씨도 번덕이 심한편이었다. 로천채굴장에서는 낮이 되면 녹아내리다가 밤이 오면 얼어붙는 이때를 《소빙하기》라고 부른다. 박토계단이 무시로 내려앉는가 하면 자동차들은 길우에서 몽개며 얼음버께가 박힌 흙덩어리를 뿌려친다.

주태수는 사태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자동차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해가 산정으로 뉘엿이 기우는 석양무렵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쌀랑한 바람이 길가의 앙상한 나무가지에 매달려있는 메마른 나무잎들을 흔들어놓고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주태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오늘날 혁신경에 왔던 선화가 한 제대군인과 함께 사태난곳에서 석축을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땅이 녹으면서 사태진 모양인데 큰 사태는 아니여서 길은 막히지 않았다. 부스럭돌맹이들과 검붉은 흙이 밀려내린 가덕에는 자동차바퀴가 찍

혀있었다. 맨손으로 얼음장같이 찬 돌맹이들을 날라다 석축을 하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본 주태수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들곁에 다가섰다.

《수고들 했구만! 제대군인동무는 우리 갯에 배치돼서 안전교양을 받고있는 동무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명호라고 합니다.》

《훌륭한 일을 했소! 그런데 맨손으로 정말 수고했소!》

《저야 단련된 손인데 뭐랍니까. 이 처녀동무가 그만두라는데도 자꾸만 우기더니 손을 얼구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참, 이 동무가...》

선화는 상그레 웃으며 속눈썹을 내려깔았다.

그때부터 주태수는 포병제대군인 명호를 훌륭한 청년으로 점찍어두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명호는 일을 제낄 때는 무섭게 내밀었고 기술혁신에서도 앞장이었다.

이런 생각을 더듬는 주태수는 탄전을 사랑하는 명호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없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것만 같았다.

주태수는 버럭부림터쪽에 시선을 던지였다. 신평공처녀가 불도젤을 이끌고오는 저쪽으로 명호와 선화가 걸어가고있었다.

순간 주태수의 철색 얼굴에 커다란 의문이 비끼며 술진 눈썹이 일어섰다.

이날 주태수가 집으로 돌아온것은 탄광마을에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때였다.

(늘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가?!)...

주태수네 집은 탄광문화회관 뒤언덕마을 단층집이었다. 여러번 새집이 차례졌지만 그때마다 주태수는 새살람을 꾸리는 동무들에게 양보를 했다. 주태수는 이제 딸마저 시집을 가면 로친네하고 단둘이 살겠는데 너랑찬한 집은 해서 무엇하겠는가고 했다. 주태수가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부엌문이 방싯 열리더니 행주치마를 두른 안해 분녀가 여느때 없이 가분가분 걸어나오며 가방을 받아준다.

《에그, 이렇게 무더운 날씨는... 목물을 끼얹지 않으시려우?》

《방금 갯에서 목욕을 했는데 세수나 하지.》

추리, 복숭아나무가 가지를 드리운 마당가에는 수도가 놓였는데 돌레에 타일을 붙여 산뜻하고 정갈했다.

분녀는 비누를 내온다 수건을 내온다 팽이처럼 돌아가며 분주당을 놓더니 부엌으로 들어가버리었다. 주태수는 세수를 하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소나무무늬벽지를 바른 한쪽벽에는 꽃바구니를 수놓은 눈부시게 흰 옷장보가 걸렸다. 뒤뜰안쪽 창문에는 하늘색 문보가 가볍게 흐느적이다. 알뜰하고 섬세한 선화의 솜씨가 구석마다에 깃들어있는 방안은 아담하고 깨끗했다. 주태수가 탁상등을 켜놓고 신문을 펼쳐드는데 분녀가 방안으로

들어오더니 봉투편지를 내놓는다.

《여보, 함흥 오래비한테서 편지가 왔수다. 좋은 신랑감을 골랐다고요. 오래비네 옆집에 사는데 사람이 여간 똑똑치 않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 배치됐다는데 인물은 얼마나 잘났겠소. 글쎄 그 집에서 선화사진도 보고 우리 집 래력도 듣더니 꼭 마음에 있어한다지를 않겠소.》

주태수는 편지속지를 꺼냈다. 정자로 박아쓴 편지사연은 신랑감 자랑이 태반이다. 그 처남이 선화만은 굳이 도시로 데려가겠다더니 정말 신랑감을 잘 고른 모양이다. 이럴줄 알았다라면 지난봄 도에 출장을 갔을 때 처남이 보자는 신랑감을 보고 왔더라면 좋았을걸 그랬다는 후회가 났다. 그때 처남은 새로 이사를 와서 사건 이웃집인데 부모들이 선화의 사진을 보고 더 마음에 있어한다고 했었다. 그때는 선화를 시집보내는 문제가 바쁜것도 아니였고 또 선화가 어떻게 생각할는지도 모르는 일이여서 그냥 돌아오고말았었다.

《그렇게 똑똑한 사위를 맞으면 얼마나 좋겠소. 친척네들도 모두 함흥에서 산다니 오죽 좋겠소. 글쎄 옷집에서는 딸을 들썩이나 도시로 시집을 보내더니 사위자랑 사돈집자랑에 로친네 입이 떡합지가 돼있다질 않겠소.》

《원 로친네도 꽤나 다사스럽소. 어디 그 사진이나 봅시다.》

주태수는 눈을 흘기며 쫓쫓 혀를 찼다. 분녀가 부인가방에서 사진을 꺼내놓았다. 벌써 직장에 나가서 사위감 자랑을 한 모양이다. 사진에 박혀있는 청년은 제진옷에 넥타이를 댔는데 얼굴생김새도 사나이다답게 선이 굵고 의젓했다.

《어떻소? 잘났지요? 말이 난김에 끝을 봅시다. 이런 일은 오래 끝면 재미가 없어요.》

《가만 있소. 애한테 물어봐야지. 괜히 로친네는...》

주태수는 입이 다사한 로친네와 마주앉아 입방아를 찢는것이 멋적어서 짐짓 통을 놓았지만 속심은 그렇지도 않았다. 나이찬 딸을 둔 로친네가 좋은 신랑감이 나졌다고 하니 왜 그렇지 않으랴 싶었다. 주태수의 마음도 도시사위를 맞는다면 나쁠것이 없었다. 탄광에도 똑똑한 청년들이 많았지만 이왕이면 변화한 도시에 시집을 보내고싶은것이 주태수의 마음이었다. 오늘아침 선화를 시집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그로서는 마음이 동해나지 않을수 없었다.

령감의 이런 마음을 알수 없는 분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무표정한 령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령감도 선화를 도시로 시집보내는것을 마다할수는 없을터인데 솟제 뜨직한 말을 하니 도무지 그 속내를 알수가 없다. 분녀는 속이 상했다. 그렇다고 부채질을 더 했다간 그 성미에 령감이 발각 성을 낼지도 모른다.

방안에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음향을 내고있었다.

이때 마침 선화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에그, 오늘은 왜 이리 늦었느냐?》

《어머니, 로천에 갔었어요.》

《시장하겠구나. 내 얼른 밥을 차릴라.》

《어머니, 배고프지 않아요. 로천등판에는 산딸기가 지금 한창이에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것 같아요.》

방안은 선화로 해서 생신하고 살뜰한 정이 넘치었다. 귀엽게 자란 외동딸이었다. 주태수는 집안에서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귀여움을 사는 저것이 직장에 나가서는 일 잘하고 레절바른 처녀로 칭찬을 받으랴싶었다.

선화는 아버지쪽을 돌아보며 말머리를 잇는다.

《아버지, 그 동무가 정말 훌륭한 설계를 했어요. 아직 부족점은 있지만 도와주면 큰 의의가 있을것 같아요.》

《누구말이나?》

《아버지가 늘 칭찬하지 않았어요. 제대군인특무장말이에요. 작곡을 한다는 명호라구...》

이렇게 뒹겨주어서야 주태수는 알만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뇌인다.

《사람이야 진짜배기지. 통이 크다말다.》

분녀가 무릎을 세우고 말끝을 단다.

《사람은 진국인것 같더라. 늘 봐야 옷차림도 단정하고 인물도 사내답게 잘 생겼더구나.》

합숙 취사원인 분녀는 이렇게 명호에 대한 칭찬을 하고나서 딸의 눈치를 보았다. 총각들의 말이라면 질색을 하던 딸이 오늘은 제편에서 먼저 총각자랑을 꺼내놓은것이 자못 이상했던것이다.

《아버지, 내가 그 동무의 선별기시공을 맡을것 같아요.》

선화는 오늘 산정에서 명호를 만났던 일이 눈앞에 떠올라 싱그레 미소를 그리었다.

그는 지금 그때 일을 더듬고있었다.

...선화는 버럭덩어리에 얼어맞은 나무의 상처에서 흐르고있을 송진이 가없는 눈물처럼 느껴져 골짜기에서 시선을 땔수 없었다. 명호의 활기 띤 목소리가 문득 울렸다.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소?》

《동무때문이에요.》

선화는 명호쪽에 시선을 옮기고 상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나때문이라니?》

명호의 열정으로 불타는 눈이 빛을 뿌리었다.

《놀랄건 없어요. 동무가 기술과에 제출한 그 선별기위치를 확정할 위임을 받고 왔어요.》

《아, 그렇소! 동무는 그러니까 기술과 <특사>로 우리 혁신쟁에 파견되어온셈이군. 그렇다면 나도 환영이요! 그래 그 도면을 검토해봤소?》

《봤어요, 그런데 동무한테 여기서 당장 답변을 줄수는 없어요. 그건 현지를 확정해본후에야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럼 수고하겠소. 선별탑을 세워야 할 등판에는 산딸기가 한창이니 적적하지는 않을거요.》

(아이참! 그저 룡담이야!)

처녀는 박토계단쪽으로 씨엥씨엥 걸어가는 명호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정기도는 눈에 다감한 미소가 비끼여있는 선화의 얼굴을 쳐다본 주태수는 미덥지 않은듯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네가 맡고있는 저탄장확장설계는 어떻게 하고...》

《그건 다 끝내게 됐어요.》

《네 힘이 부치지 않겠냐?》

《아이참, 아버지두 내가 뭐 아직도 쫓내기 기수인줄 아세요.》

선화는 아버지의 신중한 얼굴을 빠끔히 쳐다며 상그레 웃는다.

처녀의 눈빛은 이렇게 묻고있었다.

하나 주태수는 딸의 눈길을 받는 순간 번개같은 예감이 뇌리에 떠올랐다. 불현듯 아침에 목격한 일이 눈앞에 스친다.

(혹시 선화가 명호를...)

《애, 선화야, 그거 아직 될지도 모르는걸 네가 자진해서 맡겠다는건 뭐냐? 기술혁신대상이 그것뿐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내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다. 무슨 일이나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처신해라.》

아버지답지 않은, 하지만 무심코 흘러버릴수 없는, 총각들을 경계하라는 신중한 숙대사를 촉구 빠르게 느낀 선화는 웬일인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앤 그거 어른들의 말을 새겨듣지는 았구 탄광에 제대군인총각들이 오죽 많냐?》

《호호! 어미닌... 제대군인총각들이 어떻다나요.》

선화는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는 어머니가 우스워 눈가에 웃음을 피운다.

《원 옛날같으면 시집을 가서 아예미가 됐을텐데...》

분녀는 쫓쫓 혀를 차고나서 말을 잇는다.

《의삼촌한테서 편지가 왔다.》

《어디 보자요. 그러지 않아도 기쁜 소식을 만나했어요. 아침에 까치가 깹깹 울지 않았어요. 외삼촌이랑 모두 잘 있대요?》

분녀는 기쁨이 실린 딸의 얼굴을 넋지시 쳐다보며 편지를 주었다. 기쁨과 반가움이 어울린 선화의 얼굴은 그리운 외삼촌일가를 그려보는듯 부드럽고 다감한 그리움에 젖어있었다.

편지를 훑어내려가던 선화는 얼굴을 붉히며

《의심론은… 이런건 난 몰라요.》하고 편지를 어머니앞으로 밀어놓는다.

분녀는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선화의 눈치를 보다가 사진을 내놓았다.

《이건 그 사람의 사진이다.》

《글쎄 난 몰라요.》

선화는 사진은 볼념도 하지 않고 아버지쪽으로 뺄 돌아왔더니 앵돌아진 목소리로 종알거린다.

《난 아직 이런건 몰라요.》

주태수는 입이 쓰거운듯 입맛을 다시다가 복숭아물부리에 성냥을 그어댄다.

선화는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뺀히 쳐다보다가 냉큼 옷방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그 서술에 편지우에 놓여있던 사진이 흩 날아났다. 방안에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선화는 방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해보려고 텔레비존을 틀어놓았다. 그러나 텔레비존에서는 음악이 아니라 전투영화의 장면들이 흘러갔다.

저녁상을 물리고난 주태수는 상반신을 엇비스듬히 젖히고 눈을 감았다. 이것은 주태수가 밥을 먹고나서 의례히 하는 버릇이었다. 눈을 감고 하루일을 총화했으며 래일의 일을 꼼꼼히 생각한다.

박토계단들과 봄비며 돌아가는 굴착기들, 대형자동차들 그리고 대공발파!… 화면처럼 흘러가는 생각들이었다. 이날따라 생각은 결가지를 치며 사사로운 문제로 번져나간다. 그것은 제대군인총각들에 대한 문제였다.

지난해 초겨울 주태수네 갱에도 제대군인들이 수십명이나 배치되어왔었다. 모두 하나같이 골골했다. 주태수는 그들과 손을 잡고 일할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탄광에 정을 붙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탄광에 정을 붙인다면 생산은 얼음에 박밀듯 쭉쭉 올라갈것이었다. 휴가를 갔다가 장가를 들고 온 제대군인들은 모두 안착이 되어 일을 잘했다.

주태수의 눈앞으로는 명호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다.

(사람이야 진짜지, 혁신자고 인물도 남자답게 잘났어! 재간도 있고…)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일은 장가를 들라고 권유하면 그저 단마디명창으로 차차 가겠다는 말뿐이다. 그렇다고 고향에 약속해놓은 처녀가 있는 눈치도 아니다. 한부대에서 같이 제대되어온 동무들은 모두 휴가를 받고 고향을 다녀왔다. 그런데 명호만은 휴가도 가지 않고 안전교양을 받자마자 일손부터 잡았다. 처음부터 하는 잡도리가 달랐다. 명호는 일도 잘했지만 창의고안도 잘했다.

주태수는 사랑이 가고 믿음이 가는 그에게 좋은 배필을 무어주려고 명호 모르게 원심을 쓰기도 했다.

주태수는 팔소매가 짧은 시원한 여름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청년합숙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다. 날씨는 한결 서늘하다.

합숙복도에는 형광등불빛이 파르스름히 흐르고 있다. 어느 방안에서인가 은은한 기타소리가 새여 나온다. 혁신갱독신자들이 들어있는 세번째 호실이다. 그 방문앞에 뒤짐을 지고 못박혀있는 주태수의 가슴으로는 맑은 시내물이 흘러들고있는것 같았다. 주태수는 얼마후 손기척을 울리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창가에 서서 기타를 타고있던 명호는 뜻밖에 불쑥 들어서는 갱장을 의아한 눈길로 마중했다.

《노래가 듣기 좋구만!》

《〈탄부의 영예〉입니다.》

《동무가 작곡을 했냐?》

주태수는 원탁우에 흩어져있는 오선지들에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기성곡인데 편곡을 해서 탄부절에 내놓자고 하는데 마음에 들어야지요.》

《잘해보라구. 첫술에 배부르겠냐.》

주태수는 명호가 내놓은 의자를 밀어놓고 침대우에 턱 걸터앉았다. 눈부시게 도배를 한 방안에는 침대 두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이불장, 옷걸개, 책상 등을 조화롭게 잘 정돈해놓은 방안은 아늑한 정서가 풍기었다.

《오즈음엔 적적하겠구만. 정삼동무가 언제 오겠다고 했더라?》

방안을 둘러보고 느닷없이 주태수가 묻는 말이였다. 주태수는 청년들과 마주앉으면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 부접이 좋게 통담을 주고받았다.

《결혼식을 하고 안해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넉넉잡고 열흘은 걸릴겁니다.》

《임자도 집에 갔다와야지, 착공기시운전도 성공했으니 이제야 갔다와야지. 부모들이 오죽이나 기다리겠나. 장가도 들고 생활도 해야지 만날 합숙생활을 할텐가?》

《장가야 아무때고 갈수 있는건데 차차 가지요.》

또 어물쩍 넘기자는 투다.

주태수는 명호를 던지시 쳐다보았다. 명호의 속심을 알수가 없다. 주태수는 타일러보는수밖에 없었다.

《고사리도 꺾을 때가 있는거야. 모두 장가를 들고 깨가 쏟아지는 살림을 하는데 부럽지도 않아!》

《오늘 기술과에서 선별기도면을 확정하러 현장에 나왔었는데 그걸 해야지요.》

《착공기로 발뺌을 하더니 이젠 선별기인가? 그 선별기가 언제 되겠다고… 두말 말고 휴가수속을 해줄테니 떠나라구. 이번에 새로 준공된 아파트 입사증이 우리 갱에 열개나 나왔어.》

《쟁장동지, 지금 버력이 석탄에 섞여나가는것

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별기를 해놓으면 버럭도 선별하고 운반도 기계화할텐데 장가야 차차 가면 되지요.》

주태수는 더 권고할수 없었다. 이런 제대군인이 혁신강에 있다는것이 못내 기뻛고 자랑스러웠다.

주태수는 대견한 마음으로 합숙을 나섰다.
(아무튼 다르거늘! 선화도 그래서 명호를 자랑했테지!)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아침이었다. 로천식당에서 밥을 먹은 주태수는 휴식장에서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요즈음 주태수는 갯에 불박혀있는 터였다. 주태수는 담배를 태우면서 주방쪽으로 자주 눈길을 보냈다. 주방에는 안해가 와 있었다. 좀전에 후방과 너맹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지원 물자를 자동차에 싣고왔었다. 분녀도 그들속에 끼여왔던것이다. 꼭 만나야 할 일은 없었지만 전번에 꼭지를 떼다 만 딸의 혼사문제를 안해에게 비취보고싶었던것이다.

마침 분녀가 주방문을 열고 나온다. 눈길로 안해를 불러세운 주태수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 애하고 더 무슨 말이 없었소?》

《그 애가 집에나 내려오우?》

《왔던김에 애를 만나고 가요. 아직 회답편지도 못했는데...》

《령감이 좀 타일러보우다나.》

《내가?... 어서 가보우.》

주태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나오는바람에 어색하게 턱짓을 하며 돌아앉았다. 그는 먼산쪽을 바라보다가 현장으로 올라갔다.

채굴장에서는 굴착기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서는 《자주》호에 버럭을 실어주고있었다. 착정기들은 포신같은 정대를 뻗치고 압박을 뚫고있었다. 기계의 동음으로 가득찬 채굴장은 금시 떠나갈 듯했다.

착공기옆에서 서성거리고있는 명호에게로 다가간 주태수는 저쪽으로 가자고 눈짓으로 그를 이끌었다.

휴식장으로 걸어온 주태수는 걸상에 앉았다.

《선별기는 어떻게 됐나?》

《굴세 저도 궁금해서 오늘은 기술과에 들러볼가 합니다. 저번날 현지에 나와서 료해하구 갔는데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도면을 료해하러 나왔던 선화동무가 시공을 담당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명호는 말끝을 맺지 않고 눈을 껌벅거렸다. 그는 갯장을 앞에 놓고 선화에 대한 말을 한것이 짐작했던것이다.

주태수는 긴눈섭을 세우고 명호를 쳐다보았다.

(기사들도 많은데 하필 기수인 선화가 시공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나한테 내비치다 만것은 무슨 판 공공이가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닐가?)

명호가 선화를 마음에 둔것 같은 생각이 타래송이처럼 파고든다. 저들간에는 벌써 눈이 맞은걸 이 애비가 청맹파니처럼 몰라보고있는것이 아닐가? 아니야. 우리 선화야 그런짓을 할 애가 아니구말구.

주태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하기야 말바로 명호를 놓고보면 나무랄데 없는 청년이지! 그러나 우리 선화야 인물도 잘나고 착실하다고 소문이 난 애인데 이왕이면 처남이 그토록 좋다고 한 도시의 그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서 살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그러나 한편 미타한 생각이 바이 없는것도 아니었다.

총각들의 말이라면 질색이던 선화가 명호에 대한 자랑을 제먼저 한것이라든가 선별기시공을 자진해 맡겠다고 한것이 다 무슨 쪼간이 있는것이 아닐가.

불현듯 주태수의 눈앞으로 선화가 선별기위치를 확정하려고 산정으로 왔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점심을 먹고난후 명호와 선화가 등판으로 넘어가는것을 본 청년들이 《제대군인 그 총각 영웅탄부 되였네》라는 노래를 부르며 좋다고 웃어댔다. 그때는 룡담을 즐기는 청년들의 익살이 러니 무심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그것들이 모두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느껴여지는것이었다.

이때였다. 갯생송용차가 언덕길로 달려오고있었다. 탐측과 측량수들이 타고다니는 《갯생》은 휴식장어구에 와서 멎었다.

기술과장과 측량수들이 뿔대와 측량기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들속에는 주선화도 있었다. 주태수갯장은 그들쪽으로 걸어내려갔다.

《갯장동무, 혁신강에 경사가 났습니다. 선별기 시공지도를 집의 따님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말주변이 좋은데다 호방하고 익살기가 있는 기술과장은 주태수의 손을 덥석 잡아흔들며 너스레를 떨었다.

《정말이요?》

주태수는 뜻밖이라는듯 되물었다.

《정말이 아니면 과장이 실없는 소리를 하겠소. 지난밤 회의에서 기술혁신조를 못기로 했소. 명호동무가 기술혁신조원으로 뽑히였소. 저기 마침 명호동무가 있군.》

과장은 눈을 껌벅거리며 명호를 손짓으로 불렀다. 명호가 다가왔다. 과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주며

《오늘부터 동무는 기술혁신조원이요. 그리고

시공지도는 주선회동무가 담당하기로 했소. 그럼 인사들이나 하시오.》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명호를 앞으로 내세운다.

《과장동무, 우린 벌써 구면입니다.》

《그렇소!》

과장은 꺾꺾 소리내어 웃으며 주태수쪽에 눈길을 보낸다. 주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에 성냥을 그어댄다.

(아이참, 저 동무가!)

선회는 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었다.

그의 얼굴은 팔기빛으로 물들었다. 주선회의 샘물처럼 맑은 눈에는 처녀의 립장을 딱하게 만든 명호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있었다. 기술과장은 능글능글 웃으며 덤덤히 서있는 주태수의 옆구리를 슬쩍 찰라가지고 사람들과 동떨어진 저쪽으로 걸어갔다. 주태수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가 하자는대로 따라갈수밖에 없었다. 속안에 능구렁이가 들어앉은 기술과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나올지 누가 알랴. 그럴바치고는 사람들과 동떨어져있는 편이 나을것이다.

《갱장동무, 저 명호동무가 어쩡소? 아무튼 갱장동무는 복을 타고났단말이요. 끝끝한 제대군인들로 대렬을 정비했으니 큰소리 치게 됐지. 그런데 저 명호동무는 장가를 안갔다면서?》

주태수는 일종의 불안을 느끼었다. 그러나 그는 탕개가 풀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과장의 억살을 받아넘기었다.

《안갔으면 중매 설라나?》

《중매고 뭐고 할것 있소. 저 선회가 어쩡소?》

《뭐요?》

주태수는 속이 뜨끔했다.

《뭘 그렇게 놀라오. 아무때고 한번 먹을 국수 인데...》

기술과장은 꺾꺾 웃으며 눈이 켜진 주태수의 얼굴을 넌지시 쳐다본다. 그 호방한 웃음과 아무런 눈썹은 《내 눈은 속이지 못하오!》이렇게 씨까스르는것 같았다.

(아차 그래. 기술과장의 룡담이 결코 실없는 소리가 아니렸다!)

주태수는 쓴웃음을 웃고나서 채굴장으로 터벌터벌 걸어갔다.

기술과장은 명호와 선회에게 앞으로 할 일을 의논하고 뒤따라 올것을 지시하고 측량수들을 데리고 선별탑을 세울 등판으로 먼저 넘어갔다. 단둘이 남게 된 명호와 선회는 침묵을 지키었다. 어색했다. 선회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풀대를 잘근잘근 씹었다. 명호가 처녀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말을 꺼냈다.

《동무가 시공지도를 맡는걸 갱장동지가 달가와 하는것 같지 않은데 해낼수 있겠소?》

《동무는 내가 시공을 담당한것이 못미더운가보지요.》

《아니요. 난 동무가 제일 좋소!》

《어마나? 난 몰라요!》

처녀는 몸을 돌리더니 등판을 향해 종종걸음을 친다. 처녀가 달려가고있는 그곳 푸르싱싱한 새초무지들과 꽃들이 활짝 핀 싸리나무가 어울린 숲속에서는 새들이 날아올랐다.

주태수는 선별탑공사장을 향해 등판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방금 해가 떠오른 때라 풀숲의 이슬이 바지가랭이를 적시었다. 등판에 올라서니 우뚝 일어난 선별탑이 한눈에 안겨온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선별탑의 구조물들은 산정의 수호자인듯 거창했다.

용접불꽃이 훑날리는 탑우에 용접면을 든 명호가 서있었다. 명호는 공사가 시작된후 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어려운 모퉁이를 막아나섰다. 그는 3일째나 탑우에서 밤을 새웠다고 한다.

주태수는 탄전에 뿌리를 내린 미더운 새 주인의 모습을 명호에게서 보는것만 같아 발걸음이 선뜻 떼여지지 않았다.

이날밤 주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기별을 할려고 했더니 마침 왔수다. 선회도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려오겠다는 말이 없었소?》

《무슨 일이 있소?》

주태수는 책상우에 접어놓은 신문을 펼쳐들며 물었다.

《외삼촌한테서 독촉편지가 왔수다. 원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회답이나 할것이지...》

분녀의 토라진 소리에 주태수는 화를 벌컥 내며 눈을 흘긴다.

《편지는 무슨놈의 편지, 애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왜 증을 내시오. 그애 성미에 그럼 제 부모앞에서 시집을 가겠노라고 선뜻 말을 뻔줄 알았소.》

《저렇게 덜통스럽다구야. 지금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구. 임자하고 결혼하던 때와는 달라요.》

주태수는 안해한테 통을 준것이 안됐다싶이 이렇게 농치며 안해쪽을 돌아본다.

사실 주태수가 기분을 잡친것은 안해의 토라진 지청구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러지 않아도 집에 내려가면 선회문제를 의논해보자고 공리를 해오던참이다. 주태수의 가슴에는 명호와 선회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야릇한 불안이 나날이 커가기만 했다.

선별기공사를 하자니까 자연 서로 마주앉아 의논도 해야겠지만 때로 단둘이 호젓한 등판을 넘어다니는것이 꺼림직했다. 남의 속내는 알지도 못하면서 문턱을 넘어서기도 바쁘게 새통바가지처럼 입빠른 소리부터 내뿜는 안해가 얄미워났던 것이다.

《가부간 편지라도 했어야 할것이 아니요.》
 분녀는 화중머리가 나서 쓰아붙인다.
 《자 이렇게 코막고 답답하구나야. 그런 일이야
 로친네가 주관해서 할일이지 령감이 나서야겠소.
 그애가 내려오겠다고 했으니 로친네가 어디 다
 시 한번 물어보시오.》
 《나두 하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
 애가 혹시 명호란 청년을 좋아하는게 아니요?》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주태수는 속이 답답한듯이 담배를 피워문다.
 분녀는 속이 상해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내려
 가고 만다. 주태수는 담배를 태우면서 신문을 읽
 기 시작했다. 그릇을 부시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
 오던 부엌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온다.
 선화가 왔나보다.
 《어머니, 내가 해요.》
 《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쫄쫄.》
 《해벌에 타서 그래요. 어머니 이거.》
 《에구 기차라! 산딸기가 아니냐?》
 《어머니 생각이 나서 따왔어요.》
 《원 애두 제나 먹을것이지. 애 선화야, 외삼촌
 한테서 또 편지가 왔다.》
 《또 그런 소리를 썼어요?》
 《외삼촌도 좋은 자리를 놓칠가봐 그러는게 아
 니냐.》
 《어머니, 그렇다면 난 편지를 보지 않겠어요.》
 선화는 어머니 말을 밀막아 버리고 방안으로
 들어온다. 잠자리날개처럼 하르르한 하늘색 머리
 수건을 쓴 선화의 얼굴은 가무스레 뒀으나 생기
 가 넘치는 리지적인 눈과 우로 들릴사한 인상적
 인 웃음술은 처녀의 발랄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
 하고 있었다. 분녀가 뒤따라 들어오며 부엌에서
 하던 말을 잊는다.
 《애야, 참 답답하구나. 외삼촌이 그렇게 좋다는
 신랑감을...》
 《외삼촌은 정말... 난 글쎄 모른대두요.》
 《그럼 넌 어찌자는거냐? 어디 말 좀 해봐라.》
 《어머닌 참 우리 탄광에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
 이 많아요. 어머니는 도시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난 탄광이 좋아요. 난 탄광을 떠나고싶지 않아요.》
 《너 명호란 청년을 생각하는게 아니냐?》
 《난 몰라요.》
 말참견을 앓고 묵묵히 담배만 태우던 주태수는
 선화쪽으로 돌아앉으며 심중한 어조로 말을 꺼
 낸다.
 《애야, 네 일생문제인데 잘 생각해보는게 좋겠
 다.》
 아버지를 쳐다보는 선화의 가슴은 아팠다.
 왜 그렇게도 학교시절 탄전이 선화의 마음을
 끌어당겼는지 지금에 와서도 그는 잘 알수 없
 었다. 선화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소중한 아

버지가 일생을 살았고 또 자기가 고이 자라 기수
 가 된 탄전은 모든 희망의 요람이었다. 탄부의
 딸로 태어난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탄전에서 충
 성의 꽃을 피우리라 다짐한 선화였기에 아버지의
 말이 더 가슴아픈것이였다. 선화는 마음을 가다
 듬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이 박힐지도 모를 그리
 나 아버지를 믿고 존경하는 딸의 진심을 아버지
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입을 열
었다.
 《난 아버지까지 이러실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는 탄부가 제일 영예롭다고 하셨지요? 아버지는
 제대군인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를 찾
 아가셨지요. 그런데 제자식은... 아버지처럼 생각
 하신다면 어느 부모가 딸을 탄광에 시집보내자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탄부는 영예롭다고 한 말은
 빈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지난날 탄광에서 어떻
 게 살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며 한평생을 탄
 광에서 살아오신 아버지가 말로만...》
 주태수는 가슴을 찌르며 파고드는 딸의 원망어
 린 목소리를 앓아서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는
 옷방으로 올라갔다. 말없이 허둥거리며 옷방으
 로 올라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선화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였다. 그는 어머니쪽에 눈길을 돌리
 였다.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일을 하
 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
 니가 있는 그리고 내가 나서자란 이 탄광을 버리
 고 내가 어디로 갈수 있어요. 어머니는 내 마음
 을 왜 그렇게두 몰라줘요?》
 선화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어머니
 품에 안기였다. 그의 두볼에는 뜨거운것이 흐르
 고 있었다. 순결한 처녀의 가슴에는 치받쳐오르
 는 사랑의 감정을 담은 오직 어머니에게만 보일
 수 있는 눈물이였다. 자식을 낳아키운 어머니들
 만이 지닐수 있는 다정하고 살뜰한 애무의 손길
 로 분녀는 그것을 헤아리며 느끼고있었다.
 《애야, 난 너를 낳아키웠지만 네 마음이 그렇
 게 웅숭깊은줄 몰랐구나!》
 《어머니!...》
 잔물결치는 딸의 어깨며 머리를 쓰다듬는 어머
 니의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주태수는 옷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선선
 한 바람이 주태수의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우렷한 달빛이 내려비치는 뒤뜰안, 선화가 가꾼
 꽃밭에는 활짝 핀 꽃들이 밤이슬을 머금으며 고
 요한 대기속에 향기를 고즈녁이 채워주고있었다.
 그 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주태수는 딸의 목
 소리가 귀전을 울리는것 같았다. 폐부를 찌르는
 아픔처럼 느껴져지던 딸의 목소리였다. 아니 그
 것은 선화의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것이 아버지의 량심을 찢어주는 딸의 호
 소였다.

선화야! 어쩌면 네 가슴에 그렇듯 웅심깊은 마음이 깃들어있었더냐! 아버지는 너를 몰랐구나. 나는 너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탄부는 영예롭다고 가르쳤었다. 그런데 너만은 어디로 시집을 보내자고 했더냐...

뜨거운 애정이 담긴 회오와 자책이 딸의 아픈 가슴을 살뜰하게 쓸어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마음이었다.

주태수는 무거운 자책에 잠겨 꽃발가를 거닐었다.

(진심으로 탄광을 사랑하고 탄부에 대한 영예를 가슴에 지닌 탄부였다면 나는 내 딸을 도시가 아니라 탄광청년에게 시집을 보내자고 했을것이다.

나는 탄부라는 이름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수 없었다. 탄부는 나의 영예였고 삶이었다.)

이 밤도 산정의 발파소리는 산발을 울리며 끝없는 대기의 공간을 날고있었다.

주태수의 가슴은 이 밤 그 발파소리로 하여 세차게 뛰는것 같았고 그 발파소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음을 느끼었다.

산정의 여름은 검은 구름을 몰아와서는 요란스럽게 한소나기 퍼붓고 사라져버리는 바람처럼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물러난것 같았다. 여름은 조금도 주저도, 미련도 없이 어느새 살머시 다가온 가을에 자리를 내주려는 모양같았다.

오늘 선별기시운전이 있었다. 공사를 시작하여 달포만에 있는 시운전이였다.

주태수는 늦어서 작업장을 나섰다. 퇴근차를 탈수 있는것도 주태수는 웬일인지 산정의 밤길을 걷고싶었다. 그것은 낮에 있었던 선별기시운전 때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때문인지도 몰랐다.

선별기시운전은 얼마나 장쾌했던가. 채굴장에서부터 콘베어로 운반된 석탄은 선별탑을 거쳐 조구수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내렸다.

벽찬 감격으로 파동쳤던 흥분은 집으로 향하는 밤의 산정길에서도 가라앉을것 같지 않았다. 설렁거리며 불어오는 소슬한 바람이 숲속의 향기를 실어온다. 취할것만 같은 코를 찌르는 향기였다.

주태수는 활동모양 휘우듬한 굵인돌이를 돌아섰다. 앞에서 두사람이 걸어가고있다. 선별탑등성을 넘어온 두사람,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소슬한 바람에 실려온다.

《선화동무, 이번에 정말 수고가 많았소!》

《아니예요, 동무가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탄

부의 영예>는 언제 내놓겠어요?》

《동무가 불러준다면 이제라도 내놓겠소.》

《아이참, 왜 나뿐이겠어요. 탄전을 사랑하는 모든 탄부들이 다 불러야지요. 탄부가 얼마나 영예로워요. 앞으로 우리 탄광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거예요. 현대화된 채굴기계들이 채굴장마다 수풀처럼 짙 들어차면 탄캐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흥겨워지고 탄부도시에는 노래와 춤이 넘칠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화동무,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탄전에서 우리 청년들은 대를 이어 영원한 충성의 꽃을 피워야 하오!》

주태수의 가슴은 마냥 쿵쿵 뒹다. 그의 입가에는 저도모르게 미소가 새물거려있다. 그것은 탄전에 억센 뿌리를 내린 사랑스러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미소였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탄전의 새 주인들인가! 저런 훌륭한 청년을 곁에 두고 내가 무슨 쓸개빠진 생각을 했는가? 나자신도 모르게 머리속에는 나에게 영예를 주었고 로동의 희열로 꽃피는 보람을 안겨준 탄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갔는가?

내가 진정으로 탄전을 사랑하고 탄부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이자고 했다면 쓸개빠진 생각을 애당초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는 쉬웠어도 자신의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돼있지 못했던 나를 너희들이 깨우쳐주었다. 나같은 일군이 있다면 제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만 내보내자고 했을것이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만 요구를 하고...

주태수는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그들을 아버지의 뜨거운 손길로 안아주고싶고 래일의 행복을 축복해주고싶은 충동을 건잡을수 없었다.

금모래를 뿌린듯 별들이 도글도글 빛을 뿌리는 하늘가 멀리 우중충한 산봉우리는 연한 감색으로 물들더니 늦양푼같은 둥근 달이 빠주름히 이마를 울려민다. 번죽을 울리면 고요한 산천을 울릴것 같은 보름달이다. 천지는 대낮같이 밝다. 달빛은 기계의 동음으로 가득찬 채굴장에서부터 등관으로 흘러간 콘베아며 우뚝 솟은 선별탑, 조구수채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한 사람들의 뜨겁고 사연깊은 이 밤 산정의 새 모습을 다정하게 어루쓸며 내리비친다.

주태수는 나란히 달빛을 안고 걸어가는 그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었다. 그들이 가는 길이라면 어데라도 가고싶은 그렇게도 좋은 밤이었다.

진심

백현우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권위 있는 학자나 저명한 배우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직위와 사람들의 몫시선속에 설만한 직업을 가진것도 아니었다.

한방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하루종일 가야 할 몇마디 주고받을 사이 없이 도면과 씨름을 해야 하는 평범하고 수수한 설계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철의 도시 송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있었으며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가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면 반가와했으며 그의 아버지별이나 되는 나이 많은 교관들과 고급기능공들까지도 출근길에서 모자를 벗어틀고 그에게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식당이나 극장 같은데 가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결으로 칭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가 리발하러 갔을 때였다. 명절전날이어서 리발관에 사람들이 많았다.

그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망설이고있을 때 자기 차례가 된 한 젊은 용해공이 선뜻 양보해나서는것이였다.

《선생님, 먼저 깎으십시오.》

그가 일없다고 상양을 하자 젊은 용해공은 노엽까지 쓰며 그를 불들다싶이해서 리발실로 떠밀었다.

그 젊은 용해공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같이 온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강철직장 선생일세.》

송림흑색금속설계사업소 설계원인 김상호동무를 두고 강철직장의 젊은 용해공은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강철직장의 그 용해공만이 아니였다. 철의 도시 사람들은 물론 령대의 탄부들과 하성의 광부들, 덕영의 농장원들도 상호동무를 자기네 사람이라고 했다.

나에게 김상호동무를 소개하던 황철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 김창삼지도원은 이렇게 말했다.

《김상호동무는 참 겸손하지요. 사업에 성실하구...》

그를 만나보니 지도원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보통키에 선 굵은 얼굴, 의젓하게 빗어넘긴 머리, 술진 눈썹, 큼직한 코날개며 두툼한 입술... 그는 생김생김부터가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에대한 사람들의 존경은 의젓한 생김새나 겸손한 품성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가는 그의 높은 충성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김상호동무의 생활신조였다. 그의 모든 사업과 생활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는데 있었다.

당의 령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들어가며 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이악하게 투쟁하는가-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보람의 척도가 있다는것을 김상호동무는 누구보다도 깊이 자각하고있었다.

× ×

인간의 보배로운 손길이 미치기 이전에는 영원한 밤의 어둠이 계속되던 수천척 땅속이였다. 하지만 채탄장이 마련된 이후부터 창조적로동의 밝은 불빛이 순간도 꺼질줄 모르는 채탄막장이였다.

령대의 탄부들은 그날도 석탄증산의 뜨거운 불길로 막장을 대낮처럼 밝혀가고있었다. 삼반년도 생산을 계속지어야 할 때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탄부들의 일손은 바빴다. 월말이나 분기말, 년말이 되면 어느 생산현장이나 바쁘기 마련이지만 탄부들의 마음이 조바심치는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자신들의 채탄량을 일단락 계속지어야 한다는데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1978년의 일이였다.

령대의 탄부들은 자기들을 인민경제 주타격방향의 맨 앞장에 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혁신의 불길을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었다.

일에 여념 없던 체대군인 박동무는 누군가 다가서며 어깨를 두드려서야 뒤로 돌아섰다. 그러자 채탄막장을 찾아온 알지 못할 사람은 허물없이 두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동무, 수고합니다.》

그의 인사에선 열정과 진심이 느껴졌다. 인사를 마치기 바쁘게 알지 못할 그 사람은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일손은 서툴었다. 막장일에 익지 않은 그의 일손을 보면서야 체대군인 박동무는 그가 탄광에 새로 온 사람이라는것을 알았다.

탄광에는 채취공업전선을 지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제대군인들과 휴가군인들, 전국 각지에서 달리는 지원자들... 박동무는 자기네 막장을 찾아온 사람도 그런 사람들중의 한 사람일게라고만 생각했다.

이때 자기네 채탄소대장이 다가왔다. 소대장은 막장에 찾아온 사람을 대번에 알아봤다.

《아니, 선생님이 오셨구만요.》

《석탄증산에 힘쓰는 동무들을 만나보고싶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장까지 찾아주시니...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전 선생님을 세번째로 뵙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뵈은것은 휴양 갔다 탄광으로 돌아오던길에서였지요. 달리는 열차 안에서 선생님이 하시던 해설강의는 펍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우리 막장에서 다시 뵈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말 선생님이 우리 막장에 찾아와 해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해설강의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미숙한 저의 강의에 그처럼 높은 평가를 주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군인 박동무는 두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막장에 찾아온 사람이 해설강사라는 것을 알았다. 40중턱에 들어선 나이로 보아 직맹해설강사일것이였다. 그의 추측은 틀림이 없었다.

작업휴식시간이 되었을 때 막장에 찾아온 강사는 백두산천지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앞에 모셔놓고 해설강의를 했다.

한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에 대한 열정적인 해설강의는 여느때없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강의를 마치며 강사는 탄부들을 석탄증산으로 불렀다.

《동무들! 지금 이 시각도 온 나라가 우리 탄부들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우리들이 캐내는 한줌한줌의 석탄은 그대로그 우리의 주체공업의 원료가 되고 연료가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들의 충성심은 한덩어리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캐내는데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강의를 마치자 강사는 탄부들과 함께 그길로 채탄마구리로 향했다. 한덩어리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캐내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려는 그의 말없는 행동은 그대로그 힘있는 호소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땅속일에 습관된 사람들에게겐 시계를 보지 않고 어둠속에 홀로 있어도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는 탄부 특유의 감각이 있었다.

《벌써 날이 새누만.》

《이제 곧 먼동이 트겠는데...》

자기들의 하루 채탄량을 넘쳐한지 오래건만 별로 해놓은 일 없이 시간만 흐르는것 같아 탄부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였다.

시간에 대한 탄부들의 감각은 정확했다.

조용하던 지령전화가 막장안에 찌렁찌렁 울리

기 시작했다.

지령전화에서는 지령원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여러 막장들에 알립니다. 송림흑색금속설계사업소에서 출장오신 설계원 김상호동지를 지휘부에서 급히 찾습니다. 설계원동지가 가계시는 막장에서는 설계원동지를 급히 지휘부에 보내주시시오. 아침 첫시간에 지휘부에서 주요 협의회가 있으니 설계원동지는 지체 말고 막장에서 급히 나와주시시오.》

지령원의 말이 채탄막장의 한사람이 옷에 묻은 탄가루를 툭툭 털었다. 그는 얼마전 채탄공들앞에서 해설강의를 하던 강사였다. 채탄공들은 지금까지 밤새워 자기네 일을 도와준 해설강사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해설강의를 마치고 탄부들과 함께 더운땀을 흘려온 그는 막장의 동발에 걸여놓은 자그마한 함을 어깨에 둘러메더니 탄부들과 작별악수를 했다.

막장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해설강사의 간데라 불빛을 바라보며 젊은 제대군인이 자기네 채탄소대장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저 사람이 지령실에서 찾는 출장은 그 설계원동무가 아닙니까?》

《그러게말이요. 작년말에도 우리 막장에 해설강의를 왔던게 난 우리 탄광 직맹강산가 했는 데...》

크고작은 모든 일에서 결단성과 자신심이 넘치던 채탄소대장의 이번 말에는 웬일인지 확신성이 없었다.

젊은 채탄소대장과 제대군인탄부는 자기네 막장을 찾아준 해설강사가 머나먼 철의 도시에서 출장은 설계원이라는것을 짐새차릴수 있었으나 지령전화의 내막과 사연까지는 다 알수 없었다.

막장의 탄부들을 찾아 해설강의를 왔던 해설강사는 바로 다름아닌 김상호동무였다. 령대탄광 알란공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계차로 출장왔던 그는 자기 사업의 틈을 내어 막장에 해설강의를 나왔던것이였다. 낮이면 낮대로 설계에 바쁘고 밤이면 밤대로 지하막장을 찾아 탄부들의 일손을 도우며 해설강의를 하는 그에게 다문 얼마마라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탄광지휘부에서 지령전화를 통해 각 막장에 알리도록 조치를 취했다는데 대해 알고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동무의 해설강의를 받은 수많은 탄부들은 당의 뜻을 자기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머나먼 철의 도시 한 직외강사의 뜨거운 마음이 한덩어리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캐여내는 충성의 길에 잇닿아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 ×

상호동무는 일에 바쁜 사람이였다.

1962년말에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사업소에 배

치된 이후 오늘까지 그는 큼직큼직한 140여개 대상의 설계를 담당해온 설계원이었다. 맡겨진 설계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만도 분과 초를 쪼개가며 아껴써야 했다. 설계가 끝나면 시공지도차로 안가는데 없이 출장도 다녀야 했다. 남만큼 일을 하면서도 직맹직외강사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모르는 고심도 겪어야 했고 몰려드는 피곤도 이겨내야 했다. 동무들은 상호동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될수록 그에게 일감이 적게 차례지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상호동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대중정치활동의 첫걸음은 직관원사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었다.

대학졸업후 상호동무는 조직으로부터 실내직관공작을 할데 대한 분공을 받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붓글씨를 써본 경험이 없었다. 한자한자 붓글씨 쓰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이렇게 직관공작의 첫걸음을 댔 그는 지난 12년동안 줄곧 속보원으로 사업해왔으며 그가 툼툼이 발간한 속보는 무려 6,400여매에 달한다. 하여 지금은 사업소적으로도 손꼽히는 《직관원》이 되었으며 출장길에 오를 때면 출장현지에서 직관활동을 돕기 위해 붓과 화구들을 출장가방속에 넣는것이 하나의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생활이 그에게 가져다준 자그마한 이 열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의지력으로 가꾸어진것이었다. 하지만 해설강의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직관공작은 저 혼자 조용히 할수 있어도 해설강의는 사람들앞에 나서야 한다.

상호동무는 말이 굳은 편이였고 행동하기보다 사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직외강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점잔을 빼며 체면을 차리는것 같은 낯은 인테리의 관습부터 뿌리빼야 했고 과묵한 자신의 성격을 개조해야 했다.

해설강의내용을 통달하기 위해 그는 밤늦도록 공부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곳에서 연설연습을 하기도 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탓이었다. 처음엔 그렇게도 힘들고 강사자신마저 따분하던 해설강의가 점차 쉬워지면서 청중과 호흡이 맞기 시작했다.

강의에 미련이 트면서부터 상호동무는 해설강의를 생활화하기 위해 애썼다.

그의 하루일과는 해설강의로 시작되고 해설강의로 끝나는 때가 많았다. 이른아침 출근길에 나서면 자기가 담당한 시안의 10여개 기관, 기업소들중에서 그날 강의를 해야 할 단위를 찾아 아침독보시간에 해설강의를 끝내고 직장에 나갔고 퇴근시간이면 밤교대작업을 하는 작업반을 찾아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곤했다.

그는 해설강의를 자기 담당구역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출장길에 오르면 역전 대합실과 달리는 열차안에서 그리고 출장현지에서 강의를 했으며 설계를 하다 걸린 고리를 풀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 해설강의를 하곤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장모가 치료차로 룡양소에 장기간 가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지 몇달이 되었건만 상호동무는 면회를 가지 못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안해는 은근히 원심을 썼다.

《여보, 명절이 며칠 안남았어요.》

안해의 마음을 새삼스레 옛보게 된 상호동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빙그레 웃었다.

《중소. 내 이번엔 꼭 시간을 내겠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잘 준비해주오.》

안해는 상호동무가 너무도 순순히 응해나서는 바람에 남편이 말뼀을 하려드는데 아닌가 하여 오히려 의심스러워했다.

명절날 이른아침 상호동무는 장모가 룡양중인 시외의 룡양소를 찾아 떠났다.

료양소에 도착하는길로 상호동무는 룡양소의 책임자를 찾아갔다. 룡양소책임자에게 직맹해설강사증을 내보이자 상급조직에서 연락을 받고 기다렸다고 하면서 무척 반가워했다.

상호동무는 이날도 선전실에서 강의를 하였다. 선전실에는 치료중인 룡양생들이 모두 모여있었다. 그중에는 낯이 익은 사람들도 몇명 있었다.

청중속에 있던 면목 있는 한 중년부인이 자기 옆의 늙은이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할머니, 저 강사선생이 할머니 사위가 아니에요?》

《그렇다우.》

중년부인옆에 앉아있던 늙은이는 자랑스레 앞쪽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상호동무는 이처럼 치료중인 장모를 면회하러 가서까지 해설강의를 위한 기회를 얻어냈던것이였다.

그리하여 1973년부터 1979년 상반년사이에만도 상호동무는 수십여제목의 해설강의안을 가지고 군중을 상대로 해설강의를 진행했다.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사업의 여가에 스스로 진행한 이 강의량은 전문해설강사들의 사업량과 별로 짝지지는 않는다.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려주어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부르려는 그의 충성심이 이런 열매를 낳은것이다.

× ×

새벽 세시.

상호동무는 강철직장의 철계단을 내리고있었다. 공화국창건 30돐을 앞두고 《100일전투》가 벌어지자 상호동무는 전투 첫날부터 자기 이름을 강철직장 4호평로의 로체공으로 등록하고 강철전선을 지원하기 시작한것이였다. 설계원이 하루일을 끝내고 밤마다 로체공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

한지도 어려날... 로체공 못지않게 더운 땀을 흘리며 로앞에서 일도 하고 작업휴식시간에는 짹짹이 해설강의와 힘있는 경제선동을 벌리건만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무엇인가 응당 해야 할 일을 못한것만 같아 자책으로 마음 무거워지는 그였다.

그가 용해장의 높다란 철계단을 반쯤 내려섰을 때였다.

승용차 한대가 달려와 멎더니 공장당 책임일군은 두 손을 덥석 잡아주었다.

《수고하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소?》

용해장을 자주 찾는 공장당 책임일군은 상호동무가 강철직장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대번에 알아 보았다. 공장당 책임일군은 되돌아서더니 상호동무더러 차에 오르라 했다.

상호동무가 사양을 하자 그 일군은 자신이 먼저 차에 올랐다.

《나도 이젠 퇴근하겠소. 같이 가가요.》

퇴근길에 용해장을 돌아보니 나왔다가 자기때문에 공장당 일군이 되돌아선다는것을 알고 상호동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어느덧 승용차는 야밤의 제철소구내를 빠져 포근히 잠든 철의 도시 한복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래 직장이 어디요?》

《설계사업소입니다.》

《그러니 동무는 기사겠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소?》

그 일군의 물음에 상호동무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용해공들과 함께 있었던 기사로서 자기가 한 일을 없었다.

그날밤 상호동무는 밤새 잠들수 없었다.

병사의 용감성은 돌격선의 앞장에 서는데서 나타나겠지만 지휘관의 용감성은 대담한 결심을 제때에 정확히 채택하고 그 결심판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나타나야 할것이였다.

기사인 자기가 강철전선을 돕자면 육체적으로도 지원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도와야 할것이였다. 또 기사며 해설강사인것만큼 기사답게 선전하고 기사답게 자신이 당정책판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것이였다.

그리하여 상호동무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면서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던 슬라크처리문제를 자기가 기여이 풀어야 한다는 결심을 확고히 다지게 되였다.

새로운 제강법이 연구되고 강철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슬라크를 제때에 처리하는 문제는 심각히 제기되였다.

수많은 야금전문가들과 재능있는 기사들이 달

라붙었으나 이 문제는 지기된지 오래전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있었다.

육망은 컸으나 건축전문가에 지나지 않는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곤난에 부닥칠 때마다 그는 생산자대중에게 접근했고 대중의 창조적지혜에 의거했다. 그리하여 새형의 대형남비를 쓰는것이 좋겠다는 목표를 찾아냈다.

새형의 대형남비를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흐르는 슬라크량을 정확히 측정하는것이였다. 슬라크남비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며칠 밤을 새운 상호동무는 그날 슬라크량을 다시 측정하기 위하여 출장작업대우에 올라섰다. 한번, 두번, 세번 측정작업이 계속되였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현장작업에 익숙하지 못한데다 겹쌓인 피로로 그는 그만 작업대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용해공들의 품에 안겨 잠시 후 그는 눈을 떴다.

의식을 회복하는 첫 순간 그는 누구에게라없이 속삭이듯 말했다.

《동무들, 저 슬라크량을... 슬라크량을...》

자기가 못다한 일을 두고 안타까와하는 그의 말에 용해공들의 가슴은 쇠물의 열풍앞에서보다 더 후터워졌다.

분화구가 터지면 열정의 용암은 솟구쳐오르기 마련이였다. 충성의 열정과 열정들에 지혜가 합쳐져 열정과 지혜의 바다가 생겨났다. 80여차에 걸치는 전문가,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기술협의회를 거쳐 50여대에 달하는 새형의 대형남비도면은 완성될수 있었다.

방대한 이 모든 작업은 설계원인 상호동무가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면서 밤시간과 자신의 휴식시간들을 리용하여 했던것이다.

새형의 대형남비도면-실로 이것은 해설강사인 그가 자신의 모범으로 대중앞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힘있는 강의였으며 당의 뜻을 받들고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기사답게 강철전선을 돕는 충성의 지원이였다. 당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선전자는 그 철저한 집행자이기도 했다.

× ×

그 누가 보진말건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 사람, 명예와 보수를 바람이 없이 한생을 오로지 당의 뜻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나 사회적인 존경속에 자기 삶을 값있고 보람있게 빛내나가는것이다.

충성의 궤도를 따라

문경환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는 수송전사들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평양기관차대를 찾은것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가 끝난 뒤인 7월하순이었다.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관차대의 모든 승무원들은 《5.18무사고정시건인초과운동》을 세차게 벌리면서 충성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내달리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천리마 《붉은기》5093호 기관사인 신형진동무는 이 충성의 대오의 맨 앞장에서 달리고있었다.

우리가 현장에서 처음 만난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인 림영호기관사는 그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다.

《신형진동무는 제2차 7개년계획의 첫 3년분과제를 6월 3일 현재로 끝내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 18차 전원회의결정을 받들구 올해말까지는 남은 4년분과제를 마저 초과수행하겠다고 나선 동무지요. 그러니까 해수로 따지면 벌써 1984년에 살고있는셈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마다 그에 대하여 모두 이런 식으로들 말했다.

우리는 첫 취재대상으로 그를 정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와 마주앉을 시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애초에 그와 마주앉아 이야기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동승하기로 작정하였다.

잠시후에 우리는 신형진기관사를 찾아 대건역 구내를 거닐게 되었다.

《대건설》이란 첫 두 글자를 따서 새롭게 생겨난 고장인 대건! 그 이름과 같이 이곳은 오늘 나라의 사회주의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곳이었다. 여기로부터 세멘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건설자재들이 화차들에 실려 나라의 하많은 건설장들과 항구들로 매일 매 시각 가는것이다. 지금이 시각에도 구내선들에는 세멘트를 가득 실은 화차들이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떠나갈 시간을 재촉하며 기관차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눈썹리 아득하게 차판들을 련결한 화물렬차들이 끊임없이 와닿고 떠나가고...

하여 마치 구내선은 그자체로써 큰 건설장을 련상시켰다. 그 움직입속에서 기관차들과 여러 기관차대 일군들의 눈부신 로력투쟁을 엿보기는 결코 어렵지 않았다. 그러느라니 그들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을 얼마나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고있는가 하는것이 절로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이 간곡한 가르침을 심장깊이 새기고 일손에 불꽃을 튀기고있는 것이다.

그 벽찬 투쟁모습에 눈길을 팔며 그냥 구내길을 걷고있던 우리는 문득 《론쟁》을 벌린 두 일군과 맞다들리게 되었다. 눈여겨보니 한사람은 바로 다름아닌 신형진기관사였다. 혈색좋은 동실한 얼굴이 밤눈에도 의젓해보였다. 그리고 그와 마주선 사람은 역사령원인듯싶었다.

《동무들은 일기에보도 안듣구 다니는 모양이군. 오늘밤같은 때에도 그 많은 차량을 끌겠다면 어떻게 하자는거요?》

《사령원동무 말대로 한다면 장마철이나 눈이 쌓이는 계절엔 초과건인을 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론쟁》의 내용인즉 바로 이러하였다. 《론쟁》은 계속되었다.

《철도일이란 계절의 영향을 무시할수야 없지.》

《그만두십시오. 그쯤한걸 극복할 생각을 못해서야 어떻게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할 각오가 돼있대구 할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짐을 끄는거야 사람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자신이 어떤 각오로 일에 달라붙는가 하는게 기본이 아닐가요?》

이리하여 마침내 신형진기관사는 애초에 고집하고나섰던대로 초과분의 화물차량을 끌고 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수송사업을 더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하신 그 다음날로 또다시 작업반원들을 데리고 여기 대건으로 와 목적지까지 한초의 어김도 없이 정시에 초과분의 물동량을 나른 신형진기관사, 오늘도 그는 그 톤수에서 한 톤도 양보를 하지 않은것이다.

이리하여 차량들을 한 선우에 하나로 이어놓은 신형진기관사의 숨씨는 마치 교예사의 손길을 련상시켰다. 그가 세멘트로 가득찬 화차들을 한 궤미로 쭉 이어놓은것은 불과 얼마만이였다.

그러기가 바쁘게 그는 또 한번 모래뿌림장치에 이상이 없는가 눌러도 보고 제동변의 손잡이를 돌려보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인차 수리도구들을 꺼내여들고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기관실로 들어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처럼 전동기

의 음향에 귀도 기울여보고 고속도차단기의 접촉 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기도 하는것이였다. 까놓고말해 이 일들은 기관사의 임무에 속하는 일감들은 아니였다. 그것은 수리공들이 할 일이였으나 신형진동무는 제손으로 또 한번 직접 검열해보고서야 마음을 놓은듯했다. 한건의 사고, 한초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건설장들에 더 많은 짐들을 나룰수 있도록 기대를 언제나 만가동상태로 준비해놓는 그 마음씨에 우리는 무척 감동되였다.

마침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리용하여 그는 조사와 함께 간식보자기를 내려놓고는 우리까지도 청하는것이였다. 우리도 가지고 온 다과며 사이다병들을 내려놓고 함께 마주앉았다.

《자, 이걸 좀 보시우. 오늘두 이 녀석이 또 이런걸 집어넣었구만요.》

이러며 신형진기관사는 간식보자기속에서 편지 봉투만한 종이장을 꺼내어 우리앞에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본 우리는 원주필로 능란하지는 못하나 정성담아 또박또박 쓴 다음과 같은 글자들을 읽을수가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짐 많이 나르시라요.》

《인민학교에 다니는 아들놈이 쓴거지요.》하고 신형진기관사는 말했다. 《글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 대한 소식이 난 다음부터는 제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어김없이 음식보자기속에 이런 글쪽지를 집어넣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것까지 이렇게 나라의 동맥을 걱정하는 마음이 기특한데 어떻게 아버지된 마음으로 제어기손잡이를 무책임하게 다룰수야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 별나지 않은 글을 매일 대할 때마다 생각이 새삼스러워지는군요.》

그러고보니 우리에게도 그 별나지 않은 종이장이 아무렇게나 여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10여년간이나 잡아오는 제어기손잡이를 또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잡도록 부추겨주는 힘있는 글발이 아닌가.

발차시간을 몇분 앞두고 우리는 신형진기관사의 손에 두툼한 수첩이 쥐여있는것을 보았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것이 어떤 수첩이라는것을 알수가 있었다. 그런 수첩들은 많은 기관사들이 가지고 다니는것이니, 그것은 지질탐사일군들에게 바지다면 지질도와 비슷한것이요 농산일군들로 말하면 필지별분석카드와 비슷한것이였다. 말하자면 자기가 지나다니는 철로길의 상태를 상세하게 수록한 문서인것이다. 그것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관사들은 휴식때에 현지에 나와 한걸음한걸음 더듬으면서 연구를 거듭한다. 그리고는 후에 그 매 선로길의 상태에 맞게 차를 모는것이다. 그런데 신형진기관사의 경우에는 그 수첩이 더욱 류다른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이 수첩을 완성해나감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3배, 4배의 힘

들 들인다고 할가. 모든것이 변하는것처럼 철로길과 그 주변의 상태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그것을 고려하여 신형진기관사는 벌써 10년이나 다녀본 길을 또다시 밟고 또 밟아보는 것이다. 그는 바로 며칠전에도 이곳까지 나오는 다른 기관차에 자진하여 타고나와 배산점-동북리 구간을 걸어서 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기관차에서 들은바 있었다.

정각 0시! 마침내 렬차는 대견역을 떠났다. 그런데 렬차가 떠나기가 바쁘게 박동무나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생긴것만은 분한 일이었다. 갑자기 6월의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한것이다. 드레박으로 퍼붓듯하는 비물이 창문으로 찰찰흘러내렸다. 그러니 철길연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기는 벌써 다 그른 노릇이였다.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제 물기를 함뿍 머금은 철길위로 제아무리 힘이 센 기관차라 한들 정량의 배이상이나 되는 물동량을 그냥 끌고서는 도저히 가내지 못할것이다. 더구나 이 미끄러운 선로길로 배산점-동북리구배길을 어떻게 극복해내랴. 이제는 도중의 기술역에서 초과분에 속하는 차량들을 떼어 놓기가 십상일것이다. 때마침 신형진기관사는 마치 혼자소리처럼 덤덤히 말하는 것이였다.

《일기예보대로 기어이 퍼부어대구야 마는군.》

그 말소리는 언짢아하는 말인지, 대수롭지 않는다는 뜻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아닐세라 평성역으로부터는 벌써 무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역에 일단 렬차를 세울것이며 초과분의 차량들을 다 떼여놓고 떠나야 한다는 지시였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신형진기관사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가싶었다. 그는 한차량도 떼지 않겠다는것과 타력을 잃지 않기 위해 렬차를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자신의 결심을 매우 완강하게 피력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은 그가 결심한대로 아귀가 지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이 모진 비속을?... 우리는 자연히 긴장되였다.

드디어 렬차는 배산점-동북리구간에 들어섰으나 신형진기관사의 얼굴에는 눈섭 하나 까딱하는 빛조차 엿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그려지더니 입속으로 중얼거리듯 이렇게 말했다.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걸 뚫는 재미두 있어야 살아나가는 몇두 있는거지요. 그런것이 없다면 사람은 해이해지구, 오히려 혁신이나 전진이라는 말의 참뜻을 모를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차고도 량만적인 기관사인가!

그럴 때 고개마루로 치달아오르면서 점점 더 가쁜 숨을 몰아쉬는 기관차의 동음은 우리들의 몸에도 그대로 전달되는듯싶었다. 두줄기 철길우에서 기세줄게 구울던 차바퀴는 천근처럼 무거운 소리를 내고 전기기관차의 심장인 6개의 전동기도 힘겨운듯 점점 헐떡거리는가싶었다.

《드르르르...》

차바퀴가 헛도는 순간 기관사의 발은 번개처럼 모래변을 누르고있었다.

침묵속의 전투는 더욱 긴장해지고있었다. 우리의 눈길은 바늘끝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계기에 쏠렸다. 600암페어를 넘으면 일은 마지막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을 공연한것이라고 비웃거나 하듯 510, 520, 530이라는 수자를 가리키던 바늘은 한순간에 다시 510을 가리키고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기관사는 그 온몸, 온 신경자체가 그대로 기관차로 된듯싶었다.

《뒤 줌음!》

《뒤 줌음!》

긴장된 정황속에서도 기관사와 조사사이에 오가는 맞물음 맞대답이다.

마침내 기차가 마지막 제일 힘겨운 고비를 넘긴순간 우리의 눈앞에는 전혀 뜻밖의 광경이 나타났다. 철길 광견에서 우등불들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빛들에 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는것을 놓칠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달려오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그 누구를 부르기도 하는가 하면 머리수건을 벗어 흔드는 너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의 환호에 대답이나 하듯 기관차는 두번이나 《붕-》하고 기적소리를 울렸다. 그것은 동시에 가장 어려운 구간을 승리적으로 극복했다는 승전고이기도 했다. 또다시 기관사와 조사사이에 는 맞물음이 오고갔다.

《X시 X분, 틀림이 없는가?》

《X시 X분, 틀림이 없음.》

《그러면 기차는 정시다. 내 말이 맞았는가?》

《맞았다. 기차는 정시다.》

철길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이냐는 우리의 물음에 신형진기관사는 마지못해 대답하는듯 나직이 섬겼다.

《우리 작업반원들의 가족들이지요.》

그래도 미처 해득 못하는 우리에게 조사가 마저 설명해주었다.

《작업반장동무네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비롯해서 작업반내 기관사들과 조사들의 가족들이지요.

날씨가 험하거나 또 일기예보로 험하게 된다는 걸 알기만 하면 이쪽으로 나오는 다른 기차편에 저렇게 모래를 지고 와서는 제일 가파로운 고개길에 뿌려주지요. 누가 시킨것두 아닌데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가 있는 직후부터 저런 좋은일하기를 벌려왔지요.》

《그럼 아버지의 음식보자기에 매일 부락을 적어 넣는 그 학생아이두 저속에 있는가요?》 가슴이 얼얼해진 나는 이렇게 물었다.

《있구말구요. 이자 맨앞에서 손을 흔들지 않습니다. 저두 커서 기관사가 되겠다는놈인걸요.》 하고 조사는 우리가 마치 그 애를 알고나 있는듯이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

전원회의에서 펼쳐주신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밤낮으로 이어 달리는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이 더 많은 짐을 싣고 정시에 어김없이 다니라고 이렇게 온 가족들까지 떨쳐나선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아까 평양에서 신형진기관사와 그 승무조원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던 까닭을 알았다. 굶은 날이면 바로 이 철길우에 그들의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서있는것이다.

《마음이 한덩어리로 뭉쳐질 땐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지요. 온 집단이, 더구나 가족들까지 한덩어리로 뭉쳐 달라붙는 이상에야 두려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은 비가 와서 결의과제를 수행 못하구, 래일은 다른 또 무슨 조건이 제기돼서 결의과제를 수행못한다면 어떻게 나머지 4년분과제를 여섯달동안에 완수해낼수가 있겠습니까?》

기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 소난비는 멎었다.

지나가는 차창밖으로는 폭이며 공장이며 건설장들이 엇바뀌어 지나갔다. 빈번히 불빛속에는 사람들의 그림자들도 어른거렸는데 그들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주었다.

《난 알지요. 작가동무들이 아까부터 밤경치를 보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눈치를말입니다. 그건 우리두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다싶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만 단 한번이라두 보지 못하구 놓치면 아쉬워 견딜수 없지요. 낮풍경두 좋지만 밤풍경은 또 밤풍경대로 좋거던요. 정말 변화무쌍한 풍경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도저히 맞지 않지요.》

어째서인지 신형진동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제는 기초구덩이를 파던 자리에 오늘은 창이 하나 올라가구, 어제는 돌다리가 건너놓였던 자리에 오늘은 세멘트다리가 생겨나구,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달라지는것입니까.》

그래, 우리가 말아보는 수송사업이 그 모든 변화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구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벅차지요. 그래서 난 손저어 우리를 마중하구 배려주는 사람들과 마주서서 단 몇분씩이라두 생활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때가 문득문득 있지요. 하지만 단 1분두 그럴수가 없는게 아쉽군요. 어찌겠습니까. 수송이란 단 한초만 몇어두 조국건설 전반에 지장을 주는걸요.》

그러는 사이에 렬차는 어느덧 수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골색, 붉은 색,

푸른 색 불빛들이 우리를 반기는듯 깜빡이고있었다. 그 품속을 향해 렬차는 더욱 세차게 달리고있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이 깊은 새벽에도 천리마 《붉은기》 5093호는 드림없이 정량의 2배 이상이나 되는 물동량을 싣고 그것들을 조국의 건설장들에 대여주기 위하여 달리고 또 달리고있는것이였다.

수도의 식료공업기지를 찾아서

리동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배려로 웅장하게 건설된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몹시도 부풀었다.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이 현대적인 자동화설비로 꾸려졌다는데 이제 우리앞에 얼마나 놀라운 전경이 펼쳐지겠는가!

빠스는 록음 우거진 가로수길을 굽이굽이 에돌아 달렸다.

한여름의 피약별이 아침부터 대지를 지지여 벌써부터 무더웠다.

우리는 시원히 걸으려고 빠스에서 내렸다.

멀리 펼쳐진 논밭들의 한끝에서 조용히 불어오는 실바람에 실하게 자란 푸르른 논판이 물결쳤다. 하늘과 들판은 한껏 푸르렀다.

방금 교대를 바꾸고 나오는 노동자들이 계획을 넘쳐한 기쁨을 안고 서로 웃고 떠들며 길이 메이게 걸어왔다. 우리의 옆으로는 식료차들이 꼬리를 물고 공장으로 가고있다.

벽찬 새날의 아침은 약동하였다. 푸른 벌, 높이 자란 가로수, 곧게 뻗은 신작로, 연줄연줄 늘어선 지방산업공장들...

자동화된 공장이 과연 어떻게 꾸려졌을까 하는 호기심은 우리의 걸음을 더욱 빠르게 했다.

드디어 흰벽체 산뜻한 고층건물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저기가 식료공장이다.

우리는 잠간 걸음을 멈추었다. 대체로 식료공장이라면 넓은 부지를 가진 단층건물들로 되어있는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앞에는 거창하면서도 정결한 높은 층의 종합식료가공공장이 펼쳐진것이다. 부지 또한 굉장하였다. 규격있게 곳곳에는 나비를 반겨주는 꽃밭들로 꾸려졌고 구내길은 모두 포장되었다. 얼핏 보면 공장이라기보다 어느 휴양소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정문에 들어설 때는 사위가 조용하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고르로운 기계소리가, 그것도 아주 간간히 들려올뿐 사람이란 볼수 없었다.

(혹시?...)

우리는 이 공장의 한 일군을 만나 사연을 물었다.

의아한 기색으로 쳐다보던 그 일군은 인차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것이였다.

《넌데 마십시오. 공장은 지금 만부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장이 현대적으로 자동화된것을 생각 못하셨군요.》

《아! 그렇구만요.》

우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였다. 말로만 자동화된 공장이라고 들었던지라 미처 생각을 못했던것이다.

《저것 보십시오. 식료차들이 얼마나 분주히 드나듭니까!》

구내길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식료차들로 복잡하였다. 교통안전원을 세워야 할것 같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찰하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찰하자!》 등의 힘있는 대형구호판들이 신작로를 가로건너 걸려있다. 그리고 구내길 좌우쪽으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판들이 한눈에 안겨오도록 잘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이렇게 실현된 거창한 식료공업기지를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가슴은 마냥 설레었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도시민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공원처럼 잘 꾸려진 포장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공장에 돌려주신 크나큰 배려에 대하여 안내원으로부터 들었다.

한평생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시고 심려하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 공장을 구상하시여 물원천이 좋고 전기를 편리하게 쓸수 있는 경치 좋은곳에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으시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현장을 찾으시고 귀중한 자재와 설비 그리고 기술자들을 우선 보내주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공장이 준공되어 생산이 한창이던 1978년 11월 20일에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맛좋은 빵과 국수, 파자를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상품공급체제도 정연하게 세워주시였다.

우리는 안내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밀가루직장부터 찾았다. 마침 구내선에 들어온 기차에서 밀쌀을 부리우고있었다. 밀쌀은 차량전복기에 의해 순식간에 부리워졌다. 뿜뿜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콘베아에 실린 밀쌀은 싸이로에 저장되고있다.

밀쌀은 싸이로에서 다시 정관을 통해 정선기에 들어간다. 정선기에서는 바람에 의한 분리, 자석에 의한 분리를 거쳐 세척기로 들어가 깨끗이 씻기운 다음 분쇄기로 넘어간다. 이 모든 공정들은 관속에서 진행되므로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것은 조종반의 계기들이뿐이다. 노동자들은 조종반 앞에서 감시하고있다. 그들이 다루는 모든 정밀한 기계들은 수도시민들에게 맛좋은 식료가공품을 먹이시려고 것처럼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우리 로동계급들과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만든것이다.

밀가루직장에서 나온 우리는 파자직장으로 갔다. 승강기를 타고 4층까지 올라온 우리는 이곳 직장장을 만나 함께 다니게 되었다.

기계들이 제렬순위로 정연하게 놓여있었다. 공정이 바뀌는곳마다 조종반이 있고 거기에 흰 수건을 쓰고 배꽃같은 위생복을 입은 처녀들이 서있었다. 기계소리는 너무도 가볍게 조용히 울렸다. 마치 큰 정밀기계공장에 온것처럼 우리는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밀가루가 반죽된다고 한다. 그런데 밀가루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동무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코노래를 부르는 처녀앞으로 다가가 묻자 그는 부끄러운듯 해맑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반죽을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 반죽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수 없을까요?》

《반죽은 기계가 한창 합니다. 보십시오.》

처녀는 기계우에 것처럼 썩은 쇠뚜껑을 열어보인다. 그속에서는 밀가루에 사탕가루 기름, 우유, 닭알 등과 일정한 량의 물이 섞이면서 반죽이 되고있다. 처녀는 조종반에 나타나는 불빛을 보면서 이것저것 단추를 찾아 누른다.

《이건 반죽이 어떻게 되고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 단추는 혼합상태를 알려주고 또 이 전등은 반죽이 다 되어 전기스위치가 떨어진다는것을 알려줍니다.》

아니나다를가 마침 반죽이 끝났다고 빨간 전등 불빛이 켜지자 반죽기는 저절로 멎어섰다.

이때 갑자기 머리우에서 종이 울렸다.

우리가 우를 쳐다보니 저기에도 또하나의 큰 계기가 달려있었다.

《반죽을 내려보내라는 신호예요. 저 계기는 지금 300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300키로그램의 반죽을 내려보내라는겁니다.》

반죽공처녀는 마치 요술이라도 하듯 방실거리며 한 조종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봉 하는 소리와 함께 반죽기는 모로 펄떡 누워지며 문이 열린다. 그 사이로 작두같은 절단기가 내려와 300키로그램의 반죽을 썩덕 잘라서 아래층으로 떨어준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그러니 동무는 손에 밀가루를 하나도 묻히지 않고 반죽을 하누만!》

우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니 처녀도 따라웃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죽기운전공이에요.》

반죽공처녀는 자기는 힘든 일을 덜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받아안은 행복한 로동자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직장장은 아이들이 맛있는 파자를 손에 들고 방실방실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공지가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일본놈들이 경영하는 파자공장에서 일할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정말 그때 작업장이란 함정속의 한정터였지요...》

...그때는 모든 일이 힘겨웠다. 기계란 없었다. 그래서 반죽을 하려면 팍동이나 흘려야 했다. 밀가루 한포대쯤 반죽하고나면 손목이 시큰거리다 못해 통통 부어올랐다.

반죽이 묽어지거나 되지면 곤죽이 되도록 얼굴이며 어깨머를 가림없이 얻어맞는다.

반죽은 또 그렇다치고 형타작업을 위해 나무봉 밀대로 미는 일은 얼마나 힘겨웠던가...

이때부터 마스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자를 먹지 못하게 입을 막자는것이다. 파파자 한쪽이라도 먹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그달 품값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가난한 아이들이 흙으로 파자를 빚어가지고 놀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이 파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가고 묻곤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파자이라고 대답합니다.

<웁다, 그 옛날엔 파자란 구경도 못했단다>하고 나는 말해주지요.》

그리고보면 반죽공처녀에게 무엇인가 더 묻고 싶었다.

《동무는 참 훌륭한 일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어머니심정 그대로 일합니다.》

부끄러움에 물든 맑은 얼굴에 끝없는 공지가 비끼였다. 우리의 마음도 흐뭇해졌다. 그 옛날 사람이 하던 모든 일을 오늘은 기계가 한다. 우리의 로동이 얼마나 보람차고 흥겨운가 처녀는 코노래를 부르지 않았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아글타글 일하는 자랑스러운 식료가공공업일꾼이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동의하였다. 고르로운 기계소리에 어울려 처녀의 코노래소리, 웃음소리, 작업장의 랑만을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일터! 작업장은 정말로 흥겨웠다.

우리는 반죽공처녀와 헤어져 반죽이 2차, 3차 압연을 거쳐 로라식성형기에 들어가 형타에 찍히는 기대앞에 섰다.

단풍잎, 꽃, 사슴, 토끼... 고운 문양이 새겨진 파자가 벨트에 실려 소성로에로 끊임없이 들어간다. 감시창으로 들여다보니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파자가 보인다. 다 익은 파자는 밖으로 나와 정량기앞으로 흘러가더니 폭포처럼 쏟아져내렸다.

정말 굉장하였다. 끝없이 쏟아지는 파자폭포!
산벼랑에서 떨어지는 물만이 폭포였는가, 맛좋은 파자가 고소한 향기를 풍기며 쏟아져내리는 파자폭포!

이것을 어찌 무심히 보겠는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의 폭포인것이다.

저 파자는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가정마다 찾아오고 아이들은 방실방실 웃으며 두손 벌려 마중온다. 참말로 복된 아이들이다.

우리는 파자폭포를 돌아보고 성형공 이정희, 김춘복, 우금화동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나갑시다.》

《오늘 계획은 벌써 200프로로 했습니다.》
이정희, 김춘복동무들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실로 그들의 일손엔 신바람이 났다.
벌써 오전중에 200프로라는 말이 우연치 않았다. 그들은 그전에 비해 열배스무배 넘쳐하기 위해 아글타글 일한다.

《수도시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진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하는 영예감을 간직한 우리들이 이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지요.》

처녀들은 부끄러운듯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어머니라는 말의 뜻을 간단히 해석할수는 없다. 그처럼 따스하고 깊고 많은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런데 처녀들은 모두 자기를 어머니라고 한다...

우리는 포장직장까지 다 돌아보고 빵직장으로 내려왔다. 빵직장의 생산공정도 파자직장의 계열식공정과 비슷하였다.

일하기가 어떤가고 기대공처녀에게 물었더니 그는 식생활을 책임진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모를게라고 하였다.

만나는 동무들은 아직 처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그리고 거침없이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지요. 집에서는 한 가정의 식생활을 맡은 어머니지만 우리는 수백만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주부니까 어머니지요 뭐 호호...》

우리는 그들의 말을 긍정했다. 랑만적인 처녀들의 이야기가 귀에서 쟁쟁 울린다...

빵직장의 마지막 공정인 포장까지를 돌아보고 잠시 휴식한 다음 국수직장으로 갔다.

직장장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난번 현지지도하실 때 기대를 지켜본 기대공들이라고 하면서 류영숙, 현보옥동무들을 소개해주었다.

류영숙동무는 영광의 그날을 되새기며 목메어 말했다.

《...이 압연기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국수를 생산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쏟아져나오는 국수를 오레도록 지켜보시며 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저녁한때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국수나 빵을 사다가 손쉽게 해먹을수 있게 되었으니 녀성들의 일손을 덜어주게 되었다고 그 몇번이나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공장에 깃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무슨 말로 표현하면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우리의 가슴은 불처럼 달아올랐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치시는 아버지수령님!

진정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식료가공품을 먹이시려고 얼마나 크나큰 사랑을 기울여주시는것인가!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면 제일먼저 곡산공장, 식료공장을 찾으시여 더 많은 식료품을 생산공급하라고 뜨거운 사랑으로 고무해주시는 수령님.

그이의 위대한 사랑의 빛발속에 오늘 도시에서 산간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곡산공장들과 식료가공공장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 백을 주고싶어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떠받들리어 우리 인민의 식탁은 언제나 풍만한것이다.

이곳 노동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현지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식료공업 일군들이기에 자기들을 《어머니》라고 서슴없이 말하며 맛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이들의 정성을 받아안은 우리 근로자들의 일손엔 신바람이 날것이고 새힘이 용솟음칠것이며 우리 나라의 모든 일터마다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될것이다.

줄곧 흥분과 격동을 누르며 공장을 다 돌아보고 나오니 식료차들이 파자, 빵, 국수를 가득가득 싣고 경쾌하게 경적을 울리며 정문을 벗어나고 있었다. 끝없이 흘러가는 식료차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고 커다란 행복감에 설레었다.

푸른 하늘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빛발이런듯 따사로운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있었다.

매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은종섭

작품에 설정된 매개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하는것은 주체적문예리론에서 밝혀진 공산주의인간학창조의 중요한 미학적요구이다.

매개 인물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하는것은 문학작품의 구성을 짜이게 하고 형상수준을 높이며 작품의 사상교양적의의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작품의 구성이 짜이게 하려면 모든 형상요소들이 주체실현에 빈틈없이 맞물려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기본은 인간성격,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성격은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인간성격은 문학작품에서 형상적화폭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을 정확히 설정하여 제자리에 옳게 세워놓을 때에만 구성은 빈틈없이 짜이게 되고 작품의 탄력성과 립체성이 보장된다.

작품에 설정된 매개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의 몫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또한 성격의 개성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성격의 사실주의적개성화는 형상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주체의 인간학에서 개성은 매개 인물성격이 안고있는 형상적과제와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적특성은 그가 안고있는 형상적과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매개 인물들이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뚜렷한 형상의 몫을 안고있을 때에만 목적지향성 있게 성격의 개성화를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형상과제의 실현과 밀착시켜 인물성격의 개성적특성을 모가나게 돌구어나갈수 있게 된다.

작품에 설정된 매개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의 몫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형상의 사상교양적역할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 설정된 모든 인물들이 주체실현에 복종되고 주인공의 운명선에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매개 인물성격이 단순히 하나의 문제점을 해명하는 수단으로만 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작품에 설정된 모든 성격은 사회의 각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이며 자체의 생활목표와 신념, 지향을 가진 산 인간이다. 매개 인물의 행동선은 그자신의 생활목표와 신념에 따라 주어진 사건에 참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심화해나가는 투쟁과 생활의 과정이며 일정한 지향성을 가진 활동과정이다.

혁명적문예작품에서 매개 인물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생활목표와 신념, 그 변화발전과정은 독자들에게 교양과 교훈을 주는 사회적문제성을 체현하게 된다. 바로여기에 전형의 사상교양적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매개 인물이 가지게 되는 이러한 생활목표와 신념 및 그 변화발전과정은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는데 철저히 복종되고 유기적으로 맞물려들어가야 하며 그런 한에서만 자체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매개 인물이 체현하고있는 문제성은 전체로서의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성을 실현하는데 복종되고 통일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체적인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로서 자체의 생활목표와 신념을 가진 매개 인간성격에 체현된 일정한 문제성과 작품전반에 일관하는 문제성과의 유기적통일, 바로 이 문제를 실현하는 공간이 매개 인물에게 주어지는 형상과제라고 말할수 있다.

매 인물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물배치와 인간관계설정을 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이 다 명백한것만큼 당의 로선과 방침에 근거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면 될것입니다.》

인물배치와 인간관계의 설정은 당의 로선과 방침에 엄격히 의거하고 종자에 철저히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작가들은 종자를 똑바로 쥐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물들을 옳게 설정하여 제자리에 바로세워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매개 인물형상의 뉘이 뚜렷해지고 전반적구성이 짜여 주제사상이 심오히 천명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심오한 철학성과 풍부한 형상적바탕을 가진 종자에 기초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기본인물들로 주인공 갑룡이와 그의 친구들인 철삼이, 만식이 등 농촌청년들의 성격을 설정하고 있다.

명작은 갑룡이 등 세 청년의 운명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이 살판치는 땅에서 가난한 조선사람들이 살곳이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서야만 진정한 삶과 행복을 쟁취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생동하게 밝혀주고있다.

죽어도 왜놈의 개질은 하지 않는다는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몸을 피하지만 진정한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목재판에 숨었다가 포대공사장에 끌려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철삼이의 성격은 《자위단》에는 안들어도 죽는다는 형상과제를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명작의 종자를 폭넓게 해명하는데 유기적으로 맞물려져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살불이인 사랑하는 누이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몸을 피하지 못하고 《자위단》에 들어갔다가 비인간적학대와 범죄적생활의 체험속에서 철삼이의 말이 옳았다는것을 때늦게나마 깨닫고 도망쳤으나 원쑤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체포되어 총살당하는 만식이의 형상에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는다는, 종자로부터 주어진 형상과제가 체현되어있다.

주인공 갑룡은 종자를 집중적으로 해명하는 기본과제를 안고있는 성격이다.

계급적자각이라고는 전혀 없고 어질고 순박하지만 하던 농촌청년으로부터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일제놈들의 요구에 순종해도 죽고 거역해도 죽는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 혁명의 길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갑룡의 형상을 통하여 명작의 사상적알맹이는 완전히 밝혀진다.

철삼이와 만식이의 성격과 운명은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명작의 종자에 하나의 생동한 해답을 주는 동시에 주인공 갑룡이의 체험과 각성의 계기를 지어주면서 작품의 줄거리에 유기적으로 맞물려져있다.

주체적인 공산주의인간학의 빛나는 본보기인 불후의 고전적명작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작품의 종자를 똑바로 쥐고 종자를 심오히 해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간성격들을 옳게 설정하여 형상과제를 명백히 안겨줄 때 작품의 구성은 빈틈없이 짜이고 종자는 심오하고 폭넓게 밝혀지게 된다.

종자를 똑바로 쥐고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충분히 예상하게 된 다음에는 매개 인물이 종자를 깊이있게 밝히는 형상과제를 똑바로 가지도록 구성작업을 치밀하게 하여야 한다.

우선 주인공이 종자를 직접적으로 구현할수 있도록 그 성격의 문제성을 옳게 설정하여야 한다.

주인공은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는데서 기본과제를 맡고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형상이 안고있는 문제성은 작품의 종자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어야 하며 종자가 제기하는 문제성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직접 배태하고있는것이여야 한다.

주인공이 안고있는 기본과제를 형상으로 실현하자면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며 따라서 작품에는 그것이 아무리 짧은 단편이라도 주인공과 함께 다른 인물들이 설정되게 된다.

여기에서 작가의 임무는 종자를 형상으로 밝히는데 없어서는 안될 인물들을 똑바로 찾아내는것이며 그 매개 인물이 종자를 깊이있게 밝힐수 있는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구성작업을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인물들이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얹혀지게 하려면 매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의 몫을 가지고 구성에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인물들이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데로 하나같이 합류해 들어가야 한다.

매개 인물이 안고있는 형상과제는 주인공의 운명선을 펼쳐나가고 내부적체험을 계기지음으로써 종자실현에 복종되어야 할뿐아니라 종자를 더욱 깊이있게 밝힐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편소설 《발걸음》(《조선문학》 1978, 2호)은 좋은 시사를 준다.

소설은 10년전 처녀측량소대장시절에 순간적으로 설쳤던 일이 가져온 뜻하지 않은 후과를 바로 잡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한 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체형의 인간들은 자기가 걷는 생활의 매 발자국이 혁명의 전진과 조국의 번영에 잇닿아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는 책임적인 걸음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한자육도 드팀이 없어야 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소설은 형상적화폭의 중심에 이제는 측량사업과 인연이 먼 료양소회계원으로 일하는 주인공 박련희를 세우고 그와 채동식기사사이에 인간관계를 맺어주고있다.

여기서 작가는 채동식에게 주인공을 10년전의 사소한 부주의가 가져온 커다란 후과앞에 세워놓는 임무만을 주고있는것이 아니라련희의 깊고 아름다운 성격에 자기를 비쳐보면서 잘못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제기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잘못된 측량도때문에 가져온 후과를 말끔히 가시고 조국의 대지우에 철길이 곧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여나서는련희의 깨끗한 혁명적량심앞에서 자신을 심각하게 돌이켜본 채동식은 당면한것만 생각하고 일을 손쉽게 하려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고쳐나간다.

이리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은 더욱 심화되고 형상적깊이가 보장될수 있었다.

매개 인물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물배치를 옹계 하고 형상과제를 정확히 주는것과 함께 전체 형상과제가 종자실현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형상작업을 바로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일부 작품들에서 형상의 몫이 뚜렷하지 못하고 구성이 산만하게 되는것은 형상과정에 매개 인물의 형상선을 옹계 살려나가지 못한것과도 적지않게 관련되어있다.

구성단계에서 인물배치와 형상과제설정을 정확히 한 경우에도 묘사과정에 형상의 대를 곳곳이 세워나가지 못하면 형상선이 탄 갈래로 뻗어나가 구성의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제멋대로 뻗는 가지를 다듬어 일정한 나무의 모양을 만들어나가는 원예사와 같이 종자실현의 테두리밖에 나가는 세부나 일화는 가차없이 잘라던진줄 알아야만 작가는 자기의 작품에 조화미와 탄력성을 부여할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적인물의 성격발전의 논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부차적인물의 운명선을 전개하거나 생활선을 필요이상 늘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단편소설의 경우 이러한 형상의 요구는 엄격하다.

종자실현의 요구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부차적인물의 생활선을 늘어나간다면 부차적인물선이 확대되어 주선을 누르고 설정된 형상과제는 모호해지게 되며 나아가서 작가의 형상적의도와는 달리 작품의 흥미를 다른데로 끌고가게 되어 결국 종자는 살아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종자에서 뻗어나온 형상의 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주인공선을 돌구어나가면서 부선을 주선에 철저히 복종시킬 때에만 매 인물의 형상과제를 뚜렷이 살리고 구성의 탄력성과 립체미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매개 인물이 뚜렷한 형상과제를 가지도록 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본질적내용과 미학적요구들을 옹계 파악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는 우수한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현대적미감과 속도감

차균호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흥분, 충동을 불러일으켜야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감동과 흥분을 주지 못하는 작품은 산 예술작품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감동과 흥분은 사상성과 함께 예술적형상이 높은 작품에서만 얻을수 있다.

그러면 소설에서 예술적형상성을 높인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묘사수준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고도 할수 있다.

가극에서는 절가화된 노래와 음악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면서도 방창, 관현악, 무대미술 등 다양한 형상수단을 동원하여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립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극배우는 얼굴표정, 발걸음, 손동작, 눈빛을 통하여 미세한 감정이 표현되도록 노력하며 대사 발음에서도 구체적감정이 느껴지게 호흡조절, 음색, 억양, 어조에 신경을 쓰고 속대사를 찾는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가극의 풍부한 형상방도와 연극배우의 온갖 표현적기능을 오로지 묘사를 통해서만 나타낼수 있다.

소설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묘사하지 않고서는 독자들을 다른 예술작품처럼 감동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소설가들은 자연묘사, 정황묘사, 물체묘사와 같은 환경묘사와 초상묘사, 심리묘사, 행동묘사와 같은 인물묘사의 여러가지 묘사형태들을 최대한으로 발동하고 개성적으로 가장 적중하게 선택하여 쓸줄 알아야 할것이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초상묘사와 심리묘사, 자연묘사를 인상깊게 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초상묘사가운데서도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와 같은 사상감정은 물론 복잡한 심리의 움직임도 섬세하게 나타내는 사람의 얼굴표정을 잘 묘사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얼굴에서도

눈은 사람의 내면세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민감하게 드러내보이며 깊은 속생각까지도 예리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인물의 섬세한 감정과 미묘한 심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심리과정을 직접 토로하는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비쳐주는 거울인 눈표정을 잘 묘사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을수 있다. 한마디의 특징적인 초상묘사가 때로는 열백마디의 구구한 심리묘사보다 더 위력한것을 우리는 훌륭한 소설에서 많이 알고있다.

자연묘사를 놓고봐도 그것은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형상적으로 암시할수 있는 비반복적이며 개성적인 화폭으로 되어야 한다. 천태만상의 자연을 어떻게 구태의연한 몇가지 단어나 표현으로 묘사할수 있겠는가. 이런 무개성적이고 도식적인 묘사는 주인공의 정서와 특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는데 하등의 도움도 줄수 없다.

그만큼 소설에서 묘사에 대한 요구성이 높다.

참으로 묘사수준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소설작품의 형상성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높이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독자들은 소설에서 간결하고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형상을 볼것을 바란다.

독자들은 이런 작품의 주인공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에 감동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한없이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그러나 문학적인 이야기, 다시말하여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산이나 전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질질 끌고가는 작품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독자들은 이런 작품을 들고는 읽으면 말면 하다가 뒤가 어떤가 하여 뒤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책을 덮어버리고 만다.

이런 작품에서는 사건은 발전하는데 첫머리에서 본 인물들의 사상과 감정이 중간이나 마감에

가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몇마디 설명으로 비약시켜버린다. 이런 작품일수록 묘사가 약하고 뜻이 깊지 못한 작가의 설화를 대신하는 대사와 굴곡없는 설명으로 채워져있어서 따분하기가 그지 없는것이다. 이런 작품을 두고 지루하지만 좀 참고 끝까지 읽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들이댈수는 없다. 이런 결렬을 가져오는 작품을 따져보면 결국 레외없이 흥미가 없고 지내 《긴감》을 주는 작품들이다. 다시 말하여 속도감이 없는 작품들이다.

문학작품의 속도감은 글의 길이와 부피를 말해주는 그 어떤 수량상 개념이 아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긴 장편소설도 짧다는 느낌을 가지고 읽는 경우가 있고 자그마한 단편소설이나 지어는 한페이지도 못되는 서정시도 지루하게 읽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도감은 사건이 진전되는 속도이며 문장과 문장, 장면과 장면의 련속으로 되는 문학작품의 감정의 흐름에서 느끼는 흥미에 관한 문제이며 묘사밀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들이 지루하게 느끼는데는 실속있는 내용에 비하여 분량이 긴데 있지만 이와 함께 이야기의 감동성정도에 있으며 사건전개방식여하에 달려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작품의 묘사에 관한 문제로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감을 생각할 때 묘사밀도를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긴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밀도로 묘사를 계속하든가 같은 유형의 단조로운 표현과 맥빠지게 답답하고 느린 문장만을 거듭 쓴다면 누가 그런 작품을 읽기 좋아하겠는가. 가령 하나의 장편소설이라면 거기에는 분석적이고 심도있는 묘사도 있고 감정이 장중하고 격조가 높은 문장도 있으며 공격적이며 논쟁적이며 창끝같이 예리한 규탄으로 관통된 문장도 있고 랑만과 환희에 흠뻑넘치는 음조도 있으며 부드럽고 섬세한 정서적인 음조도 있고 멸시와 조소에 찬 풍자적웃음으로 찬 문장도 있게 되어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여 시도 있고 회화도 있고 극도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을 감정의 다양한 변화속에서 생동하게 묘사하여야 할것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묘사가 소설의 특성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묘사밀도를 높일수는 없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묘사만이 독자를 납득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검질기게 묘사를 들이댄다 해도 독자는 그 부분을 넘기는 때가 있으며 한두마디의 문장까지도 세심하게 읽어내려갈때가 있다. 설명 없이도 이해할수 있는 장면과 심리의 움직임은 응당 비약해야 할것이다.

오늘 소설문학 특히 단편소설들에서는 독자대중의 미학정서적요구와 현시대의 미감에 맞게 그 묘사수준을 높이고 속도감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예술은 옛날식으로 너무 느릿느릿해도 안되고 너무 경박해도 안됩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나 지어도 어디까지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노래뿐만아니라 소설에서도 우리 시대의 미감에 맞는 속도감을 창조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오늘 우리 시대는 혁명과 투쟁의 시대로서 모든것이 활발하고 전투적이며 약동할것을 요구하는데 소설문장이 주인공을 한자리에 세워놓고 여러 매씩이나 뻗은 상식적인 설명을 들이댄다면 그런 소설을 두고 누가 지루해하지 않겠는가.

주체적문예리론은 예술적형상의 가치는 결코 백이라는 수자에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깊이에 있으며 백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가는 백에서 하나를 고를줄 알아야 하며 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그릴줄 알아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집약화하고 집중화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생활을 그려도 그것을 집중

적으로 파고들어 깊이있게 그려내어 그 한가지 사실을 통하여 많은것을 느끼고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도 지난날과는 달리 매우 철학적이며 지성도가 높은 것으로 특징된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달리는 우리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묘사에서 속도감을 견지하면서 형상의 철학성과 생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들이 우리 시대의 높은 지성도를 가진 독자를 철저히 믿는것이 중요하다.

묘사대상가운데서 본질적인 알맹이를 찾아내어 여러가지를 다 드러낼수 있는 한두마디의 말을 골라써야 하며 지나친 로파심에서 나오는 같은 질의 문장이나 같은 질의 장면은 대담하게 빼버려야 한다. 독자가 제쳐놓고 읽는 장면, 넘기는 문장이 소설가운데 있어서는 안된다. 실생활의 길이와 문학작품의 길이가 같을수는 없다. 묘사공간은 실생활의 흐름공간을 채우기 위한것이 아니다.

작가는 장면의 극적체험을 하고있는 독자대중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알고있으면서도 지나칠수 있는 부분을 다시 알려줄뿐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의 체험에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보태주어야 할것이며 독자를 믿는 원칙에 튼튼히 서서 묘사를 진행할 때 불필요한 군살, 상식적인것은 없어질것이다. 살아 뛰는것 같은 문장과 문장, 장면과 장면이 련속되는 속에서 생활의 진실을 예리하게 감명깊게 알게 해야 할것이다.

문학작품의 속도감은 개별적문장과 장면에서뿐만아니라 작품구성의 전개방식에서 특히 제기된다.

도식주의적인 형식, 구성방식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속도감을 보장할수 없다. 우리는 읽음새에서 기승전결의 요구를 알고있다. 또한 그것이 성격장성의 력사로 된다는것도 알고있다. 그렇다

면 작품표면상에 이 요구를 그대로 표현할것인가.

물론 그럴수도 있다. 소설의 성격에 따라 응당 그렇게 할것을 요구할수도 있다. 그러나 짧고 빠른 단편의 경우에는 그 요구를 표면에 고스란히 나타내기보다 뒤에 물어줄수도 있는것이다. 독자대중은 작가가 물어준것을 용이하게 꺼내본다. 그에 반하여 독자는 자신을 믿지 않고 지지콜콜하게 혼시하려드는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 독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여 진실하게 보여줄것을 요구하며 보여준 사실에서 미학적결론을 자신이 내릴것을 바란다. 때문에 작가의 과업은 자신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독자가 얻도록 생활을 객관적으로 그려주는데 있다.

문학작품의 속도감은 깊은 사색과 탐구의 열정을 기울일 때에만 보장할수 있다. 사색적깊이가 없는 글은 아무리 빠르게 엮어나가도 경박한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무게 있으면서 짧고 탄력성있게 울려나가는 글을 작가의 문학적탐구정신과 정열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작가의 창작적탐구정신은 생활을 더 깊이 파고드는 창조정신과 문학정신에서만 발양될수 있다. 같은 소재를 다루고 같은 문제점을 천명하는데서도 작품의 감동성이 다른것은 작가의 탐구열정과 관련된다.

문학작품의 속도감은 작품을 경박하게 만드는 것과는 인연이 없다. 속도감을 준다고 하여 주인공의 성격의 깊이와 바탕도 무시하고 내용이 앙상한 뼈마디만 남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속도감은 묘사밀도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한 주인공의 운명로정을 그리는 경우에는 그 생활의 특징적이고 본질적인 세부를 옹계 선택하고 거기서 묘사밀도를 높여야 할것이며 사건진행과정에 다양한 《여울》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여울》을 타고 변화발전하는 작품의 전개속에서만 속도감을 느낄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작가들은 지나치게 느릿느릿한것과 경박한것을 다 반대하고 혁명하는 시대 독자대중의 미감에 맞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상을 담은 문학작품을 형상성이 높게 창작하기 위해 힘써야 할것이다.

충성의 열정 더욱 불라게 하는 이런 작품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묘사한 작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는듯하여 숭엄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우리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로고와 끝없는 사랑의 력사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단편소설 《미루벌전설》(《조선문학》1979, 4호, 김삼복)도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수령님의 영상을 더 그림계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더우기 띄약별이 짹짹 내려쬐이는 무더운 날에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아롱지우며 푸르싱싱한 남새포기들에 약비를 뿌리는 보람찬 일터에 줄지어 늘어선 사랑의 분수기를 바라보느라 단편소설 《미루벌전설》의 꿈같은 이야기가 다시금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세세년년 만풍년을 마련해주시려고 억년 마를줄 모르는 훌륭한 관개를 벌써 오래전에 완성하여주시고도 《지하수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침을 선포하시고 그 불길을 전국각지에 지펴주시었습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땅에 대한 미루벌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것처럼 념원하던 생명수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버쳐오신 투쟁과 사랑의 력사를 감명깊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사는것이면 그 어디나 다 옥토로 전변시켜주시고 락원을 마련하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있으며 이 나라의 위대한 개변의 력사를 더 잘 알게 하여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준엄한 나날 전선으로 나가시는 그 바쁘신 길에서도 밤중에 미루등을 찾아주시는 대목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것입니까.

아버이수령님께서 썸조차 말라 밤중에 어린애를 업고 달구지로 물을 길러 밭에 대지 않으면 안되는 한 녀인의 모습에서 미루등사람들의 고생을 헤아리시고 가슴아파하시며 전쟁이 끝나면 미루등에도 생명수를 끌어올려주실것을 굳게 약속해주십니다. 뿐만아니라 아버지수령님께서 녀인이 신고있는 남자넙적고무신을 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어려운 전쟁의 나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녀성들에게 새 고무신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뒸은뒤 또다시 미루등을 찾아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그 준엄한 나날 이름없는 한 녀인과 나누신 약속을 실현해주시고 저 이처럼 또다시 찾아주시는것이었습니다. 명명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일찌기 품으셨던 원대한 구성을 한시도 미루실수 없으셨기에 해당일군들로부터 전후의 긴장한 나라형편으로 보아 국가적인 부담이 많이 드는 미루등개간은 할수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로 현지로 나오셨던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문가들과 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루등인민들은 거칠은 땅인 미루등을 인간의 의지에 복종시켜 복된 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꿈을 세기적숙원으로 품어왔소. 지난날에 그것은 이루어질수 없었소. 그러나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는 하느님도 어쩔수 없었다는 물고생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어야 하오. 공산주의자들은 낡은 사회제도만을 개조할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개조하여 인민들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 조국강토일진대 그 어떤 산간벽지도 험산준령도 버림받은 땅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걸머져야 한다는 숭고하고도 높으신 뜻이 담겨져있는것입니다.

이날 수원들과 함께 초원과 길없는 산길을 몸소 헤치시며 봉우리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레성강

을 막아 큰 저수지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구상까지 펼쳐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수원들과 옥실이,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둘러보시며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미루등에 물을 줘야 한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지난날 사람 못살곳이라고 밀어놓았다 하여 《미루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미루벌이 억만년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를 가진 황금벌로 전변되었으며 이 꿈같은 이야기는 《미루벌 전설》이라는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모든 논밭에 관수를 하여 기름진 땅으로 만들며 우리 인민을 그 어떤 왕가물이 와도 대대손손 풍년농사를 지어 영원히 쌀걱정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와 사색의 밤은 수천수만을 헤아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 마련된 하나의 우물, 하나

의 졸짚, 하나의 굴포도 후손만대에 전해질,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분수이며 이 분수야말로 억년 마를줄 모르는 행복의 젓줄기인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싹들과 이삭들이 비바람에 스러지고 범람하는 강물에 씻기우고 열풍과 띄약벌에 타죽어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속에서 헤매는 때에도 우리 인민만은 끄떡없이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며 황금의 나락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충성의 열정으로 더욱더 불타게 하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이의 고매한 품모와 높으신 덕성을 형상한 의의깊은 작품을 더 많이 실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양시 력포구역 세우물협동농장
남새 2반 김복희)**